

2008년 국어 상담 백서

국립국어원

2008년 국어 상담 백서

국립국어원

<머리말>

국어 상담 백서 발간 배경

국어문화원이 대국민 국어 상담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국어문화원의 원래 명칭은 국어상담소였습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발효하면서 국가의 지정을 받아 11곳의 국어상담소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7년에 추가로 3곳이 지정을 받았고, 2008년에 추가로 2곳이 지정되어 지금은 16곳이 되었으며, 2008년 개정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어상담소가 국어문화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국어문화원의 기본 사업인 국어 상담은 국민들이 국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의문점을 해소해 주는 것과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만든 문서의 문장을 검토해서 바른 문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공게시물 표기 검토나 전문 용어 순화 요청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 공공게시물의 표기나 국어 순화, 보고서 발행을 위한 문장 교열 등의 요청이 급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어 바로 쓰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 수요를 국어문화원이 효과적으로 충족해 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국어문화원이 국어 상담, 문장 교열, 국어 순화 등의 사업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내외에 밝히는 뜻으로 2008년에 전국의 국어문화원이 했던 국어 상담 내용을 백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국어문화원이 지역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더욱더 나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차 례

[국어문화원]

1. 국어문화원 발자취
2. 국어문화원 사업 개관
3.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개요

[국어 상담]

1. 일반인 대상 국어 상담

- (1) 어문 규정 관련 국어 상담
- (2) 문법, 표현 관련 국어 상담
- (3) 어휘 관련 국어 상담
- (4) 언어 예절 관련 국어 상담
- (5) 기타 상담

2. 공공기관, 언론사 대상 국어 상담

[1] 문장 교열 관련 상담

- (1) 소방방재청 안전생활 가이드
- (2)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서 바로 쓰기 편람
- (4)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의결서 문장
- (5) 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현장
- (6) 안산시청 문화재 안내판
- (7) 서울 동대문구청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현판
- (8)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정수장 유적 안내판
- (9) 강원도 횡성군청 한우현장
- (10) 강원도청 비무장지대 박물관 설명문
- (11) 서울메트로 발매기 설명문
- (12) 기타

[2] 표기 관련 상담

- (1) 안산시청 도로 표지판 표기
-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역사 주변 지명 표기
- (3)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도로 표지판 표기
- (4) 언론사(화광신문사) 외국어 한글 표기

[3] 순화 관련 상담

- (1)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 용어
- (2) 한국철도공사 철도 용어
- (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내부 공간 이름

[국어문화원 이용 방법]

국어문화원 이용 안내

국어문화원

국민들의
국어 상담과 국어 교육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

서울 지역: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강원 지역: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충청 지역: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전라 지역: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경상 지역: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제주 지역: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1. 국어문화원 발자취

(1) 국어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기관

국어문화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정하여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어문화원 지정과 관련한 국어기본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어기본법>

제24조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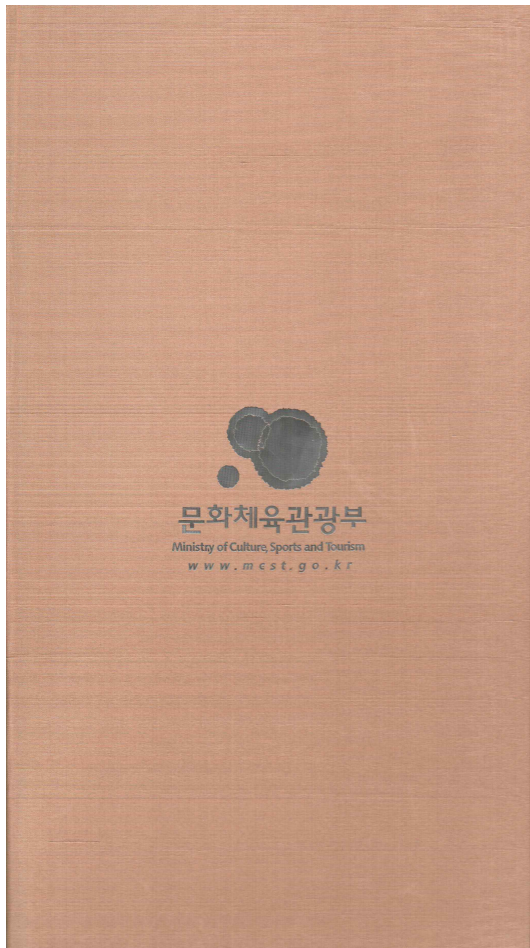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문화원의 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정부는 2005년 10월 1일에 아래 11 기관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했다.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대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경남)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서울)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부산)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충남)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경북)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서울)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광주)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충북)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충북)
한국방송 국어문화원(서울)



제 3 호

국어문화원 지정서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위 기관을 국어기본법 제2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합니다.

200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어문화원을 지정한 지정서 가운데 하나.)

[참고: 국어기본법의 개정과 ‘국어상담소’ 명칭 변경] 국어기본법은 2005년 2월 29일에 제정되었는데, 이때의 규정에는 국가가 국민의 국어 교육과 상담에 응하기 위해서 ‘국어상담소’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의 국어문화원이 당시에는 ‘국어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국어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다각화함에 따라서 ‘국어상담소’ 명칭이 업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2008년 3월 28일 법 개정을 통하여 ‘국어문화원’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서 법 제정 당시에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모든 기관은 ‘국어문화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2)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결성

전국의 국어문화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국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

고 국민의 국어생활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16일에 모든 국어문화원 원장이 참여하는 연합회를 결성하고 이름을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로 정하였다(당시는 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전국 국어상답소 연합회’였던 것이 법 개정 후에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가 되었다).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는 2006년부터 매년 전국 국어 대회(중학생 대상 황금사전 선발 대회와 대학생 대상 토론왕 선발 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국어문화원 사업 발표 및 평가회, 언어 자원의 다원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3) 국어문화원 5곳 추가 지정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정부는 2007년에 3곳, 2008년에 2곳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추가로 지정한 국어문화원은 아래와 같다.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강원, 2007년 말 지정)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전북, 2007년 말 지정)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제주, 2007년 말 지정)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울산, 2008년 말 지정)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대전, 2008년 말 지정)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서 국어문화원이 없는 지역(인천, 경기, 전남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 국어문화원 사업 개관

(1) **기본 사업:** 모든 국어문화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기본 사업이라고 한다. 각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기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국어 상담 및 교육 사업:** 국어 상담은 국어문화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사업은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이 제기하는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문장 교열과 표기법 상담을 주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한국방송 국어문화원은 시청자들의 국어 관련 질문에 응하면서 표준 발음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대학에 설치된 국어문화원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을 상대로 하는 국어 상담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민이나 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어 상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② **소외 계층 국어 교육 사업:**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이나 학습 지진아를 위한 국어 교육도 국어문화원의 기본 사업이다. 이주 여성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새터민(탈북자) 대상 한국어 교육도 국어문화원의 기본 사업에 속한다.

(2) **특수 사업:** 각 국어문화원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이주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교육을 비롯하여 이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시행,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운영,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① **이주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교육:** 이주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체로 각 단계별로 100시간(10주) 동안 교육을 하였다.

②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 문화의 다양한 부분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총 32시간(8주)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③ **한국어 강사 요원 양성:** 이주 여성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강사 요원을 양성하였다. 한국어 강사 요원 양성 과정을 시행한 국어문화원은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다.

④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지역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을 위해서 이들 기관이나 단체가 요청하면 강사를 파견하여 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강 인원 30명을 확보한 기관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손쉽게 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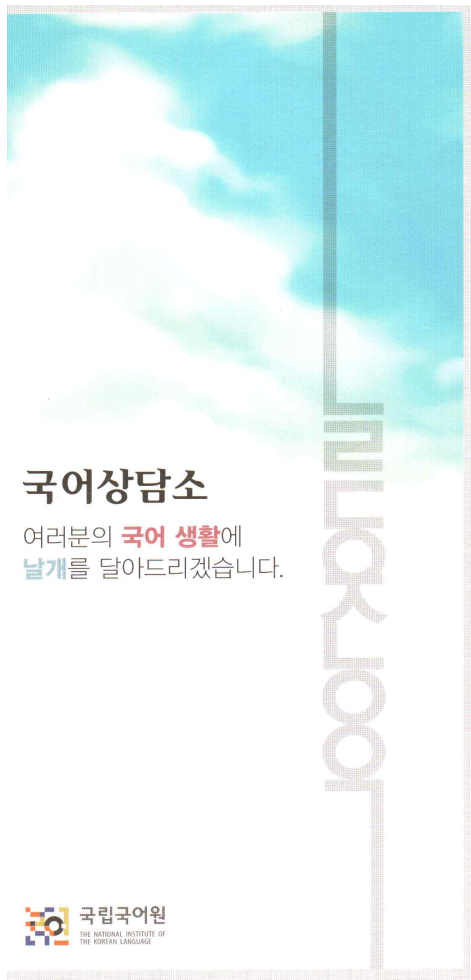
(3) 국어 행사: 국어문화원은 지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국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어 행사를 활용하였다.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등이 주된 행사였다.

① 토론 대회: 전국 단위 토론 대회로는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주관으로 대학생 대상 토론왕 선발 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토론왕에게는 국회의장상과 200만 원의 부상을 주고, 버금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100만 원의 부상을 주어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각 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개별적으로 한글날을 전후해서 토론 대회를 열고 있다.

② 말하기 대회: 각 국어문화원별로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대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외국인 대상의 말하기 대회는 모든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것과 한국어·한국 문화 이해 교육 수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다.

③ 글쓰기 대회: 한글날을 전후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대회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대회를 각 국어문화원별로 열었다.

④ 황금사전 선발 대회: 중학생들의 어휘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대회로서 전국적으로 예선을 거쳐 서울에서 결선을 하여 으뜸상(황금사전) 수상자를 가렸다. 2006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2008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국어상담소’ 시절의 홍보 전단 표지)



(‘국어문화원’의 홍보 전단 표지)



국어 상담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관련 문의 상담
- 문법, 화법 문의 상담
- 문장 교정, 교열 상담
- 기타 국어 관련 궁금증 해소

국어 교육

- 국어 능력 향상 교육
- 글쓰기 지도 교육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 국어 자원 봉사자 국어 교육
- 소외 계층 자녀 국어 지도
-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지도
-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 한국어 지도

국어 관련 행사

- 지역 사투리 대회
- 말하기 대회
- 황금사전 선발 대회
- 토론왕 선발 대회

지역어 사업

- 지역어 조사
- 지역어 관련 학술대회 개최
- 지역어로 하는 수업 자료 발간

언어 환경 개선 사업

- 길거리 언어 경관 개선
- 외래어, 외국어 남용 개선
- 외래어, 로마자 표기 개선
- 정부, 언론 등 공공 기관의 언어 활동 감시
- 국민의 언어 의식 개선 홍보

국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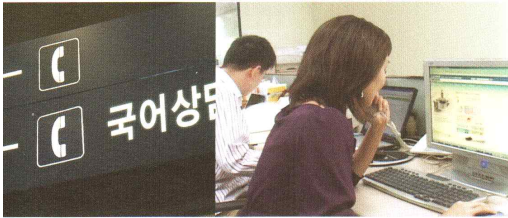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이 제작한 국어문화원 홍보 전단의 첫 면.)

하나

둘

국어 상담

전화, 누리집(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국어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국어문화원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원고 교정과 교열

논문, 기고문, 발표문 또는 출판물 위한 원고 등의 교정, 교열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은 가까운 국어문화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체로 유료로 제공합니다.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이주민 대상)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대비반: 전주대

성인 대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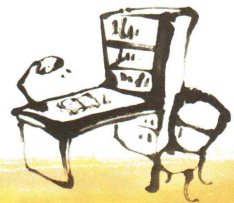
- 일반인을 위한 국어 문화 학교: 전체 국어문화원
- 우리말 시민 강좌: 제주대
- 문장사 양성 동영상 강좌: 국어단체연합
- 한글학교: 동아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

- 초중고 학생 국어 교실: 강원대, 전주대(논술 강좌)

취업 준비생 대상 교육

-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특강: 청주대
- 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화여대
- 방송작가 양성 과정: 전주대
- 학예사 준비 과정: 전주대



(국어문화원 홍보 전단지 2면)

셋

다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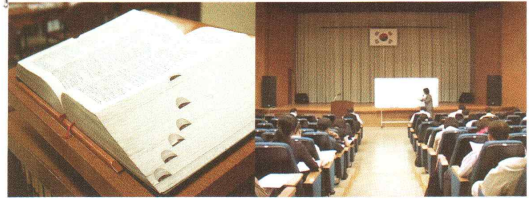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 강원대, 국어단체연합, 동아대, 상명대, 영남대, 전주대, 청주대, 충북대
- 여성 결혼 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배움터: 국어단체연합, 전주대
-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방문 학습지 운영: 상명대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전주대
- 다문화 가족 캠프: 상명대, 전주대



찾아가는 국어 문화 학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산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방문하여 국어 강의를 합니다.



넷

외국인 대면 한국어 지도

원하는 장소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국어문화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관별 교육 계획 수립

기관과 협력하여 일정 기간 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대전시 공무원 교육원 우리말 우리 글 바로 쓰기 과정(충북대) 등



(국어문화원 홍보 전단지 3면)

여섯

국어문화원 이용 방법



국어 관련 대회 및 행사

- 전국 황금사전 선발 대회: 전체 국어문화원
- 전국 토론왕 선발 대회: 전체 국어문화원
-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공모전: 경북대, 경상대, 동아대
- 외국인 한국어 대회: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 우리말 실력 겨루기: 국어단체인합(초등), 경북대(재학생), 경상대(재학생), 동아대(재학생), 상명대(대학생, 이주민), 영남대(대학생), 충북대(중고생, 대학생, 일반인)
- 고등학생 논술 대회: 제주대
- 제주어 말하기 대회: 제주대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백일장: 청주대



(국어문화원 홍보 전단지 4면)

전화, 인터넷 상담

궁금한 게 있으면 각 국어문화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거나, 전자우편 주소로 편지하십시오.(각 국어문화원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 전자우편 주소는 마지막 장에 실려 있음.)

교육 과정 참가

해당 과정을 개설한 국어문화원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자격과 수강료 여부를 미리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교정, 교열 의뢰

각 국어문화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국어문화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연 요청

기관 또는 단체가 국어 강연을 요청하시려면 30명 이상이 강연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어문화원에 따라 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각 국어문화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대상 국어 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시간 교육을 실시하려면 국어문화원에 문의하십시오. 각 국어문화원은 이미 비슷한 교육을 실시해 왔으므로 기관이나 기업체의 성격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여성 결혼 이민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교육을 원하시는 지자체나 민간 단체는 국어문화원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어문화원에 따라 지원에 인적, 물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개요

(1) **법적 근거:**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문화원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은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문화원이 시행한 모든 국어 상담이 곧바로 국가의 국어 상담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국어기본법이 요구하는 전문 국어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국어 상담에 응하도록 권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각 국어문화원의 상담 행위는 그 국어문화원의 행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은 각 국어문화원이 국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각 국어문화원은 국가의 지정을 받아 하는 국어 상담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국민 국어 상담에 응하고 있다.

(2) **상담 방법:** 각 국어문화원에서 국어 상담을 하는 방법에는 전화 이용, 인터넷 이용, 문서 이용, 계약 이용의 네 가지가 있다.

① **전화 이용 상담:** 각 문화원의 상담 전화로 전화하여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대체로 전화 상담은 매우 단순한 것에 한한다. 전화로 물은 것이라고 해도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자료를 찾거나 답안을 정리한 뒤에 별도로 알려 주기도 한다. 각 국어문화원은 모든 상담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때문에 전화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하는 일 등 국어문화원이 확인을 위해서 묻는 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어야 한다.

② **인터넷 이용 상담:** 각 문화원의 누리집에는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 여기에 국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놓으면 상담원들이 답변을 적어 놓게 된다. 게시판에 적어 놓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각 국어문화원의 전자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된다.

③ **문서 이용 상담:**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나 단체장 이름으로 국어문화원에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한 보고서의 내용을 교열하는 일이나, 국민이 읽게 되는 공문 또는 안내문을 교열하는 일, 도로 게

시판 등의 공공 게시판에 적을 글자를 교정하는 일 등은 국어문화원의 공신력에 기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대체로 공문서를 이용해서 상담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는 대개 양이 많고 처리 기간이 길어서 유료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④ 계약 이용 상담: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단순한 문서 교열의 차원을 넘어서 기관의 내부 언어 순화 사업처럼 다양한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다. 이런 상담도 유료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2008년 각 국어문화원이 수행한 국어 상담 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08년도 각 국어문화원의 국어 상담 종류>

	상담 방법	국어문화원	상담인, 상담 기관	누리집, 전화번호
1	전화, 인터넷	강원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군인	kwnu.net 033)250-8137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knukorean.knu.ac.kr 053)950-7498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ckc.gsnu.ac.kr 055)751-6195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barunmal.org 02)735-0991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korean.donga.ac.kr 051)200-7180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smkorean.net 041)550-5391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ccrk.yu.ac.kr 053)810-3561
		이화여자대학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munjang.net 02)3277-3250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kor.chonnam.ac.kr 062)530-0313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korean.jj.ac.kr 063)220-3095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malguel.cheju.ac.kr 064)754-2712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www.koreanlab.or.kr 043)229-8311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공무원	korean.chungbuk.ac.kr 043)261-3450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학생, 주민, 시청자	korean.kbs.co.kr 02)781-3838
2	문서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안산시청(공공 표지판)	barunmal.org barunmal.com 02)735-0991
			서울시청(상수도사업소)	
			서울시동대문구청(기념관)	
			서울시강서구(허준기념관)	
			강원도의회(편람)	
			강원도청(비무장지대박물관)	
			한국철도공사(용어 순화)	
			국립중앙디지털도서관	
			서울시청(도로교통과)	
			건강보험공단(문장 교열)	
			국가권익위원회(의결문)	
			소방방재청(안전생활안내)	
			특허청(디자인보호법령)	
			한국정보문화원(현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도 횡성군청(현장)	
			서울지하철공사(9호선)	
			부산지하철(기기 설명문)	
			화광신문사(외국어 표기)	
		이화여자대학 국어문화원	국방부(국방백서)	munjang.net 02)3277-3250
			카이스트 사전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충북 청주시청	korean.chungbuk.ac.kr 043)261-3450
			청주시 흥덕군청	
			한국수자원공사(현장)	
			한국철도공사(고객현장)	
			국가기록원 기술 규칙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감사원 감사 문장	malguel.cheju.ac.kr 064)754-2712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서울메트로(기기 설명)	korean.kbs.co.kr 02)781-3838
3	계약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철도학회(한국철도공사)	barunmal.org barunmal.com 02)735-0991

국어 상담

국어 상담에는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의 국어 궁금증에 대한 상담
2. 기관, 단체의 문장 교열 상담
3. 기관, 단체의 용어 순화 상담

1. 일반인 대상 국어 상담

아래 상담 내용은 학생, 일반인, 공무원 등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한 것을 각 국어문화원이 답변한 내용이다. 모든 질문과 답변을 여기에 다 적을 수 없어서 중요한 것과 자주 묻는 것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번호	부문	질문	상담 내용	상담자
1	어문 규정	cafe의 표기	‘cafe’는 ‘카페(<프>café)’로 표기합니다. 의미는 주로 커피나 음료, 술 또는 가벼운 서양 음식을 파는 집. ‘술집’, ‘찻집’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대
2	어문 규정	career, ‘커리어’? ‘커리어 르’?	1.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어까지 적용됩니다. 사실 외래어는 널리 쓰고 있으므로, 외래어 표기법을 찾아 보아야 하는 경우는 외국어가 더 많습니다. 2. ‘커리어’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특히 영어 표기에서 모음 다음에 발음되는 ‘r’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음 앞인지, 자음 앞이나 어말인지만을 나누고 있어 ‘career’의 경우에 ‘커리어르’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에 들고 있는 예를 보면 모두 ‘part’, ‘chart’ 등이 [pa:t], [tʃa:t]와 같이 제시되어 있고 ‘파트’, ‘차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모음 다음에 발음되는 ‘r’은 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3	어문 규정	carol의 표기	‘캐럴’이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carol’의 ‘o’ 때문에 ‘캐롤’로 발음하거나 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으면 ‘캐럴’이 됩니다. 그러므로 ‘carol’은 ‘캐롤’이 아닌 ‘캐럴’로 적어야 합니다.	충북대 (손대익)
4	어문 규정	eye shadow 표기	‘아이새도우’로 적으시면 됩니다. [ai ʃædou]이므로 ‘ʃæ’는 ‘새’로, ‘ou’는 ‘오’로 적으셔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5	어문 규정	hello의 표기	‘hello’는 ‘헬로’라고 적습니다. 외래어를 표기할 때 모음 앞의 ‘h’는 ‘ㅎ’로, ‘e’는 ‘에’로, 어중에서 ‘l’은 ‘르르’로, ‘o’는 ‘오’로 적습니다.	경상대 (이진은)
6	어문	mail	MAIL은 ‘메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래	경북대

	규정		어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에 따라 적기 때문에 [meil]을 한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땅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를 쓰지만 우리말이 있는데도 쓰는 외국어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메일'을 "전자 우편"으로 순화해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7	어문 규정	membership의 표기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는 어말의 [ʃ]를 ‘시’로 적도록 되어 있다. ‘멤버십’으로 쓰면 된다. (예) leadership 리더십, flash 플래시	한 국 방 송
8	어문 규정	message의 표기는	외래어표기법에서는 가능한 한 외래어의 본래 발음에 가깝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발음을 존중하는 표기는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을 실제 발음에 가깝게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음을 모르는 말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기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message’의 표기는 본래 발음에 따라 ‘메시지’라고 적습니다.	상명대 (서은아)
9	어문 규정	pamphlet의 표기	팸플릿이라고 하는지 팜플렛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하였는데, ‘pamphlet’은 ‘팸플릿’으로 적습니다.	상명대
10	어문 규정	report의 표기	‘report’는 [ripɔ : rt]로 발음합니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기 일람표 [표1] 국제 음성 기호화 한글 대조표에 표기된 발음기호에 따라서 ‘i’는 [이]로 발음해야 하므로 ‘리포트’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1	어문 규정	saturday의 표기	saturday의 발음은 [sætə : rdi, -dèi]입니다. 그래서 '세터데이'라고 적습니다. 'waiter'를 '웨이터'라 안 적고 '웨이터'라 적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경상대 (박용식)
12	어문 규정	saxophone의 표기	saxophone는 ‘색소폰’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의 경우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IPA(국제음성기호)에 대응하는 영어의 자모를 찾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경북대 (송현주)
13	어문 규정	supermarket의 표기	‘슈퍼마켓(supermarket)’은 ‘식료품, 일용 잡화, 의약품 따위의 가정용품을 갖추어 놓고 대량·염가·현금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큰 소매점’입니다. 발음기호는 미국식 표현인 [sú : pərma : rkit]과 영국식 표현인 [sjú : pərma : rkit]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이 있는 경우, 영국식 발음	청주대

			에 따라 적도록 하여 ‘슈퍼마켓’으로 올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14	어문 규정	tape의표 기	영어의 ‘tape’는 외래어로 ‘테이프’라고 쓴다.	한 국 방 송
15	어문 규정	Wernick e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베르니케’로 적어야 합 니다.	충북대 (손대익)
16	어문 규정	working holiday	외래어 표기법 규정에 따라 ‘워킹 홀리데이’라고 적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문규정’의 ‘외래어 표 기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17	어문 규정	‘가디건’, ‘카디건’	우리가 흔히 ‘가디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cardigan[kardigən]’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 은 크림 전쟁 당시 이 옷을 즐겨 입은 영국의 카디건 백작(Earl of Cardigan)의 이름에서 유 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발음이 [k]이므로 ‘카디건’이 맞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8	어문 규정	‘가려야’ ‘갈려야’	우리 아버님은 가려야 갈 수 없는 고향을 바라 만 보고 계신다. 가려야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으려고는 ‘-으려’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청주대
19	어문 규정	‘가져 오 다’와 ‘갖 어오다’	‘가져오다’가 맞습니다. ‘가지다’의 준말은 ‘갖 다’입니다. ‘갖다’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습니다(예: 갖고, 갖니). ‘가지(다)’와 ‘-어’가 결합하면 ‘가져’가 됩니다.	상명대
20	어문 규정	‘각’, ‘이’ 의 띄어 쓰기	‘각자’는 낱말 하나로 보고 붙여 쓰고 ‘각 조합 원’의 ‘각’은 뒤의 ‘조합원’을 꾸미는 관형사로서 띄어 씁니다. ‘이것’도 하나의 낱말로 보아 붙여 쓰고 ‘이 사람’의 ‘이’는 관형사로서 띄어 씁니 다.	경북대 (송지혜)
21	어문 규정	‘간’의 띄 어쓰기	‘-간’은 ‘간(間)’으로서 붙여 쓸 때와 띄어 쓸 때가 있습니다. ‘간’이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접미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뜻할 때는 의존 명사 인 경우이므로 띄어 씁니다.	충북대 (손대익)
22	어문 규정	‘간’의 띄 어쓰기	‘한 달간’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이때의 ‘-간 (間)’은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접미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므로 ‘한 달간’과 같이 쓰 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같은 예로는 ‘이틀 간, 삼십 일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

			또한 ‘간’이 의존명사로서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나, ‘관계’,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23	어문 규정	‘갈가리’, ‘갈갈이’	‘가리가리’는 부사로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을 말합니다. 이 때 ‘가리가리’는 준말로 ‘갈가리’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옷을 여러 가닥으로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경우 ‘옷을 갈가리 찢어버렸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갈갈이’는 ‘가을갈이’의 준말, 또는 ‘갈고리’의 옛 말이기도 합니다.	정상대 (이유미)
24	어문 규정	‘갈게’ ‘갈께’	‘집에 갈게’가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을 보면, 어미 ‘-(으)르걸, -(으)르게, -(으)르세, -(으)르세라, -(으)르수록, -(으)르시, -(으)르지, -(으)르지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진대, -(으)르진저, -올시다’ 등은 예사소리로 적되,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르까, -(으)르꼬, -(스)브니까 -(으)리까, -(으)르쏘냐’ 등은 된소리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ㄴ, ㄹ, ㄹ,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도록 한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면, ‘-(으)르게, -(으)르걸, -(으)르쎄’ 등으로 적어야 옳은 듯도 보입니다. 그러나 비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으)르’과 어울려 쓰이는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으)르걸, -(으)르지’의 경우는 ‘-(으)ㄴ걸, -는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미들의 표기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예사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스)브니까, -(으)리까’와 같이 받침 ‘ㄹ’ 뒤가 아닌 환경에서도 항상 ‘까’라는 된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25	어문 규정	‘갈는지’, ‘갈런지’	‘갈는지’가 맞는 말입니다. ‘갈는지’의 발음이 ‘갈른지’로 나는데 ‘갈른지’보다는 ‘갈런지’로 발음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에 ‘-르는	정상대 (이유미)

			지'가 붙으면 ① '그 의문의 답을 몰라도', '그 의문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따위의 의미나 ②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냅니다. 가다 - 가 + = 갈는지 주다 - 주 + = 줄는지 오다 - 오 + = 올는지 비가 올는지 습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손님이 올는지 까치가 아침부터 울고 있다. 네가 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과연 올는지. 그가 훌륭한 교사일는지. 자네도 같이 떠날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것지를 누가 알겠니?	
26	어문 규정	‘같이’의 띄어쓰기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갈까? 예서의 '같이'는 부사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합니다.	청주대
27	어문 규정	‘개 피’와 ‘개비’	가늘고 짙막하게 조갯 토막을 세는 단위는 ‘개 피’가 아니라 ‘개비’라고 한다. 예) 성냥개비, 장작개비	한 국 방 송
28	어문 규정	‘거 두 뵈 다’	‘거두-’는 ‘거두고, 거두니, 거둬(거두어)’로 활용하므로 ‘거두웠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간 말음 ‘우’ 때문에 ‘w’가 덧붙여 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충북대 (김민옥)
29	어문 규정	‘거시기’	'거시기'는 표준어입니다. [Ⅰ][대명사]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 저기 안방에 거시기 좀 있어요? => 저 혼자서 한 게 아니고요, 거시기하고 같이 한 일입니다만. [Ⅱ][감탄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저, 거시기, 죄송합니다만, 제 부탁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경상대 (이유미)
30	어문 규정	‘걸’의 띄 어쓰기	‘그는 벌써 갔는걸’이 맞습니다. ‘갔는걸’의 ‘-ㄴ 걸’은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뜻하는 어미로 앞에 오는 어간 또는 서술격 조사와 붙여 써야 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 학교 학생인 걸 몰랐어.”라고 할 때의 ‘걸’은 ‘것을’이 준 말이므로 ‘학생인 걸’과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31	어문 규정	‘고(故)’ 의 띄어 쓰기	‘고(故)’를 쓴 다음에 띄우고 이름을 쓰셔야 합니다. ‘고’가 관형사이기 때문입니다.	경북대 (송지혜)
32	어문 규정	‘ 고 마 위 요’ ‘ 고 마 와 요’	‘고마워요’가 맞습니다. ‘고맙다’는 ‘ㅁ’불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ㅁ’불규칙은 어간의 받침이 ‘ㅁ’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ㄱ’나 ‘ㄷ’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때 ‘돕다’, ‘춥다’와 같이 어간이 1음절인 경우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어간이 양성모음이면 ‘ㅏ’, 음성모음이면 ‘ㅓ’로 적습니다. 그러나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모음조화에 상관 없이 언제나 ‘ㅓ’로 적습니다. 그래서 ‘고맙다’의 경우에는 ‘고마워요’가 맞습니다. (한글맞춤법 제18항)	충북대 (장충덕)
33	어문 규정	‘ 구 레 나 룻’의 표 기와 발 음	한글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의 세부 규정에 따라 뒷말의 첫소리 ‘ㄴ, ㄹ’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머리말, 구레나룻, 인사말’ 등은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준 발음이 각각 [머리말], [구레나룻], [인사말] 등으로 처리하여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예외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
34	어문 규정	‘국기게 양, 게시판, 휴게실’ 의 ‘게’	한글맞춤법 제3장 제4절 제8항에 따라 모음 ‘ㅐ’는 ‘ㅑ’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ㅐ’로 적을 수 있고, ‘게송(偈頌), 게시판(揭示板), 휴게실(休憩室)’ 등의 ‘게’는 본음대로 적어야 합니다. ‘게양(揭揚)’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명대
35	어문 규정	‘그밖에’ ‘그 밖에’	‘그밖에’로 붙여야 합니다. ‘해결할 사람은 그밖에 없다’의 ‘그밖에’는 지시 대명사 ‘그’에, 조사 ‘밖에’가 결합된 구성입니다. 이때의 ‘밖’은 ‘안’과 상대되는 ‘밖’의 의미가 아니라, ‘밖에’ 전체가 체언 다음에 쓰여 ‘오직 ~ 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사입니다. 그러므로 체언에 붙여 써야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36	어문 규정	‘기 에’와 ‘길래’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다”의 ‘-길래’는 ‘-기에’의 잘못입니다. ‘-기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또는 까닭을 물을 때 쓰는 연결어미입니다.	상명대 (양영하)
37	어문 규정	‘기와집’, ‘기왓집’	‘기와집’이 맞습니다. ‘기와집’의 현재 표준 발음은 [기와집]입니다. 흔히 [기와집]으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는 분이 많지만, 표준 발음에 따라 ‘기와집’으로 쓰셔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38	어문 규정	‘김 치 거 리’랑 ‘김 칫거리’	‘김칫거리’는 ‘김치’와 ‘거리’가 합하여진 단어로 [김치꺼리], [김친꺼리]와 같이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김칫거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글맞춤법 제30항에서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치’는 모음 ‘ㅣ’로 끝났으며 [김치꺼리]의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친 형태인 ‘김칫거리’로 적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39	어문 규정	‘ 꽃 을 ’ ‘꽃이’의 발음	‘밤낮으로’는 [밤나즈로], ‘꽃이’는 [꼬치]로 표현합니다. 이는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받침이 있는 경우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40	어문 규정	‘ 끼 어 들 기 ’ ‘ 끼 여 들 기 ’	‘끼어들기’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끼어들기’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뜻의 우리말 ‘끼어들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끼여들기’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표준발음법에서 ‘끼여들다, 끼여들기’와 같은 발음을 인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기에서는 ‘끼어들다, 끼어들기’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끼어들다’는 ‘끼이다’의 준말인 ‘끼다’에 ‘-어들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로 분석되기 때문에 ‘끼어들다, 끼어들기’로 써야 합니다.	청주대
41	어문 규정	‘ 끼 어 들 기 ’ ‘ 끼 여 들 기 ’	‘끼어들기’는 자주 ‘끼여들기’와 혼동하여 쓰는데, 이는 발음이 [끼어들기] 또는 [끼여들기]로 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끼어들기’는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라는 능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피동사가 쓰인 ‘끼여들기(끼이어들기)’는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충북대 (김경렬)
42	어문 규정	‘나더러’, ‘날더러’	‘더러’는 ‘-를 가리켜/보고’, ‘-에게’의 뜻으로 쓰이는 조사입니다. 한국어에는 ‘ㄹ더러’라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나더러’가 맞고, ‘날더러’는 틀립니다.	전주대 (박지학)
43	어문 규정	‘나무래’	"누가 남의 귀둥이를 나무래."라고 할 때의 '나무래'는 '나무라'를 잘못 쓴 것입니다. '나무라-'	충북대 (김민옥)

			에 '-아'가 결합하면 '나무라'가 됩니다. 이는 "나에게 무얼 바라(<-바라-+-아)'와 같은 구성입니다. '나무라-'와 '바라-'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나무래'와 '바래'가 되지 않고 '나무라'와 '바라'가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4	어문 규정	‘뉘시꾼’ ‘뉘싯꾼’	‘뉘시꾼’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한글맞춤법 제4절에서는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에 대해서 다양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사이시옷에 대해 제30항에서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등에 관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방법을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뉘시꾼’은 명사 ‘뉘시’와 주로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접미사 ‘-꾼’이 합쳐져 형성된 파생어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뉘싯꾼’이 아닌 ‘뉘시꾼’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청주대
45	어문 규정	‘날으는’ ‘나는’	국어에는 어간의 끝소리인 ‘ㄹ’이 특정한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ㄹ’을 받침으로 가진 동사 ‘날다’의 경우 ‘날다, 날고, 날지, 날면’에서와 같이 ‘-다, -고, -지, -면’으로 된 어미 앞에서는 ‘ㄹ’이 유지되는 데 반하여, ‘나니, 나느냐, 나는, 납니다, 나오, 나시오’와 같이 ‘-ㄴ, -ㅁ, -오, -시-’로 된 어미 앞에서는 ‘ㄹ’이 탈락하게 됩니다. 어간의 끝소리가 ‘ㄹ’인 다른 동사 ‘놀다’나 ‘줄다’의 경우를 보아도 ‘놀이터에서 노는(*놀으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조는(*줄으는) 학생’과 같이 ‘ㄹ’이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고쳐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충북대 (장충덕)
46	어문 규정	‘날으는’	‘날다’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연결될 때는 ‘나는, 나니’와 같이 활용된다. (예) 나는 O, 날으는 X 나니 O, 날으니 X	한 국 방 송
47	어문 규정	‘내 노 라 하는’	‘내노라’는 ‘내로라’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내로라’는 대명사 ‘나’에 서술격조사 ‘-이’, 주어가 화자와 일치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선어말어미 ‘-오-’와 평서형 종결어미 ‘-다’가 차례로 결합된 형식입니다. 이는 다음처럼 요약될	청주대

			수 있습니다. [내로라: 나+-이+-오-+-다 ⇒ 나+-이+-로-+-라 ⇒ 내로라] 위에서 ‘-로라’의 성격이 ‘-오라’와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로라’의 ‘-로-’는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라’가 ‘-오라’와 같다면 ‘-로라’는 ‘-노라’와도 같은 부류의 어미가 됩니다. 국어에서 ‘-느-’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날 뿐, 형용사나 계사의 어간 뒤에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느-’에 ‘-오라’가 결합되어 형성된 ‘-노라(-느-+-오라)’는 동사 어간 뒤에만 나타나고, 형용사나 계사 ‘이다’ 뒤에는 각각 ‘-오라’, ‘-로라’가 나타납니다.	
48	어문 규정	‘내 노라 하는’	자기를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는 ‘내노라하는’이 아니라 ‘내로라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다. 이것은 ‘바로 나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뜻으로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 국 방 송
49	어문 규정	‘넋 과’의 발음	‘넋과’는 ‘넉파’로 발음합니다. 어문규정 제10항을 보면 ‘접받침 ‘ㄴ’, ‘ㄷ’, ‘ㄹ’, ‘ㄷ’, ‘ㄹ’,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침 ‘ㄴ’은 ‘ㄱ’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어문규정 제23항에는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ㄹ, 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ㄹ, ㅁ, ㅌ’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넋과’는 [넉파]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50	어문 규정	‘넋 따 랑 다’와 ‘넋 다 랑 다’	‘넋(다)’의 발음은 [넋(따)]입니다. ‘넋+다랑(다)’의 경우, ‘넋-’의 접받침에서 앞의 받침 ‘ㄷ’이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넋따랑다’로 적습니다.	상명대 (양영하)
51	어문 규정	‘넋죽’ ‘넉죽’	한글맞춤법 제21항 ‘다만 2’에서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죽’은 어원이 불분명한 ‘넉죽’에는 ‘무엇을 받아먹거나 말대답할 때 입을 닦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주대
52	어문	‘넋 죽 하	넉죽하다는 [넉쭈카다]로 발음합니다. 표준 발	청주대

	규정	다'의 발음	음법 제10항에서 곁받침 'ㄸ, ㅌ, ㄹ, ㄴ,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에서 '넙-'이 [넙]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넙다'의 경우에는 [ㄱ]로 발음해야 하나,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넙]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넙죽하다'는 [넙쭈카다]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한 [ㄱ]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아예 [넙따랏다], '넙쩍하다' 등과 같이 표기하도록 한글맞춤법 제21항에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3	어문 규정	'네가'와 '니가'	인칭대명사 '너'에 조사 '가'가 붙으면 '네가'로 모습이 바뀌며,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니가'로 쓰나 이는 표준말이 아닙니다.	상명대 (서은아)
54	어문 규정	'년'	'수출 200억불/년 달성했다.'에서 '년'을 '연, 년' 중 어느 것을 쓰나. '年度'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년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읽을 때는 '연간 200억불'이라 읽고 쓸 때는 '200억불/년'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55	어문 규정	'놀라다'와 '놀래주다'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솔뚜정 보고 놀란다'는 틀린 말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솔뚜정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솔뚜정 보고 놀란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놀라다'를 대신하여 '놀라다'의 사동형인 '놀래다'를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원칙적으로 문장의 주어는 '놀랄' 수는 있어도 '놀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장의 주어는 다른 사람을 '놀래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상명대
56	어문 규정	'누렁네' '누러네'	'누러네'는 '누렁-'에 '-네'가 결합한 말로 '누러네'로 활용하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ㅎ'받침이 있는 형용사 중에서 '좋다'만 '-네'와 결합할 때 ' 좋네'가 됩니다. 이에 따라 '누렁네'가 아닌 '누러네'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57	어문 규정	'늑으막'과 '늑그막'	'늑다'에서 온 말이니까 어원을 밝혀서 적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으막'이 무엇일까 분명하지가 않네요. 이 경우 '늑그막'이 맞는	상명대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늘그막에 인생을 펴야겠네요.	
58	어문 규정	‘늑장’과 ‘늑장’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늑장’ 또는 ‘늑장’을 씁니다. 둘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준어입니다.	상명대
59	어문 규정	‘다대기’ 와 ‘다데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널리 쓰이는 형태로 ‘다대기’가 아닌 ‘다대기’를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일본어투 식생활 용어로 분류되어 1997년에 ‘다짐’ 또는 ‘다진 양념’으로 순화된 말만 써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짐’, ‘다진 양념’으로 쓰시기를 권합니다.	전주대 (박지학)
60	어문 규정	‘닭개장’ ‘닭계장’	‘육개장’의 경우, ‘육계장’은 틀린 말입니다. ‘육개장’이라는 음식은 개고기를 먹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장에 개고기 대신 소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계장’이 틀린 이유는, 원래 음식이 ‘계장’이 아닌 ‘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닭개장’은 쇠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어 육개장처럼 끓인 음식을 말합니다. ‘닭’과 ‘개장’이 결합한 말이지요. 그래서 ‘닭개장’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61	어문 규정	‘담가 먹다’, ‘담귀 먹다’	‘담그다’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어간의 모음 ‘ㅏ’가 떨어져 ‘담가’가 됩니다. 이 어간에 음성 모음 어미인 ‘-어’가 결합하는 것은 바른 어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거’는 물론 ‘담귀’도 표준어가 아닙니다. ‘담그다’의 활용형은 ‘담가’, ‘담그니’입니다.	전주대 (박지학) 상명대 (전영옥)
62	어문 규정	‘대’와 ‘테’	‘대’는 ‘다(고)해’의 준말입니다. ‘다고’해에서 ‘고’가 탈락하고 남은 ‘다’에 ‘해’에서 ‘ㅎ’이 탈락한 ‘ㅈ’가 합쳐진 말입니다. ‘테’는 ‘하계’할 자리에 쓰여 경험한 지난 일을 돌이켜 말할 때 쓰는 회상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청주대
63	어문 규정	‘대’와 ‘테’	종결어미 ‘-대’와 ‘-테’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는 ‘-다고해’의 준말로 남의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테’는 직접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 ① 그 영화가 참 재미 있대. ② 그 영화가 참 재미있테. ①은 다른 사람이 그 영화를 보고 전달한 내용이고, ②는 직접 영화를 보았는데 재미있더라 하는 의미이다.	충북대 (장충덕)
64	어문	‘대로’의	의존명사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청주대

	규정	띄어쓰기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족족,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같은 용언이 반복되어, ‘-을 대로’ 구성으로 쓰여) 어떤 상태가 매우 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을 수 있는 대로’의 구성으로 쓰여)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뜻이 있을 경우에는 띄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차별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것에 근거하여 달라짐이 없음’을 표현할 경우에는 ‘약속한대로’로 붙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65	어문 규정	‘댓가’와 ‘대가’	‘대가(代價)’를 ‘댓가’로 쓰는 일이 종종 있으나 한자어로 된 단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은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횃수(回數)’의 6개뿐이다.	한 국 방 송
66	어문 규정	‘댓가’와 ‘대가’	대가는 한자어로서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환경이 아닙니다.(예외 6개 ‘곳간, 찻간, 퇴간, 셋방, 숫자, 횃수’) 그러므로 ‘대까’로 소리 나더라도 ‘대가’로 써야 맞습니다.	충북대 (손대익)
67	어문 규정	‘더욱이’와 ‘더욱이’	‘더욱이’는 ‘그 위에 더욱 또’, ‘그러한데다가 더’의 뜻을 가진 부사어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68	어문 규정	‘던’과 ‘든’	‘-든’은 선택이나 조건을 나타내며,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조건> 비가 오거든 집에 있어라/ <지난 일> 꿈을 그리던 어린 시절)	상명대 (서은아)
69	어문 규정	‘던지’와 ‘든지’	‘-던지’, ‘-든지’는 자주 혼동되어 쓰이지만 서로 다른 뜻이 있는 표현으로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56항은 ‘-더라, -던’과 ‘-든지’를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던지’는 지난 일을 회상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인 ‘-더-’에 어미 ‘-ㄴ지’가 결합된 형태로 “어제는 얼마나 춥던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며 어미입니다. 예를 들	청주대

			면, “볼펜이든지 연필이든지 아무거나 써.”,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와 같이 조사나 어미로 쓰이며 ‘-든’으로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70	어문 규정	‘던지’ ‘든지’	‘먹던지’와 ‘먹든지’의 ‘-던지’와 ‘-든지’는 구별해 써야 할 다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든지]를 [던지] 잘못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발음 때문에 ‘-던지’와 ‘-든지’의 표기에서도 자주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든지’는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 또는 어미이고, ‘-던지’는 지난 일을 나타내는 ‘-더-’에 어미 ‘-지’가 결합된 어미로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입니다. 이처럼 ‘-든지’와 ‘-던지’는 형태, 의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구별하여 적어야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71	어문 규정	‘데’ ‘는데’	‘먹는데’와 ‘먹는 데’는 모두 맞습니다. 두 경우의 ‘(-는)데’는 품사와 쓰임이 다른 말입니다. ‘먹는데’의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고, ‘먹는 데’의 ‘데’는 ‘장소나 일을 뜻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72	어문 규정	‘돌 이’, ‘똥이’	‘돌이’가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은 ‘돌’로 표기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신 분과는 달리 [도리]라고 발음을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73	어문 규정	‘돼 -’와 ‘되-’	‘되다’는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다,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다, 일정한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 어떤 대상의 수량, 요금 따위가 얼마이거나 장소가 어디이다,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덕을 갖추다,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놓이다,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 ‘되다’와 ‘돼다’의 두 가지 형태의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되다’에 ‘-어, -어라, -었-’ 등이 결합되어 ‘되어, 되어라, 되었-’과 같이 활용한 것이 줄 경우에 ‘돼, 돼라, 됐-’의 ‘돼-’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돼-’는 한글 맞춤법 제	청주대

			35항 [붙임 2] “‘니’ 뒤에 ‘-어, -었-’이 아울러 ‘내, 내’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되어-’가 줄어진 대로 쓴 것입니다. 부사형 어미 ‘-어’나 ‘-어’가 선행하는 ‘-어서, -어야’ 같은 연결 어미 혹은 과거 표시의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되어, 되어서, 되어야, 되었다’를 ‘돼, 돼서, 돼야, 됐다’와 같이 적는 것도 모두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됐다’의 ‘돼’는 ‘되어’의 줄임 표현으로 혼동하지 않고 올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74	어문 규정	‘돼 - ’와 ‘되-’	'너는 나에게 책을 주게 되어 있어'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 때 '되어 있어'는 '돼 있어'로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75	어문 규정	‘돼 - ’와 ‘되-’	‘돼-’는 ‘되+ 어’가 줄어서 ‘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다’와 뒤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경우에만 ‘돼-’가 됩니다. 예를 들어 ‘몇 시에 시간 돼?’ 같은 경우는 ‘되+ 어’이므로 ‘돼-’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경북대 (서은영)
76	어문 규정	‘돼 - ’와 ‘되-’	'돼'는 '되어'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되'가 '어'와 결합할 때에만 '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선생님이 됐다.(O) 선생님께서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늘 말씀하시곤 하셨다. 선생님께서서는 훌륭한 사람이 돼라고 말씀하시곤 하셨다(x). 즉, '되었다', '되어', '되어서' 등은 '됐다', '돼', '돼서' 등으로 쓸 수 있지만 '되'가 다른 어미와 쓰일 때에는 '돼'로 줄지 않습니다.	전주대 (박지학)
77	어문 규정	‘돼라’ ‘되라’	‘돼’는 ‘되어’의 준말로서 ‘안 돼’와 같은 표현으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다’의 경우 문장 끝에 놓일 때 반드시 종결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되다’에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라’가 합쳐져 ‘되어라’와 같이 씁니다. 이때, ‘되-’ 뒤에 ‘-어’가 오는 경우만 ‘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라’의 경우 ‘돼라’로 줄여 쓰는 것이 가능하며 올바르게 쓴 표현입니다.	청주대
78	어문 규정	‘되므로’, ‘됨으로’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게 되므로’가 맞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으로써’가 함께 쓰일 때는 ‘됨으로써’가 됩니다.	경상대 (이유미)
79	어문	‘되지’와	그렇게 ‘되지’	동아대

	규정	‘돼지’		(김나리)
80	어문 규정	‘뒤꿈치’, ‘뒷굽치’	‘뒤꿈치’가 맞습니다. ‘-꿈치’는 ‘팔꿈치’에서와 같이 접미사적인 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뒤’와 ‘꿈치’ 사이에는 ‘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충북대 (손대익)
81	어문 규정	‘뒤 치 다 꺼리’ ‘뒤 치 닥 거리’	‘뒤치다꺼리’는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을 뜻합니다. ‘뒤치닥거리’는 비표준어입니다.	상명대 (양영하)
82	어문 규정	‘뒤풀이’, ‘뒷풀이’	거센소리나 된소리인 말 앞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옷통’과 같이 위아래의 대립이 없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쓰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83	어문 규정	‘뒷모습’ 의 사이 시옷	사이시옷은 순 우리말 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만 적는 것은 아닙니다.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뒷모습’은 [뒤모습]과 같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어 줍니다.	경북대 (송지혜)
84	어문 규정	‘드 림 .’ 마침표	<한글 맞춤법-문장 부호>에는 문의하신 경우와 관련된 온점의 쓰임새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을 따릅니다. ‘온점(.)’은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는 마침표에 해당하는데, 명사형으로 끝난 문장도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은 서술의 한 방식이며 문장의 마침이므로, ‘OOO 드림.’처럼 온점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주대 (박지학)
85	어문 규정	‘들르다’ ‘들리다’	‘친구 집에 들러서’가 맞습니다. ‘들러서’는 ‘들리다’의 어간 ‘들리-’에 ‘-어서’가 결합한 것이고, ‘들러서’는 ‘들르다’의 어간 ‘들르-’에 ‘-어서’가 결합한 것입니다. ‘친구 집에 방문하다’는 ‘들르다’의 활용형 ‘들러서’를 써야 맞습니다. ‘들리다’는 ‘병이 들리다’나 ‘소리가 들리다’, ‘가방이 들리다’의 경우에 쓰는 동사로, 어느 곳을 방문하든의 의미는 없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86	어문 규정	‘등’의 띄 어쓰기	‘등’은 열거의 뜻을 표시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앞 말과 ‘등’ 사이는 언제나 띄어 씁니다.	경북대 (송지혜)

87	어문 규정	‘등교길’, ‘등곳길’	등곳길	동아대 (임지아)
88	어문 규정	‘떡볶이’ 와 ‘떡볶 기’	‘-이’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예: 길이)로 사람 (예: 젓먹이)이나 사물(예: 옷걸이) 등의 뜻을 더합니다. ‘볶기’는 볶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입 니다.	상명대 (서은아)
89	어문 규정	‘뺨다’의 발 음 [떨 따/뺨따]	표준 발음법 제10항에서는 겹받침 ‘ㄲ’, ‘ㄴ’, ‘ㄷ’, ‘ㄹ’, ‘ㄺ’, ‘ㄻ’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 각 [ㄱ, ㄴ, ㄷ, ㄹ]으로 발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뺨다’는 [떨 : 따]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 현이며, 활용형은 ‘뺨어[떨 : 버]’, ‘뺨으니[떨 : 브니]’, ‘뺨고[떨 : 꼬]’, ‘뺨지[떨 : 찌]’가 올바 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90	어문 규정	‘똥금 없 다’와 ‘똥 금없다’	‘똥금없다’가 옳다. 오래된 사전에 이 낱말이 없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있다. 전라 충청 방언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소설 등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일반화된 것이다.	경북대 (백두현)
91	어문 규정	‘띠네’ ‘띠네’	[누네티네]는 ‘눈에 띠네’의 표준 발음으로 ‘띠 네’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띠네’는 ‘뜨이다’의 준말인 ‘띠다’에 ‘-네’가 합쳐져 형성된 단어입 니다. ‘눈에 띠네’는 ‘눈에 보이다’, “‘눈에’와 함 께 쓰여 남보다 훨씬 두드러지다”의 뜻이 있습 니다.	청주대
92	어문 규정	‘ㄹ 게’와 ‘ㄹ 게’	“내일 전화할게”에서 ‘전화할게’는 [전화할게] 로 발음하나 적을 때는 ‘전화할게’가 맞는 표기 입니다.	상명대 (서은아)
93	어문 규정	‘ㄹ까나’	‘오늘은 내가 공부할까나’는 ‘오늘은 내가 공부 할거나’의 잘못입니다. ‘을거나’는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어떤 의 사에 대하여 자문(自問)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에 쓰는 종결 어미입니다.	경상대 (이유미)
94	어문 규정	‘로봇’, ‘로보트’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짧은 모음 다음에 [p,t,k]가 나오는 경우는 이를 받침으로 적습니 다. ‘로봇’의 철자가 ‘robot’이므로 이때 t는 짧 은 모음 다음에 오는 것이므로 ‘로봇’이라고 해 야 합니다. ‘로켓’도 ‘로케트’가 아니고 ‘로켓’이 맞습니다.	경북대 (서은영)
95	어문 규정	‘로서’와 ‘로써’	‘로서’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 나는 체언 뒤에 붙어)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청주대

			동작이 일어나거나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써’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콩으로써 메주를 쑈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96	어문 규정	‘로서’와 ‘로써’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노인을 봉양하고, 복을 비는 데에 쓰인 것이 술로서’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술OO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노인을 봉양하고, 복을 빌었는데’라는 문맥이라면, ‘술’ 뒤에,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로써’를 붙여 ‘술로써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노인을 봉양하고, 복을 빌었는데’ 와 같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전주대 (박지학)
97	어문 규정	‘로서’와 ‘로써’	‘-로서’는 자격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으로서 그런 일을 하다니’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한편 ‘-로써’는 ‘~을 사용하여, 이용하여’의 의미로 ‘칼로써 무를 베다’와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98	어문 규정	‘로서’와 ‘로써’	‘-로서’는 자격격 조사로서 지위·신분·자격을 나타냅니다. ‘-로써’는 도구·재료·방편·이유 등의 의미를 가진 기구격 조사입니다.	상명대 (양영하)
99	어문 규정	‘로서’와 ‘로써’	‘로서’와 ‘로써’는 모두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쓰이는 격조사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형태로 실현되므로 구분이 어렵지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써’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 또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므로 의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로서 :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 =>그것은 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는 친구로서는 좋으나, 남편감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언니는 아버지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	경상대 (이유미)

			각했었다. 로써 : 1.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낼 때 =>콩으로써 메주를 쑤다./ =>쌀로써 떡을 만든다. 로써 : 2.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말로써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꿀로써 단맛을 낸다./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로써'는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올해로써 20년이 된다./ =>시험을 치는 것이 이로써 일곱 번째가 됩니다.												
100	어문 규정	‘마는’과 ‘만은’	‘마는’은 어말어미 ‘-다, -냐, -지’ 뒤에 붙어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101	어문 규정	‘마는’과 ‘만은’	‘그렇지마는’의 준말은 ‘그렇지만’으로 ‘사정은 딱하다. 그렇지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구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은 보조사 ‘만’이 아니라 어미 ‘-마는’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청주대											
102	어문 규정	‘막 되 먹다’와 ‘막돼 먹다’	‘막돼먹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막돼먹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습니다. ‘막돼먹다’는 ‘막되어+먹다’의 구성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103	어문 규정	‘만’ 띄어 쓰기	‘노력으로만 발전할 수 없다.’에서 ‘만’은 보조사이므로 체언에 붙여 써야 합니다. ‘만’은 여기서 ‘제한’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다른 것은 전부 배제하고 유독 그것을 선택함을 뜻합니다. 위의 뜻 외에도 그 수량을 최소로 제한할 때, 비교의 대상을 나타낼 때, 의미를 강조할 때 씁니다. (예) 천 원만 내세요./ 동생이 형만 하겠어?/ 아이는 말없이 울고만 있었다. 그러나 ‘만’은 의존 명사로서 사용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사흘 만에 돌아왔다. 1년 만에 떠나갔다. 참고로 헛갈리는 의존 명사 목록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table><tr><td></td><td>품사</td><td>결합형</td><td>뜻</td></tr><tr><td rowspan="2">들</td><td>접미사</td><td>체언 뒤</td><td>복수</td></tr><tr><td>의존 명사</td><td>체언 뒤</td><td>그런 따위</td></tr></table>		품사	결합형	뜻	들	접미사	체언 뒤	복수	의존 명사	체언 뒤	그런 따위	경북대 (송현주)
	품사	결합형	뜻												
들	접미사	체언 뒤	복수												
	의존 명사	체언 뒤	그런 따위												

			뿐	접미사	체언 뒤	한정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	따름	
			대로	조사에	체언 뒤	그와 같이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	그와 같이	
			만큼	조사	체언 뒤	그런 정도로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	그런 정도로, 실컷	
			만	조사	체언 뒤	한정, 비교	
				의존 명사	체언 뒤	경과한 시간	
			지	어미의 일 부	용언의 관형사형 뒤	막연한 의문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	경과한 시간	
			차 (次)	접미사	체언 뒤	~하려고	
				의존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	어떤 기회에 겹쳐	
			관	명사	체언 뒤	(합성어를 만들)	
				의존 명사	수 관형사 뒤	승부를 겨루는 수효	
104	어문 규정	‘만듯국’ 의 표기 와 발음	한자어 '만두'와 고유어 '국'의 합성어이면서 발음이 경음화된 [만두꺾]으로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씁니다. 만두 속에 넣는 '만두소'는 경음이 아닌 [만두소]가 맞는 발음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고, 만두를 싸는 '만두피'는 이미 표기에 격음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만두를 파는 식당을 '만두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도 경음이 아닌 [만두집]이 맞는 발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상명대
105	어문 규정	‘만듬’과 ‘만듦’	‘만듦’이 바른 표기				동아대 (이민정)
106	어문 규정	‘말다’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23항에 의하면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ㄴ, ㄹ), ㄷ(ㄷ, ㅌ, ㅊ, ㅌ), ㅂ(ㅂ, ㅍ,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ㄴ, ㄹ’은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만따]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먼저 대표음 법칙에 의하여 ‘ㄷ’이 [ㄷ]으로 발음되고 두 번째 음절의 첫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청주대
107	어문 규정	‘먹거리’ ‘먹을 거 리’	표준국어사전에서는 ‘먹거리’를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처리하여 ‘먹을거리’가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먹을거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온갖 것’을 의미합니다.				청주대
108	어문 규정	‘먹으려 고’ ‘먹을려’	‘-려고’와 ‘-르려고’는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어미 중 하나인데 ‘-려고’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고'	‘-려고’는 장차 그렇게 하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로 표준규정 제17항에서는 ‘-(으)려고’를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려고’를 인정할 경우 ‘가려느냐, 가려다가, 가려면’과 같이 ‘-려고 하’가 들어 있는 말들 또한 갈려느냐, 갈려다가 등과 써야 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으려고’로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109	어문 규정	‘먹 음 직 하다’ 먹음 직 하다	‘먹음직하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먹음직스럽다’와 교체가 가능하며 ‘먹음직스럽다’가 불가능하므로 접미사로 붙여 쓰면 됩니다. 참고로 ‘있음직하다’는 틀린 표기이고, ‘있음 직하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띄어 써야 합니다. ‘있음 직하다’의 직하다는 보조형용사이며, ‘먹음직하다’의 직하다는 접미사입니다. 따라서 ‘있음 직하다’의 ‘직하다’는 독립된 단어이며 ‘먹음직하다’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전자의 의미는 ‘할 것 같다, 할 만 하다, 할 수 있다’의 뜻을 나타내며 후자는 ‘~할 듯하다’인데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스럽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붙여서 씁니다. 있음직스럽다(?) -> 있음 직하다 봄직스럽다(?) -> 봄 직하다 먹음직스럽다(0) -> 먹음직하다 믿음직스럽다(0) -> 믿음직하다	청주대
110	어문 규정	‘메우다’ ‘메꾸다’	우리가 평소 방어진 줄 모르고 표준어 인양 쓰는 단어중 하나인 ‘메꾸다’는 ‘메우다’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메우다’은 ‘통 따위의 둥근 물체에 테를 끼우다’, ‘채, 어레미 따위의 바퀴에 찻불을 맞추어 씌우다’, ‘북, 장구 따위를 천이나 가죽을 씌워서 만들다’, ‘말이나 소의 목에 멍에를 얹어서 매다’, ‘활에 시위를 엮다’ 등으로 사용합니다.	청주대
111	어문 규정	‘며칠’과 ‘몇 일’	‘며칠’만이 맞춤법에 맞는 말이고 ‘몇일’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합니다.이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은 ‘그 달의 몇 째 되는 날’과 ‘몇 날(동안)’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의미를 구분하여 ‘몇 일’과 ‘며칠’로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입니다. 두 경우 모두 [며칠]로 소리 나므로 둘 다 ‘며칠’로 적어야 합니	충북대 (김민옥)

			다.	
112	어문 규정	‘며칠’과 ‘몇 일’	‘며칠’로 적습니다. ‘며칠’이 ‘몇+ 일’의 구성이라면 ‘일(日)’이 명사이므로 [며덜]로 소리 나야 합니다. 하지만 [며덜]이 아닌 [며칠]로 소리가 나며, 이것은 ‘며칠’이 관형사 ‘몇’에 명사 ‘일’이 결합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13	어문 규정	‘몇 월 달’의 띄어쓰기	‘몇 월 달이냐’는 관형사 ‘몇’과 명사 ‘월’, 의존 명사 ‘달’이 이어진 구 구성으로 ‘ <u>몇 월 달</u> ’로 띄어 써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14	어문 규정	‘모티브’와 ‘모티프’	‘모티브’와 ‘모티프’는 원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 되는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동기’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115	어문 규정	‘되’	<<표준국어대사전>>에 ‘되’는 ‘산’의 방언으로 올라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116	어문 규정	‘무’, ‘무우’	‘무우’는 ‘무’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표준어규정 제14항은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또는 사전에서만 밝히고 있을 뿐 현실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된 본말을 표준어에서 제거하고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말을 버리고 준말인 ‘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주대
117	어문 규정	‘미류나무’ ‘미루나무’	미루나무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규정에서는 일부 단어에 대하여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류나무’를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미루나무’를 표준어로 삼고 있습니다.	청주대
118	어문 규정	‘바라요’ ‘바래요’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는 뜻으로 명사형은 ‘바램’입니다. 바라다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는 뜻으로 명사형은 ‘바람’입니다. 방송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 바래’, ‘~ 바래요’로 쓰다 보니 어법에 맞는 말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표현의 예는 "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요." 혹은 "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입니다.	청주대
119	어문 규정	‘바람’ ‘바램’	"나의 바램은 평화 통일이다."라고 할 때의 ‘바램[희망하다]’은 ‘바람’으로 써야 옳습니다. ‘바	충북대 (김경렬)

			라다'에서 온 말이므로 '바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라다'에 명사를 만드는 '-(으)ㄴ'이 붙어서 '자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라다'에 명사를 만드는 '-(으)ㄴ'이 붙으면 '바람'이 됩니다. '자라다'와 '-았-'이 결합하면 '자랐다'가 되는 것처럼 '바라다'에 '-았-'이 결합하면 '바랐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바랬다'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120	어문 규정	‘바 람’, ‘바램’	'바람'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램'은 '바람'을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경상대 (이유미)
121	어문 규정	‘바 래’, ‘바라’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어떤 것을 향하여 보다’의 뜻이 있고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벌에 쪼거나 약물을 써서 빗장을 희게 하다’의 뜻으로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청주대
122	어문 규정	‘바 래’, ‘바라’	'하길 바라?'라고 써야 합니다. '무엇을 희망하다.'라는 뜻으로는 '바래다'가 아니라 '바라다'를 씁니다. 그러므로 '바래, 바래고, 바래니, 바래며, 바래면서, 바랬고' 등은 '바라, 바라고, 바라니, 바라면서, 바랐고' 등으로 쓰는 게 옳습니다. 이들 중 다른 형태는 수긍하면서도 '바래'의 경우만은 가능하지 않을까 미련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자라?"에서 '자라'는 '자라다'의 '자라-'에 의문을 나타내는 '-아'가 붙은 것입니다. 즉 "자라+아"의 형태인데 이것은 '자래'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라+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바래'로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의 경우는 '하+아'가 '해'로 줄어들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는 '여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으로서 '아'가 '여'로 바뀌어 '하여'가 된 다음 '해'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칙 용언인 '바라다', '자라다'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123	어문 규정	‘밖에’의 띄어쓰기	조사 ‘밖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들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처럼 ‘수밖에’는 붙여 씁니다.	충북대 (김민옥)
124	어문 규정	‘너밖에’의 띄어쓰기	“너밖에”를 붙여 쓰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때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경북대 (최준)

			뜻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앞의 명사에 붙여 써야 합니다.	
125	어문 규정	‘밖에’의 띄어쓰기	‘한 명밖에’, ‘이것밖에’ 등은 앞의 단어와 뒤의 단어를 붙여 쓰고, ‘이 밖에는’의 경우 ‘이’와 ‘밖에는’을 띄어서 씁니다.	경상대 (이유미)
126	어문 규정	‘밖에’의 띄어쓰기	‘밖에’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과 붙여 써야 합니다. 한글맞춤법 제41항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 할 수밖에 없다’ 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27	어문 규정	‘받다’와 띄어쓰기	‘지배’는 하나의 낱말이고 ‘받다’도 하나의 낱말이므로 그 사이에 띄어 쓰셔야 합니다. ‘지배’는 서술어로 ‘받다’가 자주 결합하지만 ‘지배받다’로 붙여 쓸 만큼 하나의 낱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28	어문 규정	‘받다’와 띄어쓰기	‘받다’는 동사로 ‘...에서/에게서, ...을’ 또는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하여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위의 ‘축하 받다’는 ‘축하를 받다’의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조사가 생략된 대부분의 동사는 ‘축하 받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29	어문 규정	‘받다’와 띄어쓰기	‘시달림받다, 폐죽음당하다’의 ‘-받다, -당하다’는 ‘피동’의 의미를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선행어와 붙여 써야 합니다. ‘몇 월 달이냐’는 관형사 ‘몇’과 명사 ‘월’, 의존명사 ‘달’이 이어진 구 구성으로 ‘몇 월 달’로 띄어 써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30	어문 규정	‘받다’와 띄어쓰기	‘간섭’은 하나의 낱말이고 ‘당하다’도 하나의 낱말이므로 그 사이에 띄어 쓰셔야 합니다. ‘간섭’은 서술어로 ‘받다’나 ‘당하다’가 자주 결합하지만 ‘간섭당하다’로 붙여 쓸 만큼 하나의 낱말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31	어문 규정	‘발행 연 도’	‘발행 연도’가 맞습니다. ‘발행 연도’, ‘회계 연도’, ‘가입 연월일’은 말의 첫머리이므로 두음법	충북대 (장충덕)

		‘발행 년도’	칙을 적용하여 ‘연’으로 적어야 합니다.	
132	어문 규정	‘뵈다’와 ‘뵈죽하다’의 발음	‘뵈다’와 ‘뵈죽하다’는 [뵈따]와 [뵈쭈카다]가 표준 발음이므로, [발따]나 [넌쭈카다]로 읽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0항에서 겹받침 ‘ㄸ, ㅌ, ㄹ, ㄴ,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뵈다’의 ‘뵈-’은 ‘뵈아[발마], 뵈으니[발브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 받침의 ‘ㄷ’도 발음될 수 있으나, ‘뵈다’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뵈따] 등으로 받침의 ‘ㅂ’만을 발음해야 합니다. ‘뵈다’의 ‘뵈-’은 일반적인 활용일 경우는 표준 발음 제10항에 준하지만, (3)에서 제시한 ‘뵈죽하다, 뵈둥글다’의 예에서는 [넌죽하다], [넌둥글다]로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뵈다, 뵈쏘…’를 [발다], [발쏘] 등으로 발음하거나, ‘뵈죽하다, 뵈둥글다’를 [넌쭈카다], [넌똥글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133	어문 규정	‘뵈 나’, ‘뵈나’	‘보다’ 어간에 어미 ‘-었/았-’이 붙어서 ‘보았다’로 쓰이며, 이것을 줄여서 ‘뵈다’로 쓸 수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134	어문 규정	‘별’의 띄어쓰기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접사 ‘-별(別)’은 그 앞에 오는 말과 붙여서 쓴다. 예) 능력별, 성별, 직업별, 국가별	한 국 방 송
135	어문 규정	‘보여 주다’, ‘보여주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여 주다’, ‘보여주다’ 모두 쓸 수 있습니다만,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서은영)
136	어문 규정	‘보여 지다, 쓰여 지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로 바꿔 써야 합니다. 국어에서 피동적인 표현은 타동사 어간에 ‘이, 히, 리, 기’ 등의 접미사를 붙이는 경우와 ‘-어/아 지다’를 붙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쓰이다, 잡히다, 불리다’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예이고, ‘만들어지다, 주어지다, 믿어지다’ 등이 후자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피동 표현을 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런데 요즘 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어 지다’에 의한 피동의 표현을 중복하여 ‘쓰여지다,	충북대 (장충덕)

			불리워지다, 보여지다, 바뀌어지다’ 등으로 표현 하기도 하는데, 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쓰여지다, 불리워지다, 보여지다, 바뀌어지다’는 ‘쓰이다, 불리다, 보이다, 바뀌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137	어문 규정	‘복 승 아 빠’ ‘복사빠’	‘복사빠’가 맞는 말입니다. 발목 부근에 안팎으 로 동글게 나온 뼈를 ‘복승아빠’라고 하기도 하 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복사빠’만 맞는 말입니 다.	충북대 (김민옥)
138	어문 규정	‘배도’와 ‘뵈도’	‘이래 배도’는 ‘이리하여’의 준말인 ‘이래’와 ‘보 아도’의 준말인 ‘배도’가 합하여진 표현입니다. 부사는 뒤의 말과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래 배도’라고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뵈다’는 ‘보이다’의 준말이며, 모음 ‘ㅏ, ㅓ’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엇-’이 어울려 ‘ 나/거, 왔/왔’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어야 하 기 때문에 ‘이래 뵈도’가 아닌 ‘이래 배도’가 맞 습니다.	청주대
139	어문 규정	‘배요’와 ‘뵈요’	“‘외’ 뒤에 ‘-어, -엇-’이 어울려 ‘왜, 왔’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라는 한글맞춤법 제 4장 제5절 제35항 [붙임2]의 규정에 따라 ‘뵈 어’의 경우 ‘뵈’로도 적을 수 있습니다. ‘뵈어’가 줄어들면 ‘뵈’가 됩니다. 따라서 ‘뵈어요’를 줄여 서 ‘배요’로 쓸 수 있습니다. ‘뵈다’의 어간 ‘뵈 -’에 보조사 ‘요’가 바로 붙는 것은 문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명대
140	어문 규정	‘배요’와 ‘뵈요’	‘뵈다’는 ‘웃어른을 대하여 보다’라는 의미로 쓰 이는 동사인데 보통 다음에 보자는 인사말로 자 주 쓰인다. 그런데 이 ‘뵈다’가 ‘-어요’와 만나 게 되면 ‘배요’라고 쓰는 게 맞다. ‘뵈+어요’에 서 ‘외’와 ‘어’가 만나게 되면 ‘왜’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되다’가 ‘어요’와 만나면 ‘돼 요’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웃어 른을 대하여 보다는 의미로 ‘뵈다’와 ‘뵈다’가 둘 다 쓰인다. 그런데 이 둘은 뒤에 어떤 말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구별해서 써야 한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만 쓰고, 모음 어미나 매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뵈다’를 쓴다. ◎ 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 그분을 {뵈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사장님 {뵈} 낮이 없습니 다./ 장군을 {뵈러} 온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	경북대 (홍미주)

			까? → ‘-어서/아서, (으)면, (으)르, (으)러’와 결합할 때. 모음이나 (으)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 뵙다: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님을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뵙는} 게 무서웠다. →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141	어문 규정	‘부스러기’의 표기	깎쭈이'와 '꿀꿀이'는 '깎쭈거리다', '꿀꿀거리다'와 같이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이며,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붙을 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한글맞춤법 23항). 그런데 '부스러기'는 소리를 나타내는 '부스럭거리다'에서 온 말이 아니라 '부스러지다'와 관련된 말이라 일단은 한글맞춤법 23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 '부스러지다'에서 온 말임에 틀림없지만 '부스러지다'에서 '부스럭 + 이'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분명한 설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스럭이'가 아니라 '부스러기'로 적습니다.	상명대
142	어문 규정	‘분기’ ‘불기’	강물이 분기/불기 전에 건너라 ‘분기’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분다’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분-’이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는 ‘불-’로 형태가 바뀌는 ‘ㄷ’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청주대
143	어문 규정	‘불편해하다’	‘-어하다’는 단어 구성에 곧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행복해하다, 불안해하다’처럼 붙여 쓰지만 구 구성에 연결될 때는 띄어 씁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책을 읽고 싶어 했다.’처럼 구 구성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144	어문 규정	‘불박히다’, ‘불박이다’	‘불박이다’의 기본형은 ‘불박다’이고 이의 피동형인 ‘불박이다’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불박혀’가 아니라 ‘불박여’가 맞는 표현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145	어문 규정	‘비계덩어리’ ‘비갯덩어리’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받치어 적는데, ‘비계+덩어리’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비계뎡어리/비갯뎡어리]와 같이 표현되므로 비갯덩어리’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46	어문 규정	‘빌려’와 ‘빌어’	이 자리를 ‘빌려’	동아대 (김백희)

147	어문 규정	‘뽀’의 띄어쓰기	‘그뽀만 아니라’가 정답입니다. 이때의 ‘뽀’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돌뽀 이다/ 가진 것이 이것뽀 이냐/ 친구에게뽀만 아니라 후배에게도 인기가 있다.’ 등과 같이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의존명사 ‘뽀’은 용언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들었을 뽀만 아니라 직접 보았다/ 말해 뽀을 뽀이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청주대
148	어문 규정	‘사 랑 을 할 거야’ ‘사 랑 을 할 거야’	'사랑을 할 거야'로 띄어 써야 합니다. '사랑을 할 거야'의 '-ㄴ 거야'를 하나의 어미로 생각하여 '사랑을 할거야'로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할 거야'의 '-ㄴ 거야'는 하나의 어미가 아니고, 관형사형 어미 '-ㄴ' 다음에 의존 명사가 쓰인 '것이야'의 구어적인 표현 '거야'가 이어진 구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할거야'로 붙여 쓸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거야'로 띄어 써야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ㄴ, -ㄴ) 다음에 '거(것이)'가 이어진 '자는 거니, 예뽀 거야, 아름다운 거니까' 등도 모두 띄어 써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49	어문 규정	‘샅’의 발음	표준 발음으로 ‘품샅이’는 ‘품삭시’라고 하는 것이 맞다. 방언에서 받침 ㅅ을 발음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옳지 않다.	경북대 (백두현)
150	어문 규정	‘살사리’ ‘살살이’	‘간사스럽게 알랑거리는 사람’을 표현할 경우에는 ‘살사리’가 아닌 명사 ‘살살이’로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51	어문 규정	‘삼 백 여 명’, ‘삼 백여개’	‘삼백여 명’과 ‘삼백여 개’로 쓰시면 됩니다. ‘여’는 ‘삼백’이라는 수사에 붙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뒤의 ‘명’과 ‘개’는 단위를 세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경북대 (송지혜)
152	어문 규정	‘서슴지’ 와 ‘서슴치’	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제40항의 규정에 따라 ‘하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용언의 경우, 줄임말을 만들 때 ‘-하다’ 앞의 음절 받침이 안울림소리일 때에는 ‘하’ 전체가 줄지만, 울림소리일 때에는 ‘ㅏ’만 줄고 뒤에 오는 음절이 거센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활발치, 심심치, 상관치’ 등은 울림소리 받침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활발치, 심심치, ‘상관치’ 등으로 씁니다. 한편 ‘지’와 ‘치’를 구분하는 것은 ‘-하다’로 끝나는 용언	?

			의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므로 '서슴지'처럼 '-하다'로 끝나는 것과 무관한 용언은 모두 '-지'로 씁니다.	
153	어문 규정	‘서슴지’ 와 ‘서슴 치’	‘말이나 행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며 망설이다.’의 뜻이 있는 ‘서슴’은 ‘서슴거리다’, ‘서슴대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서슴치 않다’는 ‘서슴하지 않다’가 줄어든 표현으로 ‘서슴지 않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54	어문 규정	‘선짓국’ 의 표기	한글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에 따라 뒷말에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짓국’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상명대
155	어문 규정	‘설레는’, ‘설 레 이 는’	‘설레다’와 ‘설레이다’ 중 ‘설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설레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므로 피동의 표현인 ‘설레이다’는 바른 표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충북대 (손대익)
156	어문 규정	‘섭섭지’ 와 ‘섭섭 치’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어간의 끝 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하지/거북지’와 같이 ‘하’ 앞에 [ㄱ], [ㄷ], [ㅂ] 소리로 끝나는 받침이 있을 때는 ‘하’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 외의 받침이 오거나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만 떨어지고 ‘ㅎ’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섭섭하지’는 ‘하’ 앞의 소리가 [ㅂ]이므로 ‘섭섭지’로 적어야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157	어문 규정	‘세 타’, ‘석 타’	‘석/녁(서/너)’등의 서수는 종래의 ‘~돈, ~말, ~발, ~푼, ~냥, ~되, ~섬, ~자’등에 잘 결합하는 단어로 타수를 셀 때는 한 타, 두 타, 세 타 등으로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상대 (김지홍)
158	어문 규정	‘셋 방’, ‘세방’	‘셋방’이 맞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6개 단어만은 시옷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경북대 (송지혜)
159	어문 규정	‘쇳어’ ‘췌어’	‘쇠다’는 동사로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환갑을 쇠다’,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쇠어서 고맙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60	어문 규정	‘수 ’ 와 ‘숫’	표준어 규정 제7항은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평’, ‘수나	청주대

			사', '수눔',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는 표준어입니다. 하지만 [다만 1]에서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하여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탐', '수탕나귀', '수-톨찌귀', '수돼지', '수평아리'와 같이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한하여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2]에서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숫-양', '숫-염소', '숫-쥐'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1]과 [다만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61	어문 규정	'순'의 띄어쓰기	'순'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차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연공서열 순'으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62	어문 규정	'술가락' '숫가락'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반질고리, 사흔날, 삼질날, 선달’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느질, 사흘, 삼질’이 ‘고리, 날, 달’과 결합하면서 그 받침을 ‘ㄷ’으로 적은 것입니다. ‘술가락’의 경우 ‘밥 한 술’의 ‘술’과 ‘가락’이 결합하면서 ‘술+가락’의 ‘술-’이 [술]으로 발음나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술-’로 적은 것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163	어문 규정	'쉽냐', '쉬우냐'	원래는 형용사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으니, 으나'가 붙고,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 -냐'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미 '-니'가 받침이 있는 형용사 어간에 붙은 '쉽니, 아름답니, 높니' 등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이를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쉽니'와 '쉬우냐'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니'가 '쉽냐'와 같이 교체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냐'는 '니'만큼 쓰임이 많다고 보기 어려워 표준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164	어문 규정	'습니다'	현재는 '-습니다'가 맞는 표기입니다.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에서, 발음이 비슷한 형태 여럿이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함께 쓰일 때에는, 그 중 널리 쓰이는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경북대 (송지혜)

			따라 ‘-읍니다’는 버리고 ‘-습니다’만을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165	어문 규정	‘습니다’, ‘-스니’	‘-습니까’는 ‘-습니까’로 통일되었지만 ‘-으니, -으나, -으므로’ 등은 ‘-스니, -스나, -스므로’ 등으로 소리나더라도 ‘-으니, -으나, -으므로’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66	어문 규정	‘시’의 띄어쓰기	‘납품 시로’와 같이 띄어 쓰시면 됩니다. ‘시’는 명사이므로 앞에 띄어쓰기를 하시고, ‘로’는 조사이므로 앞 말과 붙여 쓰셔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67	어문 규정	‘식 겁 하다’에 대하여	‘식겁하다’라는 말이 사투리가 아닌지 질문하였는데, 여기서 ‘식겁하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식 겁하다’가 맞습니다. ‘식겁[食怯]’은 ‘뜻밖에 놀라 겁을 먹음’이라는 뜻의 단어로 표준어입니다.	상명대
168	어문 규정	‘식 겁 하다’에 대하여	‘식겁하다’라는 말이 사투리가 아닌지 질문하였는데, 여기서 ‘식겁하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식 겁하다’가 맞습니다. ‘식겁[食怯]’은 ‘뜻밖에 놀라 겁을 먹음’이라는 뜻의 단어로 표준어입니다.	상명대
169	어문 규정	‘실어드릴게요’의 표기	‘힘을 실어드릴게요’에 대한 바른 표기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힘을 실어드릴게요’입니다. 이 문장에 쓰인 어미는 ‘-르께요’가 아니라 ‘-르께요’로 써야 합니다. 발음은 [께요]지만요. ‘실어’의 기본형은 ‘신다’이며 이 발음은 [싰따]입니다. ‘싰따’는 ‘ㄷ’ 불규칙동사이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실어, 실으니, 실으면’이 됩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싰고, 싰지, 싰거나’로 쓰입니다.	상명대
170	어문 규정	‘실어드릴게요’의 표기	‘힘을 실어드릴게요’에 대한 바른 표기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힘을 실어드릴게요’입니다. 이 문장에 쓰인 어미는 ‘-르께요’가 아니라 ‘-르께요’로 써야 합니다. 발음은 [께요]지만요. ‘실어’의 기본형은 ‘신다’이며 이 발음은 [싰따]입니다. ‘싰따’는 ‘ㄷ’ 불규칙동사이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실어, 실으니, 실으면’이 됩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싰고, 싰지, 싰거나’로 쓰입니다.	상명대
171	어문 규정	‘쌍점’과 ‘쌍반점’	흔히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은 ‘쌍반점’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국어에서	상명대

			는 이를 ‘줄표’나 ‘쌍점’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용 규정은 없습니다. 콜론이라고 하는 ‘:’은 ‘쌍점’이라고 하며,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사용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쓴다. 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 일시: 1984 년 10 월 15 일 10 시. (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오전 10:20 (오전 10 시 20 분)	
172	어문 규정	‘쌍지’의 발음	표준발음법 제12항은 “‘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ㄱ, ㄷ, ㅈ]으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쌍지’는 [싸치]로 발음해야 합니다.	청주대
173	어문 규정	‘쓰여진’과 ‘쓰인’	‘칠판에 쓰여진 글씨’는 ‘칠판에 쓰인 글씨’로 써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쓰여진, 되어진’과 같은 이중피동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쓰인, 된’으로 써야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174	어문 규정	‘아니에요’와 ‘아니예요’	‘아니예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아니예요’는 ‘아니-’라는 형용사의 어간에 ‘-예요’라는 어미가 결합한 것입니다. 종결 어미 ‘-어요’는 ‘아니다’와 ‘-이다’ 뒤에 붙을 때는 ‘-예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75	어문 규정	‘안’과 ‘않’ 차이	‘안’은 용언 위에 붙어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입니다. ‘않’은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붙어 부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놀지 않고’가 됩니다.	청주대
176	어문 규정	‘안’과 ‘않’	‘안’=아니, ‘않’=아니하다	동아대 (임지아)
177	어문 규정	‘안’과 ‘않’ 차이	어떤 분은 ‘않 먹다’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바르지 않습니다. ‘않’은 절대 홀로 쓰이지 못합니다. ‘안 먹다’가 바릅니다. 물론 ‘먹지 않다’가 더 좋은 표현이고요. 당연히 ‘않먹다’난 ‘않서다’는 바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판단 않고’나 ‘처리 않고’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글을 쓸 때는 꼭 ‘판단하지 않	전주대 (박지학)

			고'나 '처리하지 않고'로 써야 합니다. 또 '처리하니'나 '판단 하니'로 써도 안 됩니다. 여기서 쓰인 '-하다'는 접미사이므로 '처리하니'나 '판단 하니'처럼 붙여써야 합니다. 앞에서 쓴 '안 됩니다'도 '안됩니다'로 쓰면 안 됩니다.	
178	어문 규정	‘ 안 ’ 과 ‘않’ 차이	'안'은 용언 앞에 붙어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붙어 부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안 먹는다, 안 어울린다'에서와 같이 서술어를 꾸미는 역할을 할 때에는 '안'을 쓰고, “철수가 먹지 않았다, 영희는 예쁘지 않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에 덧붙여 함께 서술어를 구성할 때에는 '않-'을 써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79	어문 규정	‘ 안 절 부 절 못 하 다 . ’ 와 ‘ 안 절 부 절하다.’	표준어 규정에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안절부절이다’는 하나의 말인 ‘안절부절못하다’의 허리를 자르고 조사 ‘-이다’를 붙인 형태로 틀린 말입니다. ‘안절부절’은 부사로 다른 체언들(명사나 대명사)처럼 조사 ‘-이다’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절부절이다’는 틀린 말이 됩니다.	경북대 (박유진)
180	어문 규정	‘알맞은’ 과 ‘알맞 는’	'알맞다'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에 결합하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 '-는'입니다. 따라서 '알맞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81	어문 규정	‘알맞은’ 과 ‘알맞 는’	'알맞은'이 맞습니다. 우리말에서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를 취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즉 형용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입니다. 그런데 '알맞다'는 형용사입니다. 곧 형용사인 '알맞다'는 '알맞은 운동, 알맞은 차림새'와 같이 활용해서 써야 합니다. 한편 동사인 '맞다'는 '입에 맞는 음식, 맞는 답'과 같이 활용해서 써야 어법에 맞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182	어문 규정	‘알아보 다’의 띄 어쓰기	'알아보다'의 '보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단어에서는 띄어 써야 하지만 '알아보다'는 합성동사로 굳어진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살	충북대 (손대익)

			펴보다'의 경우에도 이미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183	어문 규정	‘알은체’ ‘아는 체’	“친구가 아는 체하며 말을 걸어 왔다.”는 “친구가 알은체하며 말을 걸어 왔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알은체하다’와 ‘아는 체하다’는 서로 의미가 다른 말입니다. ‘아는 체하다’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으로 “모르면서 아는 체하다가 망신만 당했다.”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흔히 “친구가 아는 체하며 말을 걸어 왔다.”처럼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때는 ‘알은체하다’를 써야 합니다. 한편 ‘알은체하다’는 ‘알다’의 어간 ‘알-’에 관형형 어미 ‘-은’이 결합하여 의존명사 ‘체’를 꾸며주는 구 구성이지만 ‘알은체하다’와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184	어문 규정	‘어떡해’ 와 ‘어떻게’	‘어떡해’로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발음이 같은 ‘어떻게’와 ‘어떡해’를 혼동하여 쓰기도 하고 ‘어떻게’와 같이 잘못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와 ‘어떡해’는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며, ‘어떡해’는 ‘어떻게 해’라는 구가 줄어든 말입니다. 둘은 그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는 단어이고 후자는 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쓰임도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는 부사형 활용이므로 다양한 용언을 수식하는 ‘너 어떻게 된 거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처럼 동사를 수식합니다. 반면에 ‘어떡해’는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 못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85	어문 규정	‘어떡해’ 와 ‘어떻게’	‘어떻게’, ‘어떡해’는 맞춤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와 ‘어떡해’는 잘못 쓴 것입니다. ‘어떻게’, ‘어떡해’는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는 ‘어떻다’에 ‘-게’가 결합한 말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입니다. (예1)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2) 이 일을 어떡해.(=어떻게 해.) ‘어떡케’나 ‘어떻해’로 적으면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86	어문 규정	‘어떡해’ 와 ‘어떻게’	‘어떻게’는 형용사 ‘어떻다’에 어미 ‘-게’가 결합하여 부사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어떡해’는 ‘어떠하게 해’라는 구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떻게’는 부사형 활용이므로 용언을 수식하	상명대

			지만, '어떡해'는 그 자체가 완결된 구이므로 서술어로는 쓰일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는 못합니다. * 오늘도 안 오면 어떡해. *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187	어문 규정	‘어떡 해’와 ‘어떻게’	'어떡하다'는 '어떠하게 하다'의 준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어떡해 하지? (x)/ 어떻게 하지? (o) 어떡하지? (o)/ 어떻게하지? (x) 어떡해? (o)/ 어떻게? (x)	경상대 (이유미)
188	어문 규정	‘어려 워 하다’ ‘어려 워 하다’	'어려워하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따라서 '어려워할 수 있는'으로 써야 합니다.	경상대 (이유미)
189	어문 규정	‘얼핏’과 ‘언뜻’	‘얼핏’과 ‘언뜻’은 비슷한 말로 주요 사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문규정을 확인해 보더라도 ‘얼핏’은 바른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190	어문 규정	‘없이 하 다’와 ‘없이 하 다’	‘없이하다’로 붙여 쓸 경우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밥상에 물 없이하고 수저를 놓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없이’와 ‘하다’를 띄어 써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91	어문 규정	‘없이 하 다’와 ‘없이 하 다’	‘없이하다’로 붙여 쓸 경우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밥상에 물 없이하고 수저를 놓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없어지게 하다”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없이’와 ‘하다’를 띄어 써야 합니다.	경북대 (최준)
192	어문 규정	‘에 요’와 ‘예요’	* 그것은 소나무이어요. → 그것은 소나무여요. * 그것은 소나무이예요. → 그것은 소나무예요. 그래서 '철수예요'(×)처럼 '이'없이 '에요'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합니다. '에요'는 항상 '이'와 함께 '이에요'의 형태로 쓰여야 합니다.	전주대 (박지학)
193	어문 규정	‘에 요’와 ‘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이에요'가 붙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는 '예요'가 붙습니다. '거'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예요'가 붙고, '것'은 자음으로 끝나므로 '이에요'가 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니다'구문에서는 모음으로 끝나더라도 항상 '아니예요'로 나타납니다. ex)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예요.	경상대 (이유미)
194	어문	‘에 요’와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해	청주대

	규정	‘예요’	요할 자리에 쓰며, 설명 의문 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따라서,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어디+ 이에요→어디이에요→어디예요’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195	어문 규정	‘여명, 여개’	‘삼백여 명’과 ‘삼백여 개’로 쓰시면 됩니다. ‘여’는 ‘삼백’이라는 수사에 붙는 접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뒤의 ‘명’과 ‘개’는 단위를 세는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경북대 (송지혜)
196	어문 규정	‘영글다’ ‘여물다’	‘영글다’와 ‘여물다’는 복수 표준어로 둘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표준어규정 제23항은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언 중에서 세력을 얻어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을 표준어로 추진해 주는 성격의 규정입니다. ‘영글다’ 또한 ‘여물다’의 방언으로 취급했던 적이 있으나 현재는 두 단어 모두 널리 사용되므로 두 가지 모두를 표준어로 인정한 것입니다.	청주대
197	어문 규정	‘예스러운’ ‘옛스러운’	‘예’는 (주로 ‘예나’·‘예로부터’의 꼴로 쓰여) ‘옛적, 오래전’의 뜻을 나타냅니다. ‘옛’은 관형사로 ‘지나간 때의, 예전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스러운’으로 적어야 바른 표현입니다. 예로는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 ‘예스러운 멋’ 등이 있습니다.	청주대
198	어문 규정	‘오랫만’과 ‘오랜만’	‘오랫만’은 틀린 표기입니다. ‘오랜만’을 쓰십시오. 예: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군.	국어단체 (남영신)
199	어문 규정	‘오십시오’와 ‘오십시요’	‘오십시오’가 맞습니다. ‘-오’는 설명, 의문, 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어간이나 어미처럼 자립성이 없는 말 다음에는 쓰고, ‘-요’는 듣는 사람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종결어미나 부사어, 명사처럼 자립적인 말 다음에 씁니다.	충북대 (장충덕)
200	어문 규정	‘온점’? ‘마침표’?	말씀하신 문장 부호는 온점도 맞고 마침표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침표와 온점은 상하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마침표에는 온점도 있지만, 물음표, 느낌표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문장 부호는 마침표 중에서도 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북대 (송지혜)
201	어문 규정	‘올갱이’, ‘올뱅이’,	‘다슬기’가 표준어입니다. ‘올뱅이’와 ‘올갱이’는 모두 ‘다슬기’의 방언으로 주로 ‘강원’이나 ‘충북’	경상대 (이유미)

		‘다슬기’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참고로 경상도에서도 '올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때는 '다슬기'의 뜻이 아니라 '올가미'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02	어문 규정	‘옷 별’의 음 한 발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받침 ‘ㄱ,ㅋ’, ‘ㅅ,ㅆ,ㅈ,ㅊ,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ㄷ,ㅌ]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옷'의 'ㅅ'은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온 한 별]이 되고 다시 'ㄷ'+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되니, [오탄별]이 됩니다. 다만,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는 ‘ㄷ’과 ‘ㅎ’이 결합하지 않아 [온 한 별]이 됩니다.	청주대
203	어문 규정	‘웬 일’ / ‘웬일’	발음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쓰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웬"과 "웬"은 다른 말이므로 차이를 확실히 알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입니다. 따라서 "웬일이냐"가 바른 말입니다. "웬일"은 어찌된 일 또는 의외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도 "웬(관형사)+ 일(명사)"이 바릅니다. 예) 웬일로 여기까지 다 왔니? 네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이게 웬일이냐? "웬"은 "왜"와 연관된 말로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인지"의 준말인 "웬지"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처음에는 설명만으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두 단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어떤"으로 바꿀 수 있는 말에는 "웬"을 쓰고, "무슨 까닭인지"로 바꿀 수 있는 말에는 "웬"을 쓰면 됩니다. 위의 예문을 바꿔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
204	어문 규정	‘웬 지’와 ‘웬지’	‘웬’은 ‘웬지’라고 쓸 때만 쓰는 말이며, ‘웬지’는 ‘왜인지’의 준말입니다. ‘웬’은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입니다. 그러므로 ‘웬’은 명사 앞에만	상명대

			사용하고, ‘웬’ 앞뒤로는 모두 띄어 씁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웬 일이니? * 웬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니?	
205	어문 규정	‘웬지’와 ‘웬지’	‘웬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웬지’는 의문사 ‘왜’와 어미 ‘(이)ㄴ지’로 분석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웬 사람이니?’의 ‘웬’은 ‘웬’이 아닌 ‘웬’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웬’과 ‘웬’의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서, ‘웬지’의 ‘웬’과 ‘웬 사람’의 ‘웬’을 ‘웬’으로 써야 하는지, ‘웬’으로 써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웬’과 ‘웬’은 형태와 의미, 그리고 품사가 다른 말입니다. ‘웬 사람이니’의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의 뜻을 가진 관형사이고, ‘웬’의 형태는 이유를 뜻하는 ‘왜’에 ‘-(이)ㄴ지’가 결합해 굳어진 부사 ‘웬지’에서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웬지’는 ‘웬지’로 써서는 안 되고, ‘웬 사람’의 ‘웬’은 의문이나 이유의 의미가 있지 않으므로 ‘웬 사람’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충북대 (김민옥)
206	어문 규정	‘웬지’와 ‘웬지’	‘웬’은 ‘어찌된, 어떠한’의 뜻으로 ‘웬일, 웬 사람, 웬 사건’과 같이 사용됩니다. ‘웬’은 ‘왜인지’의 준말로 ‘웬지’의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지 가슴이 떨려.’와 같이 ‘무슨 까닭으로, 어떤 이유에서’의 경우에는 ‘웬지’를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207	어문 규정	‘웬지’와 ‘웬지’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은 ‘웬지’로 쓰며, 이것을 ‘웬지’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자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내는 웬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웬지 멋있어 보인다. ‘어찌 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관형사 ‘웬’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나 ‘웬 일로 그러지?’의 ‘웬’을 ‘웬’으로 적기도 하는데, ‘웬’은 ‘왜’와 관련이 없는 말이므로 ‘웬’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며 ‘웬’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웬 영문인지 모르다/ 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 웬 걱정이 그리 많아?/ 이게 웬 날벼락이람.	경상대 (이유미)
208	어문 규정	‘외골수’ ‘외골수’	우리말에 ‘외골수’란 말은 없습니다. ‘한 곳으로만 통한 길’ (주로 ‘외골수로’의 꼴로 쓰여)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청주대

			‘외곬’은 "외곬으로 생각하다"와 같이 활용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외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209	어문 규정	‘웃어 재 끼 다’와 ‘웃어 재 끼다’	‘웃어 재끼다’가 맞습니다. ‘재끼다’는 동사 뒤에서 ‘-어 재끼다’ 구성으로 쓰여, 일을 숨쉴 것 쉽게 처리하거나 빨리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북대 (송지혜)
210	어문 규정	‘웬’, ‘웬’	‘웬’은 ‘어찌된, 어떠한’의 의미의 관형사이며, ‘웬’은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뜻의 ‘웬지’일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청주대
211	어문 규정	‘윗글’, ‘위 글’	‘위 글’이 맞는 말입니다. ‘위’+‘글’은 단어가 아니므로 ‘위 글’로 적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위’와 ‘길’이 결합한 경우에는 단어이므로 ‘윗길’로 적게 됩니다.	충북대 (장충덕)
212	어문 규정	‘윗입술’ 과 ‘웃입 술’	<표준어 규정> 제2장 제2절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지만, [다만2]의 규정에 따라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아래의 구분이 있는 ‘입술’의 경우 ‘윗입술’이라고 하지만, ‘어른’의 경우 ‘웃어른’이라고 표기합니다.	상명대
213	어문 규정	‘울’과 ‘률’	한글맞춤법 제3장 제5절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음이 '랴, 려, 례, 료, 류, 리'인 한자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습니다.” 다만 [붙임1]의 규정에 따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룰'은 '열, 율'로 적습니다. 따라서 ‘성장률, 출석률’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상명대
214	어문 규정	‘울’과 ‘률’	개시율과 개시률 개시율이 맞다.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는 '룰, 렴'로 적고 'ㄴ' 받침이나 모음 뒤에서는 '율, 열'로 적는다. 1. 받침이 없거나 'ㄴ'받침 - 율: 비율, 실패율, 규율/ 선율, 전율, 백분율 2. 그 외의 받침 - 룰: 명중률, 합격률, 성공률, 숫률 (《한글 맞춤법》 제11 항[붙임 1]참조) (1) ㄱ. 법률(法律), 능률(能率), 출석률(出席率) ㄴ. 운율(韻律), 비율(比率), 전율(戰慄) (2) ㄱ. 행렬(行列), 결렬(決裂), 맹렬(猛烈), 졸렬(拙劣) ㄴ.	경북대 (홍미주)

			치열(齒列), 분열(分裂), 치열(熾烈), 우열(優劣), 진열(陳列) 이는 모음이나 'ㄴ' 받침 다음에서는 '열', '울'로 발음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15	어문 규정	‘으프로’ 와 ‘ㅁ으 로’	‘-프로’는 ‘-이니까/ -이기 때문에’와 같은 이 유·까닭을 나타내며, ‘-ㅁ으로’는 ‘~하는 것으로 써’의 뜻으로 수단·방법을 나타냅니다.	상명대 (전영옥)
216	어문 규정	‘은 숟가 락’/ ‘은 숟가락’	‘은 숟가락’으로 띄어 써야 합니다. ‘은’과 ‘숟가 락’으로 이루어진 구이므로 붙여 쓸 수 없습니 다. 반면 ‘은수저’는 붙여 쓰고 있는데, 이는 ‘은 수저’가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쓰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217	어문 규정	‘이래 뵈 도’와 ‘이 래 뵈도’	‘이래 뵈도’가 맞습니다. ‘이래 뵈도’의 ‘이래’는 '이렇다'의 어간 '이렇-'에 어미 '-어'가 붙어 '이 래'로 표기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 저래, 그래'는 기존 의 사전에서 '이래, 그래, 저래'가 아닌, '이래, 그래, 저래'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 그래, 저래'의 표기가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래 뵈도'의 '뵈도' 를 '뵈도'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뵈도'는 '보다'의 피동사 '보이다'가 준 '뵈다'에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도'가 결합한 말이므로, '뵈도'가 아닌 '뵈도'를 써야 합니다. '이래 뵈도'가 맞고 '이래 뵈도, 이래 뵈도, 이래 뵈도'로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218	어문 규정	‘이에요’ ‘이에요’	'이에요/이어요'는 복수표준어입니다. '이에요/이 어요'에서 '이'는 서술격조사이고 '-에요/어요'는 어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요/이어요'는 명사와 결합하고 용언의 어간에 직접 결합할 때는 서술 격조사 없이 '-에요/어요'가 결합합니다. 그러므 로 '이것은 책상이에요/책상이어요'로 써야 합니 다.	청주대
219	어문 규정	‘이오’ ‘이오’	'책이오'와 '책이오' 중 어느 하나가 맞고 다른 하나를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책이오'로 써 야 할 때가 있고, '책이오'로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책이오'의 '-오'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열거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이 것은 책이오, 저것은 연필이오, 그것은 공입니 다."와 같은 경우에 씁니다. '책이오'의 '-오'는 설명, 의문, 명령, 청유의 뜻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서 오시오." 같은	충북대 (김민옥)

			경우에 씁니다.	
220	어문 규정	‘인바’의 띄어쓰기	‘~자(者)인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 + 이- + ㄴ바’로 분석됩니다. ‘-ㄴ바’는 문어체에서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과거의 어떤 상황을 미리 제시하는 데 쓰여 앞 절의 상황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예처럼 뒤 절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그 사실이 있게 된 것과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ㄴ데’, ‘-니’ 따위에 가까운 뜻을 나타내지요. 어미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시면 됩니다.	경북대 (송지혜)
221	어문 규정	‘인사 말’/‘인삿 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중에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는 사이시옷을 표기합니다. 그러면 ‘인사말’ 역시 한자어인 ‘인사(人事)’와 우리말인 ‘말’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음규정에 따라 표기하지 않는 것이 바른 것일 수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할 수도 있고 표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음은 사람마다 달리할 수 있으니 ‘인산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사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인사말’을 바르게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서도 ‘인삿말’은 틀린 표기로 보고 ‘인사말’을 바르게 봅니다.	강원대
222	어문 규정	‘일찌기’ ‘일찍이’	‘일찍이’가 맞는 말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25항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더욱이, 일찍이’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223	어문 규정	‘읽다’, ‘읽고’의 읽기	우리말에서 겹받침은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연음되어 ‘읽+으니[일그니]’처럼 모두 발음되나, 자음이 오는 경우는 한 가지 자음이 대표로 소리가 납니다. 겹받침 ‘ㅁ’의 경우는 ‘읽다’에서처럼 [ㄱ]이 대표음이 되어서 [익다]가 되고 다시 자음 동화가 되어 [익따]와 같이 발음하게 됩니다. 특히 경상도에서는 [일따]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하지만 ‘읽고’처럼 어미가 ‘ㄱ’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일꼬]와 같이 받침을 [ㄱ]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읽다’는 [익따], ‘읽고’는 [일꼬]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북대 (서은영)
224	어문	‘있음’과	‘있음’이 맞다. ‘-슴’이란 어미가 없는데도 ‘없슴	경북대

	규정	‘있습’	/있습'으로 적는 건 받침에 'ㅅ'이 있어 [습]으로 발음 나는 데다 '-습니다'와 관련짓는 경향 때문이다. 1988년 맞춤법 개정 때 종결어미 '-읍니다'가 '-습니다'로 통일되면서 '-음'이 붙는 명사형도 '-습'으로 바뀌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명사형 어미는 '-음'이다. '깊다/얕다'의 명사형이 '깊음/얕음'이듯이 '없다/있다'의 명사형도 '없음/있음'이다. 어미 '-었-' '-겠-' 다음에도 '없었음/있었음' '없겠음/있겠음'과 같이 써야 한다.	(홍미주)
225	어문 규정	‘자장면’ ‘짜장면’	많은 사람들이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읽고 씁니다. ‘자장면’은 중국 음식으로 그 음식이 들어오면서 이름도 함께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자장면’으로 적어야 합니다.	충북대 (김경렬)
226	어문 규정	‘ 짹 ’ 과 ‘ 찹 ’	‘대단하지 않다’는 ‘-하’ 앞에 ‘ㄴ’이 오기 때문에 ‘ㄱ’만 줄어 ‘대단찮다’로 표기되고 ‘깨끗하지 않다’는 ‘깨끗+하지’의 구성에서 대표음법칙에 따라 ‘깨끗’이 되어 ‘-하’ 앞에 ‘ㄷ’이 위치하여 ‘-하’ 전체가 줄어 ‘깨끗찮다’로 표기하게 됩니다.	청주대
227	어문 규정	‘재끼다’, ‘제끼다’	‘웃어 재끼다’가 맞습니다. ‘재끼다’는 동사 뒤에서 ‘-어 재끼다’ 구성으로 쓰여, 일을 숨쉴 있게 쉽게 처리하거나 빨리 해 버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경북대 (송지혜)
228	어문 규정	‘전’의 띄어쓰기	'아버지 전 상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글로써 前[전]은 '[편지 따위에서] 편지를 받는 어른의 자리 앞'이라는 뜻이며, 上書[상서]는 '관청이나 웃어른이나 귀인에게 글을 올림. 또는 그 글;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림; 섭정의 왕세자에게 글을 올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前 上書(전 상서)란 '~의 자리 앞에 글을 올림(또는 그 글)'이라는 뜻으로 '아버님 전 상서'라고 써야 옳은 표현입니다.	청주대
229	어문 규정	‘전셋집’과 ‘전세방’	한글맞춤법 제4장 제4절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받치어 적습니다. ‘전셋집’은 한자말과 순우리말의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전세(傳貰)와 집 사이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하지만 ‘전세방’은 전세(傳貰)와 방(房)이 모두 한자말로 된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없습니다. 한자말로 된	상명대

			합성어지만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을 수 있는 합성어는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뒤탈간(退間), 횡수(回數) 6개입니다.	
230	어문 규정	‘점쟁이’, ‘점장이’	‘점쟁이’가 맞습니다.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쟁이’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쟁이’, ‘환쟁이’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점을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일’이 기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원적으로 ‘-장이’는 솜씨가 좋은 수공업자에게 ‘○○장’이라고 ‘장인(匠人)’의 호칭을 부여하던 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수공업적인 기술자에게 ‘-장이’를 붙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장이’, ‘대장장이’, ‘기와장이’ 등은 수공업적인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수공업적인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점쟁이’, ‘환쟁이’가 맞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31	어문 규정	‘정 암촌’ 의 로마 자 표기	‘Jeongamchon’입니다. 그러나 발음상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Jeong-amchon’으로 ‘불임표’를 쓸 수 있다.	충북대 (손대익)
232	어문 규정	‘조그만’ ‘조그마 한’	‘조그만’과 ‘조그마한’은 복수표준어입니다. ‘조그만’은 ‘조그마한’이 줄어든 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그마하다’와 ‘조그맣다’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은 ‘조그마하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이루어진 것이고, ‘조그만’은 ‘조그마하다’의 준말인 ‘조그맣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는 것입니다.	청주대
233	어문 규정	‘종로’의 로 마 자 표기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로는 음절(音節) 끝 자음(子音)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인 자음동화작용이 일어나 [종노]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jongno’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234	어문 규정	‘주워 오다’와 ‘주서 오다’	‘줍다’와 ‘주워 오다’에 대해 ‘줏다’와 ‘주서 오다’는 방언입니다. ‘줍다’는 ‘ㅂ’불규칙 용언으로 ‘주워라’가 맞는데 지역에 따라 ‘주버라’ 또는 ‘주서라’라고 발음합니다.	상명대
235	어문 규정	‘주워 오다’와 ‘주서 오다’	‘줍다’와 ‘주워 오다’에 대해 ‘줏다’와 ‘주서 오다’는 방언입니다. ‘줍다’는 ‘ㅂ’불규칙 용언으로 ‘주워라’가 맞는데 지역에 따라 ‘주버라’ 또는 ‘주서라’라고 발음합니다.	상명대
236	어문 규정	‘중’의 띄 어쓰기	‘중’은 일부 명사 뒤에 쓰여 ‘-는-’, ‘-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한글맞춤법에서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회의 중’, ‘부재 중’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근무 중’, ‘수업 중’, ‘식사 중’, ‘방송 중’, ‘그러던 중’ 등이 있습니다.	청주대
237	어문 규정	‘지 리 하 다’와 ‘지 루하다’	표준어는 ‘지루하다’가 맞습니다. 한자어가 ‘支離’[지리]이기는 하지만 ‘지리하다’보다 ‘지루하다’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지루하다’를 표준어로 삼았다고 합니다.	경북대 (김유진)
238	어문 규정	‘짜깁기’ ‘짜깁기’	짜깁기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짜깁기는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기존의 글이나 영화 따위를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청주대
239	어문 규정	‘첫번째’ ‘첫 번째’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어 체언을 꾸미는 수관형사는 뒤에 오는 명사 또는 의존 명사와 띄어 씁니다. 첫 번째의 ‘첫’은 관형사, 의존명사(차례나 횟수를 나타냄) ‘번째’가 이어진 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청주대
240	어문 규정	‘쫓 점’, ‘초점’	초점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진은)
241	어문 규정	‘최대값’, ‘최댓값’	‘최댓값’이 바른 표기	동아대 (이현아)
242	어문 규정	‘추 근 거 리 다’에 대하여	‘성가실 정도로 은근히 자꾸 귀찮게 굴다’는 ‘치근거리다’이고, ‘성가실 정도로 끈덕지게 자꾸 귀찮게 굴다’는 ‘치근덕거리다’입니다. 따라서 ‘추근거리다, 추근덕대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상명대
243	어문	‘축 하 받	‘받다’는 동사로 ‘…에서/에게서, …을’ 또는 ‘…	청주대

	규정	다', '축하 받다'	에서/에게서' 대신에 '...으로부터'가 쓰이기도 하여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축하 받다'는 '축하를 받다'의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조사가 생략된 대부분의 동사는 '축하 받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44	어문 규정	'춤이오?'와 '춤요?'	'해요체'가 쓰이는 문맥이므로 '하오체'인 '춤이오'는 불가능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245	어문 규정	'치렀다'와 '치뤘다'	'치렀다'가 맞습니다. 주어야 할 돈을 내주거나 (잔금을 치르다), 어떤 일을 겪어 낸다(큰일을 치르다)는 말은 '치르다'가 기본형입니다. '치르다'는 어간 '치르-'에 어미 '-어, -었-'이 붙게 되면, 어간의 '으'가 탈락하여 '치러, 치렀-'으로 활용합니다. '쓰다'에 '-어, -었-'이 붙으면 '써, 썼-'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혹 '치르다'를 '치루다'가 기본형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활용형을 '치뤘, 치뤘-'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246	어문 규정	'치르다'와 '치루다'	'치르다'와 '치루다'는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단지 '치루다'는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표준어가 아니기에 사전에 올라 있지도 않습니다. '치루다'의 <표준국어대사전>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르다'의 잘못. ❶'물건 값을 치뤘다'는 '치렀다'로 써야 옳다. 기본형이 '치르다'이므로 '치르-+-었-→치뤘-'이 되지 않는다. 위 설명과 같이 '치뤘다' 역시 표준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치렀다'라고 써야 합니다.	경상대 (박용식)
247	어문 규정	'친친' '칭칭'	'친친'과 '칭칭'은 둘 다 표준어입니다. 원래는 '친친'이 표준어이고 '칭칭'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친친'보다 '칭칭'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칭칭'도 표준어가 된 것입니다. 방언이 표준어가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은 표준어 규정 제23항과 관련되는데,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는 경우 그것을 표준어로 삼되 원래의 표준어로 그대로 표준어	충북대 (장충덕)

			로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단어 모두 표제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248	어문 규정	‘칸’과 ‘간’	‘칸’이 맞습니다. ‘칸’은 공간(空間)의 구획이나 넓이를 나타냅니다. 단, ‘초가삼간’ 등 관습적인 표현에는 ‘간’(間)을 씁니다.	상명대 (전영옥)
249	어문 규정	‘코자’, ‘고자’	‘-하고자’를 줄여 쓸 때는 ‘-코자’가 될 때도 있고 ‘-고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고자’ 앞의 받침이 ‘ㄱ, ㄷ, ㅂ’ 소리로 끝날 때는 줄어도 ‘-고자’로 쓰시고, ‘-하고자’ 앞이 다른 받침 소리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코자’로 줄여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하고자’는 줄면 ‘요청코자’가 되고 ‘실시하고자’는 줄면 ‘실시코자’가 됩니다. 그러나 ‘구획하고자’는 줄면 ‘구획고자’가 됩니다.	경북대 (송지혜)
250	어문 규정	‘콜론’, ‘세미콜론’	한글에는 세미콜론은 따로 없고 콜론은 쌍점이라고 합니다. 쌍점은 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습니다. 영어에서는 콜론은 앞 문장과 뒷문장이 동격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미콜론은 부가적인 설명이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51	어문 규정	‘통째로’ 와 ‘통채로’	“뱀이 개구리를 통째로 삼켰다”에서 ‘통째’의 ‘째’는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예: 뿌리째, 껍질째)을 나타내는 접미사입니다. ‘통채로’는 틀린 말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252	어문 규정	‘트림’과 ‘트름’	‘트림’이 표준어입니다. 종종 ‘트림’을 ‘트름’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림’은 예부터 ‘트름’으로 써 오던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트름’보다는 ‘트림’을 쓰고 있고, 기존의 모든 사전에서 ‘트림’을 맞는 말로, ‘트름’은 ‘트림’의 잘못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림’을 ‘트름’으로 읽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표준어 중에는 유사한 형태가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감에 차이가 있거나 기원을 달리 하는 말이 둘 다 널리 쓰일 때 등의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트림’과 ‘트름’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충북대 (김민옥)

			라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름'은 '트림'의 잘못으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253	어문 규정	‘트림’과 ‘트름’	‘트림’이 표준어입니다. (관련 규정: <표준어 규정> 제2장, 제4절, 제17항.)	전주대 (박지학)
254	어문 규정	‘툼툼이’ 와 ‘툼툼 히’	‘툼툼이’가 맞습니다. 한글맞춤법 제51항에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모호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만 나는 것 [히]로만 나는 것 이란, 실상 발음자의 습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고, 따라서 예시된 단어 이외의 경우는 자칫 기록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주대 (박지학)
255	어문 규정	‘팬더’, ‘판다’	대나무를 좋아하는 곰과의 포유동물인 'panda'는 '팬더'로 잘 알려져 있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판다'라고 적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56	어문 규정	‘포탈’, ‘포탈’	‘portal, total’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포털, 토털’로 적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원지음을 가지고 적는 것이 원칙인데, ‘portal, total’의 2음절 모습 ‘a’는 [ə]로 발음되기 때문에 ‘ㅏ’로 적어야 합니다. 단어 표기의 ‘a’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탈, 토탈’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257	어문 규정	‘푸켓’과 ‘푸켓’	‘푸켓’이 맞다. 우리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는 'ㄱ, ㄷ, ㅃ' 같은 된소리 표기를 쓰지 않는 것이어서 이전에는 푸켓으로 썼다. 그런데 동남아 3개 국어에서는 된소리와 예삿소리가 음성학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이를 우리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로 쓰는 것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그 전까지 ‘호치민’으로 써오던 것도 ‘호찌민’으로 바뀌었다.	경북대 (홍미주)
258	어문 규정	‘프라이 팬’ ‘후라이 팬’	프라이팬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영어로는 ‘frying pan’이므로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을 적용하면 프라이팬이지만 이렇게까지 원어에 충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f'는 '표'에 대응시켜 '프라이팬'이 되는 것입니다.	청주대
259	어문 규정	‘핑크빛’ ‘핑크빛’	한글 맞춤법 30항에 따르면 외래어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핑크빛이 바른 표현입니다. 예로는 피자집이 있습니다.	청주대

260	어문 규정	‘하고자’, ‘하고저’	‘-하고자’가 맞는 표기입니다. ‘-고자’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저’를 공 문서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고자’를 쓰시는 것이 어문 규정에 맞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61	어문 규정	‘하므로’ ‘함으로’	‘하므로’는 동사 어간 ‘하-’에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므로’가 붙은 형태이며,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조사 ‘으로’가 붙은 형태입니다. 이때 ‘하므로’는 ‘하기 때문에’란 뜻을 나타내고, ‘함으로’는 ‘하는 것으로(써)’란 뜻을 나타냅니다. 문장의 앞 절이 뒤 절의 ‘이유, 원인’이 되는 것은 ‘하므로’를 써야 하고, ‘수단, 도구, 재료’가 되는 것은 ‘함으로’를 써야 합니다. ‘하므로’와 ‘함으로’는 ‘함으로’에만 ‘-써’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262	어문 규정	‘하므로 써’와 ‘함 으로써’	의미에 따라 쓰임이 다르긴 하지만 ‘하므로써’는 틀린 말이고, ‘함으로써’가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63	어문 규정	‘한 달’ ‘한달’	명사 ‘달’은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으로, ‘이번 달, 다음 달 말까지 확답을 하겠다.’ 등과 같이 표현합니다. 의존명사 ‘달’은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여 한 해를 열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의 기간을 세는 단위’의 뜻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르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는 그 앞의 수관형사와 띄어 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몇 달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등과 같이 표현합니다.	청주대
264	어문 규정	‘한 살배기’ ‘한 살박이’	‘한 살배기’가 맞습니다. ‘박이’는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이라는 뜻이나 ‘무엇이 박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박다, 박히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에 쓰이는 접미사입니다. ‘점박이, 차돌박이, 불박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배기’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의 뜻을 나타내거나 ‘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접미사입니다. ‘두 살배기, 다섯 살배기’와 ‘나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배기’는 ‘박다, 박히다’의 뜻에서 떨어진 경우로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265	어문	‘ 할 게 ’	한글맞춤법 제53항에 따라 ‘할게’와 ‘할걸’은 모	청주대

	규정	‘함께’ ‘ 할 결 ’ ‘할결’	두 예사소리로 적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게’는 어미로 '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구어체로 1. ‘해할 자리에 쓰여, 앞 절의 사실이 그러하니 당연히 뒤 절의 사실은 이러할 것이라고 추측하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 ‘해할 자리에 쓰여, 앞 절의 사태가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어적(反語的)인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제시된 두 상황 간에 인과 관계가 가정되는데, 뒤 절의 사태가 성립하지 않으니 앞 절의 사태도 성립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3. ‘해할 자리에 쓰여, 한번 짐작해서 답해 보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4. ‘해할 자리에 쓰여, 앞 문장에서 어떤 상황을 묻고서, 뒤 문장으로 것처럼 물은 근거를 제시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5. “해할 자리에 쓰여, 상대의 의도를 묻는 종결 어미로, ‘-려고 그래?’의 뜻에 가까우며, 흔히 상대의 행위가 화자에게는 약간 뜻밖이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의 뜻이 있습니다. ‘-ㄴ결’은 어미로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구어체로 1.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며,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차는 이미 떠난결.”, “이젠 다 끝난결 뭐.”과 같이 표현합니다. 2.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현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그 앤 아직 어린앤결.”, “우리 할머니께는 오빠가 세 분이나 계신결.”과 같이 표현합니다.	
266	어문 규정	‘할는지’ ‘할런지’ ‘할른지’	‘-르는지’는 어떤 불확실한 사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입니다. 이는 추측, 가능성 등 확정되지 않은 현실을 나타내는 ‘-르’와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는지’가 결합된 말로 ‘-르런지’나 ‘-르른지’로 적는 것은 올	청주대

			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267	어문 규정	‘할줄 압’ 과 ‘할줄 얹’	‘할 줄 얹’이 맞는 표기입니다. 동명사형 어미 ‘-음/ㅁ’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서는 ‘-음’으로 받침이 없는 말 뒤에서는 ‘감’처럼 ‘ㅁ’이 옵니다.	충북대 (손대익)
268	어문 규정	‘해님’ ‘햇님’	‘해님’이 맞고, ‘햇님’은 잘못입니다. 국어에서 사이시옷은 자립적인 말과 접미사가 결합되는 구성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를 인격화하여 높이거나 다정하게 이르기 위해 접미사 ‘-님’을 붙인 ‘해님’의 경우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충북대 (김민옥)
269	어문 규정	‘해 봐 봐’ 와 ‘해봐 바’	‘이것 좀 해봐 봐.’가 맞습니다. ‘해봐 봐’는 ‘하다’의 어간 ‘하-’에 보조 용언 ‘보다’가 두 번 반복된 것으로 ‘하다’와 ‘보다’, ‘보다’와 ‘보다’ 사이에는 연결어미 ‘-아’가 붙고, 마지막 ‘보다’에는 종결어미 ‘-아’가 붙은 것입니다. 해봐 봐 : 하- + -아(연결어미) + 보- + -아(연결어미) + 보- + -아(종결어미) 보조 용언이 두 번 반복될 때는 원칙대로 모두 띄어쓰거나 앞의 것은 본용언에 붙여 쓸 수도 있으므로 ‘해 봐 봐’로 모두 띄어쓰거나 ‘해봐 봐’로 앞의 보조용언은 붙여 쓰거나 하면 됩니다.	충북대 (장충덕)
270	어문 규정	‘해 야 하 다’ ‘해야 하 다’	‘해야 한다’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 어미로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야 한다’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71	어문 규정	‘햇 갈 리 다’, ‘햇 갈리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햇갈리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72	어문 규정	‘햇사과’, ‘햇 감’, ‘해콩’	‘해콩’이 맞습니다. 우리말에서 ‘그해에 난 어떤 것’을 가리킬 때는 주로 접두사 ‘해-/햇-’이 쓰입니다. ‘해-/햇-’을 쓸 때는 다음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첫 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이면 ‘해-’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햇-’을 씁니다. 해 - 해애타, 해콩, 해팔, 해차 햇 - 햇감자, 햇과일, 햇김, 햇나물, 햇밤, 햇벼, 햇병아리, 햇보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원래 ‘쌀’은 ‘ㅅ’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기 때문에 ‘해쌀’로 써야 되지만, 특	강원대

			별히 '쌀'에는 'ㅂ'을 첨가하여 '햏쌀'을 바른 표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쌀'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시기까지는 단어의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는 'ㅂ살'이었습니다(원래는 'ㅃ'에 '아래아'입니다. 햏 상이라 글꼴이 깨지는군요.) '쌀'이 어두에 'ㅂ'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림유사>라는 송나라 때의 책을 보면 '쌀'을 '보살(菩薩)'로 표기한 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햏+ㅃㅏㄹ'에서 'ㅂ'이 앞의 '햏'의 받침 소리로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ㅂ'이 단어에 흔적을 남긴 경우를 특별히 '화석형'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쓰기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규정에 나와 있으니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273	어문 규정	‘햏음’과 ‘햏슴’	명사형은 ‘-ㅁ/-음’으로 됩니다. 앞에 받침이 없을 경우 ‘햏교에 햏’과 같이 ‘ㅁ’으로, 받침이 있을 경우는 ‘햏을 먹음’과 같이 ‘-음’으로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햏음’이 맞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274	어문 규정	‘햏치민’, ‘햏찌민’	외래어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베트남어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햏음-햏음-햏음’의 3햏 대립을 보이기 때문에 된소리 표기를 허용합니다. 이에 ‘햏찌민’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북대 (송현주)
275	어문 규정	‘햏아비’ ‘햏애비’	‘햏아비’에서 ‘햏-’은 몇몇 명사 앞에 붙어 ‘햏이 없이 혼자뿐인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아비’는 명사로 ‘아버지’의 낮춤말입니다. ‘햏비’는 명사로 ‘도둑들의 은어로, 햏친 물건을 사는 사람’, ‘자연적인 암벽의 면을 갈아서 비문(碑文)을 새긴 비’, ‘상전이 사랑하는 계집중’의 뜻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사내’의 뜻을 표현할 때는 ‘햏아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276	어문 규정	‘햏과’[햏과/햏파]	‘햏과’의 발음은 사전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에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햏과]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였습니다.	경북대 (현영희)
277	어문 규정	‘햏으는’, ‘햏는’	어간의 받침이 ‘햏’인 경우도 ‘햏’인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므로 ‘햏으는’이 아니라 ‘햏는’이 바른 활용형이다.	한 국 방 송
278	어문 규정	‘foil’의 표기	금, 알루미늄 따위의 금속을 종이 같이 얇게 편 것으로 특히 요리나 포장에 쓰는 알루미늄박을 이르는 ‘foil’은 로마자 표기법 제2햏에 따라 ‘h’는 ‘햏’로 ‘f’는 ‘햏’로 표기하여 ‘햏일’로 표현하	청주대

			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79	어문 규정	가운뎃점 (매년 토 요일, 일 요일·공 휴일)	문의하신 문장은 의미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총 사흘을 의미한다면 모두 쉽표를 적는 것이 오히려 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뎃점을 사용한 이유는 일요일도 공휴일에 속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사님께서 확인하셨듯이 해당 법조문이나 공문을 쓴 곳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의도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80	어문 규정	두음법칙	'진갑용'의 '용'이 '龍'처럼 원음이 '룡'이라면 표기를 '진갑룡'이라고 하고 [진갑룡]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이 '用'처럼 원음이 '용'인 경우는 [진가룡]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성함에 '龍'자를 쓰신다니 쓸 때와 발음할 때 모두 '태룡'이 맞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81	어문 규정	띄어쓰기 1. 납기 일 까지 / 납기일 까지 2. 제 18 호 관련 입니다. 3. 하자 보수 중 / 하자 보수중	1. '납기일까지'가 맞습니다. 조사는 앞 말에 붙여 쓴다고 말씀 드렸는데 '까지'가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2. '의료원 제 18호 관련입니다.'가 맞습니다. '관련'은 명사이므로 앞 말에 띄어 씁니다. '이다'도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하자 보수 중'이 맞습니다. '중'은 명사이므로 앞 말에 붙여 쓰지 않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82	어문 규정	띄어쓰기 1. 오늘 은 날씨가 추울 듯하다 2. 어려운 일을 밥 먹듯 한다.	(1)의 '듯하다'는 의존명사 '듯'과 접사 '-하다'의 결합으로 구성된 보조용언으로 앞에 일반적으로 '동사/형용사 어간+은/는/ㄴ' 또는 '동사/형용사 어간+을/ㄴ' 등의 동사구가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 (2)의 '-듯 하다'의 경우 동사 어간+연결어미 '-듯(듯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먹-'에 붙여 써야합니다.	경북대 (최준)
283	어문 규정	로마자표 기와 외래어표 기의 차이	외래어표기법은 외래 낱말(차용 어휘)을 한글로 적는 데 따르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낱말 Sports를 스포츠로 적을 것이냐, 스포츠 또는 스포쓰로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일본 수도의 표기를 도오쿄오, 도쿄, 도쿄, 동경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지금 시	상명대

			행되고 있는 것은 1986년 1월에 정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도외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기준과 방법을 말합니다. 속리산을 Sogllisan, songnisan 중에서 어느 것으로, 사람이름 홍길동을 Hong Kil-dong, Hong Gildong 중에서 어느 것으로 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00년 7월 정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즉 외래어표기법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로마자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84	어문 규정	로마자표기와 외래어표기의 차이	외래어표기법은 외래 낱말(차용 어휘)을 한글로 적는 데 따르는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낱말 Sports를 스포츠로 적을 것이냐, 스포츠 또는 스포쓰로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일본 수도의 표기를 도오쿄오, 도쿄, 도꼬, 동경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적을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1986년 1월에 정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로마자표기법은 오늘날 우리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도외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기준과 방법을 말합니다. 속리산을 Sogllisan, songnisan 중에서 어느 것으로, 사람이름 홍길동을 Hong Kil-dong, Hong Gildong 중에서 어느 것으로 표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00년 7월 정부에서 고시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즉 외래어표기법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로마자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써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명대
285	어문 규정	발음하기 5,6월을 말 할 때 오뉴월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습니다. 즉 '六'은 '오륙십(五六十)'에서는 본음대로 '육'으로 소리가 나지만 '오뉴월(五六月), 유월(六月)'에서는 각각 '뉴, 유'로 소리가 납니다. 이때에는 속음대로 적습니다. 관련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6장 제52항입니다.	강원대

			52항은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규정으로 한자어의 음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속음이란 우리나라의 관용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본음 이외의 음을 이릅니다. 표의 문자인 한자는 하나하나가 어휘 형태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본음 형태와 속음 형태는 동일 형태소의 이형태(異形態)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십월’이 아니라 ‘시월’인 것도 이때에는 속음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예) 음력 유월은 무척 덥다./ 예년에는 시월에 태풍이 오곤 했지요.	
286	어문 규정	온점 사용법 ‘08.1.7. (월)’, ‘08.1.7 (월)’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쓰임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연, 월’을 마침표로 표시한 뒤에 묶음표를 사용하여 쓰면 됩니다. 즉, 날짜 표기는 ‘08. 1. 7.(월)’과 같이 써야 합니다.	청주대
1	문법	‘가 능 한 한’ ‘가능한’	가능한 한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가능한’ 다음에 ‘빨리’라는 부사가 있는 문장이므로 ‘가능한’이 수식할 단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한’이라는 명사를 써서 ‘가능한 한’으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청주대
2	문법 표현	‘강-’과 ‘깡-’	‘깡된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깡’은 ‘강’을 잘못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깡’이 아니라 ‘강’입니다. 접두사 ‘강’은 ‘강보리밥, 강조밥, 강된장, 강참숯’처럼 그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된장의 경우, 된장찌개를 끓일 때 건더기는 조금 넣고 된장을 많이 넣어서 되직하게 끓인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된장만 들어 있는, 다른 것은 섞이지 않은 된장찌개가 바로 강된장입니다. 요즘 우리말을 된소리로 발음하려는 경향 때문에 강된장이 깡된장이 된 건 아닌가 싶네요.	상명대
3	문법 표현	‘꼬집었다’와	‘김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에서 ‘꼬집어 말했다’라는 표현 같은데 ‘꼬집었다’	상명대

		‘꼬집어 말했다’	라는 표현이 맞는지 질문하였는데, 이 표현은 적절합니다. ‘꼬집다’는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살을 집어서 뜯듯이 당기거나 비틀다’, ‘분명하게 집어서 드러내다’, ‘비위가 상하게 비틀어 말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꼬집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4	문법 표현	‘나 봐’ ‘ㄴ가 봐’	‘-ㄴ가’는 어미로 1.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2. 주로 ‘-ㄴ가 하다’, ‘-ㄴ가 싶다’, ‘-ㄴ가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표현합니다. ‘-나’도 어미로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1. 하게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2. 주로 ‘-나 하다’, ‘-나 싶다’, ‘-나 보다’ 구성으로 쓰여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3. 해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군대처럼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격식이 중요한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4.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청주대
5	문법 표현	‘나름’에 대하여	요즘 우리 말버릇 가운데 아래와 같이 ‘나름’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나름 재미있다. - 나름 잡아본 계획이야. -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나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나름’의 쓰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름’은 의존명사로 명사나 어미 ‘-기’, ‘-을’ 뒤에 ‘이다’와 함께 쓰여 그 됄됨이가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거나 각자 가지고 있는 방식이나 껌냥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책도 책 나름이지, 네가 열심히 하기 나름이다’ 등처럼 사용됩니다.	상명대
6	문법 표현	‘내 다 보고 준비하는’에 대하여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질문하였는데, 이는 ‘1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고’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상명대

			놓는 연결 어미이고, ‘-며’는 ‘-고’와 동일한 의미 이외에 ‘-면서’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내다보다’와 ‘준비하다’는 각각의 동작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동작이라는 점에서 ‘-고’보다 ‘-면서’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7	문법 표현	‘냅 뒤’에 대하여	‘냅뒤’와 ‘내비뒤’는 ‘내버려 뒤’의 줄임말 형태이지만 표준어로 인정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속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비속어란 격이 낮고 속된 어감을 주는 것인데, 이 말은 예를 들어, "돈 좀 빌려줄까?"라는 말의 대답으로 "냅뒤, 아직 돈 있어"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재 오늘 하루 종일 침울하다."라는 말의 대꾸로 "내비 뒤. 뭐 속상한 일이 있나 봐."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 비속한 느낌은 들지 않고 다만 사투리 어감을 줍니다.	상명대
8	문법 표현	‘대 해’, ‘대하여’	‘하다’ 동사 뒤에 어미 ‘-여’가 붙어 된 형태인 ‘하여’는 보통 그 형태가 줄어져 ‘해’로도 잘 쓰입니다. 그러므로 ‘못하여’와 ‘못해’, ‘...에 대하여’와 ‘...에 대해’는 같은 말로 봅니다.	전주대 (박지학)
9	문법	‘되 어 지 다’	영어의 수동태를 과장되게 본판 것처럼 보이는 "되 어 지 다"와 영어의 복수를 본판 것으로 보이는 "들" 이 있습니다.	경북대 (박유진)
10	문법 표현	‘들’	접미사로 쓰이는 ‘들’은 일단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는 반면 보조사로 쓰이는 ‘들’은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는 차이가 있고 그 기능도 다릅니다. 둘을 예를 들어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접미사 ‘-들’의 예(그들 너희들, 사람들) 보조사 ‘-들’의 예(어서들 가세요, 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들 있어라./다들 떠나갔구나./다 떠나들 갔구나./ 아이들부터 태웁시다. /안녕들 하세요?) 즉, 접미사 ‘-들’은 ‘-들’이 붙는 어근이 복수임을 나타내지만 보조사 ‘-들’은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냅니다.	경상대 (이진은)
11	문법	‘만나 다’ 자동사?, 타동사?	‘만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 양쪽으로 쓰입니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 - 타동사 우연히 길거리에서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 자동사	국 어 단 체 (남영신)

12	문법 표현	‘맞는’과 ‘맞은’	용언에 ‘-ㄴ/은/는’이 결합해 관형어를 만들 수 있는데, 형용사일 때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ㄴ/은’을 결합하고, 동사일 때는 ‘-는’을 결합합니다. ‘맞다’는 동사이므로, ‘-는’과 결합해, “맞는 답이 뭐예요?”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낼 때는 동사이더라도 ‘-은’과 결합합니다. 그러므로 “30점 이하로 맞은 아이는 밖으로 나가라.”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주대 (박지학)
13	문법	‘무르다’ 의 품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동사 ‘무르다’는 “굳은 것이 물렁거리게 되다.”라는 의미이며 형용사 ‘무르다’는 “물기가 많아서 단단하지 않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만 위의 ‘떡이 무른다.’에서는 활용형에서 어미 ‘-ㄴ다’와 결합된 것을 통해 동사 ‘무르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의 경우 ‘-ㄴ다’ 및 ‘-는’과 결합하지 못합니다.	경북대 (최준)
14	문법	‘미시오’, ‘미세요’	‘미시오’는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미시오, 가시오, 서시오’처럼 일반적인 명령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지요. 이런 의미를 글이 아닌 말로 표현할 때에는 상대에 따라서 ‘밀어라, 밀게, 미오, 미십시오’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결론: 표지판이나 안내판에 ‘미시오, 단으시오, 서시오, 가시오, 오시오’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국 어 단 체 (남영신)
15	문법 표현	‘불려지 다’	‘부르다’의 피동형은 ‘불리다’인데 이것을 ‘불려지다’와 같이 이중 피동형으로 만들 때가 많다. ‘불리다’ 만으로도 충분하며, ‘불려지다’는 잉여적인 부분이 첨가된 표현으로 어법에도 맞지 않는다.	한 국 방 송
16	문법 표현	‘비단’	- 비단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 비단 이 일만은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틀렸다고보다는 어색합니다. ‘비단’ 뒤에 부정어만 오면 맞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단’보다 더 잘 쓰는 ‘오직’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비단’은 그것을 한정한다는 뜻을 가진 ‘만’이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7	문법 표현	‘빠쏜다’ 와 ‘빠답	흔히 아이들이 부모를 다했을 때, ‘빠다 박았다’ 또는 ‘빠박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말들	상명대

		다'	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생김새나 성품 따위를 그대로 닮았다는 뜻으로 사전에 있는 말은 ‘뻘뻘다’입니다. 이와 똑같이 뜻을 가진 낱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뻘쫘다’입니다.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았다는 뜻의 우리말이죠. ‘딸이 엄마를 뻘쫘어’, ‘아들이 아버지를 뻘쫘다’ 등을 예가 되는 문장으로 들 수 있겠네요.	
18	문법 표현	‘뻘쫘다’와 ‘뻘뻘다’	흔히 아이들이 부모를 닮았을 때, ‘뻘다 박았다’ 또는 ‘뻘박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말들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생김새나 성품 따위를 그대로 닮았다는 뜻으로 사전에 있는 말은 ‘뻘뻘다’입니다. 이와 똑같이 뜻을 가진 낱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뻘쫘다’입니다. 성격이나 모습이 꼭 닮았다는 뜻의 우리말이죠. ‘딸이 엄마를 뻘쫘어’, ‘아들이 아버지를 뻘쫘다’ 등을 예가 되는 문장으로 들 수 있겠네요.	상명대
19	문법 표현	‘사사하다’와 ‘사사받다’	‘사사하다’가 맞습니다. ‘사사하다’는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이란 의미입니다.	상명대
20	문법 표현	‘세련되어지고’	‘되어지다’ 역시 ‘되다’라는 피동의 표현에 ‘-어지다’라는 피동의 어미가 덧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지 않은 표현이다.	한 국 방 송
21	문법	‘수’의 성분	‘나는 할 수 있다.’와 ‘나는 할 수가 있다.’에서 ‘수’와 ‘수가’의 문장 성분은 주어로 똑같습니다. 다만 앞 문장에서 ‘수’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었을 뿐입니다. ‘수’는 주어로만 쓰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2	문법	‘시’의 남용	"TV가 어떻게 안 되십니까?" 주어를 고객님으로 봐야 할지.. TV로 봐야할지 ..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맞는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TV가 어떻게 안 됩니까? " 라고 하여야 합니다. ‘시’는 문장의 주어(주어가 가리키는 사람)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설마 'TV'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 어 단 체 (남영신)
23	문법 표현	‘씨라’와 ‘쓰라’	‘-어라’형은 상대가 특정한 사람이거나 분명할 경우에 쓰며, 상대를 낮추는 형식입니다. 반면에 ‘-으라’형은 주로 상대가 특정하지 않거나, 또는 제3의 위치에 떨어뜨려 놓고 말할 때 쓰는 형식이며, 적극적으로 낮추는 뜻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를 중화형태라 부르기도	상명대

			합니다.	
24	문법 표현	‘있다’와 ‘였다’	‘그는 상처투성이였다/ 상처투성이였다’ 중 ‘상처투성이였다’가 맞습니다. ‘상처투성이’에 서술격 조사 ‘이다’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한 말로서 ‘이였다’에서 ‘이’가 줄어들어 ‘였다’가 되므로, ‘상처투성이였다’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상명대
25	문법	‘에 위반하다’와 ‘을 위반하다’	1. ~에 위반하다. ~을 위반하다. 학교에 귀고리를 하고 오는 것은 교칙에 위반된다. 상부의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이오. 위의 예와 같이 '~에 위반되다. ~을 위반하다'라고 써야 합니다. 2. 위반한 사람, 위반한 행위 '법률을 위반한 사람, 법률에 위반된 행위'와 같이 '위반한 사람', '위반된 행위'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3. ~에 위반된 행위, ~를 위반하여 한 행위 위 두 표현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서은영)
26	문법	‘에’의 용법	1) 제15조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 - 조사 ‘에’는 서술어 ‘있다’와 어울려 쓰입니다. 만약 ‘제 15조에 ~있다’로 구성이 된다면 ‘에’가 쓰이는 것이 옳지만 여기에서는 ‘에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2)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않은’은 과거형이 맞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라면 지금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고, ‘않는 자’가 되면 앞으로 벌금을 납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3) ~조항을 ~사람에 준용한다. - 조사 ‘에’는 유정명사 뒤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를 써야 합니다.	경북대 (현영희)
27	문법 표현	‘영향을 미치다’와 ‘영향을 끼치다’의 차이	'미치다'의 뜻은 "[...에/에게 (...을)]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이고, '끼치다'의 뜻은 "[...에/에게 ...을]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입니다. 이처럼 '끼치다'와 '미치다'는 사전적인 의미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나타나는 환경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상명대
28	문법 표현	‘예쁜’ 언니의 동	‘예쁜’이 ‘언니’만을 수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질문자의 의도와 같이 표현이 되기	이화여대

		생	위해서는 표현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예쁜 언니, 그 언니의 동생'처럼 표현하여 '수식의 사정거리'를 벗어나도록 '언니만 예쁠 수 있도록 (?)' 표현 해야 할 것입니다.	(박창원)
29	문법	‘온 존 하다’ 자동사?, 타동사?	'온존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중하게 잘 간직하다'의 뜻으로는 타동사가 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음'의 뜻으로는 자동사가 됩니다. 타동사: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온존하고 있는 편이다. 자동사: 우리에게는 아직도 서로 불신하는 문제가 온존해 있다.	국 어 단 체 (남영신)
30	문법 표현	‘우리 학교’, ‘저희 학교’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쓰면 된다. 교수님이나 학생이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쓰면 학생과 교수 둘 다 낮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 교수님과 이야기할 때는 교수님이 다른 집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낮은 지위의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는 낮추어서 ‘저희 학교’라고 하면 된다. ‘우리’를 쓸 것인지, ‘저희’를 쓸 것인지는 상대방과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지,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경북대 (홍미주)
31	문법 표현	‘육 개 월 (6개월)’과 ‘유월 (6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 단위어사전을 찾아보면 개월, 월, 달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월(個月) [개(:)월] 【의존명사】 [수를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이어] 달의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즉, "몇 달의 기간"을 나타낸다. 대체로 30일이거나 31일을 하나치로 그 수를 센다. 한자말로는 삭(朔)이라고 한다. [예문] 우리들은 육 개월 전에 결혼했고 이리로 이사 온 지는 석 달이 되었다. 월(月) 【명사】 [Ⅰ]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어] 한 달. [예문] 방이 무척 깨끗할 거라는 할머니는 보증금 10만 원에 월 1만 5천 원만 받겠다고 했다./직별 교육 계획표에 따라 직별로 월 1회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Ⅱ]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의존적으로 쓰이어] 일년을 열둘로 나눈 것의 하나 또는 그 수를 세는 데 쓰는 말이다. 양력으로는 한 달이	전주대 (박지학)

			30일 또는 31일이고, 음력으로로는 29일이나 30일 된다. [예문] 칠월이면 이제 한 달포 남았소./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때가 4월이고, 춘곤증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도 4월이다.	
32	문법 표현	‘-은 것 같다’	‘-은 것 같다’는 비문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많이 쓰는데, 강하게 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또는 겸손하게 그리고 소극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33	문법 표현	‘의’와 ‘에’	조사 ‘에’는 기본적으로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조사 ‘의’는 앞 체언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아울러 조사 ‘의’는 첫음절에서 ‘의’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로, 조사일 때 ‘에’로 발음합니다.	상명대
34	문법 표현	‘이름을 호명하다’	‘이름을 호명하다’는 같은 의미의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된 것이다. ‘호명(呼名)’이라는 말 안에 이미 ‘이름’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이름을 부르다’ 또는 ‘호명하다’ 중에서 하나를 쓰는 것이 맞는다.	한 국 방 송
35	문법 표현	‘있어서의’	‘일본법에 있어서의 담보’ ‘~에 있어서’는 일본어 투의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법에서의 담보’ 또는 ‘일본법의 담보’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36	문법	‘젊은 때’, ‘젊을 때’	‘젊은 때는’과 ‘젊을 때는’라는 표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젊은 때 사진이다’, 혹은 ‘젊을 때 사진이다’로 바꾸어도 의미 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과 ‘을’은 관형절에서 완료와 미완료라는 대립되는 상형태이지만 ‘은’과 ‘을’을 사용한 ‘젊은 때’와 ‘젊을 때’가 통용되는 이유는 ‘젊을 때’의 ‘을’이 ‘-었을’의 기능까지 확장하여 가지게 되어 ‘-었을’이나 ‘은’이 와야할 자리에 무리 없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사진이다’는 ‘젊은 때 사진이다’로 대체되고, 원래는 ‘미완을 나타내는 상형태’인 ‘을’이 쓰일 수 없지만 ‘-었을’과 ‘을’이 통용되어 ‘젊을 때’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상대 (이유미)

37	문법 표현	‘조언의 말씀’	‘조언(助言)’은 ‘도움을 주는 말’이라는 뜻으로 그 안에 이미 ‘말’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으므로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한 국 방 송
38	문법 표현	‘지’와 ‘안’	영화를 안 본 지 오래 되었어요. vs 영화를 본 지 오래 되었어요. '영화를 안 본 지 오래 되었다 '는 안 본 기간이 오래됨을 말하고, '영화를 본 지 오래 되었다 '는 영화를 본 경험이 오래됨을 말하고 있어 결국은 같다는... 이거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린 게 맞아요? 제대로 된 결론 맞습니다. ‘~ 오래 되지 않았어요’라야 전체 문장의 부정문이 되고요. 결론 내리신 대로 두 문장은 ‘영화를 오래 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두 문장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를 본 지 오래되었어요.’는 이 뜻 외에 ‘영화를 보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어요.’의 의미도 있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39	문법 표현	‘쪽’의 과 잉 사용	요즘 문장을 보면요, "쪽(혹은 측)"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쪽 의 지원이 절실하다. 박지성쪽 의 실력이 더 낫다. 교육부측 이 결정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장에선 굳이 쪽이나 측을 붙일 이 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쪽(측)의 올바르게 적절한 활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쪽’은 의존명사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 나는 쪽을 보 다/시장이 있는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번 경기에선 이긴 쪽이 결승전에 올라간다./ 운동 경기에선 대개 약한 쪽을 응원하게 된다.’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대
40	문법 표현	‘칠 칠 맞 다’와 ‘칠 칠 맞 지 못하다’	‘칠칠-하다’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 입니다. 1. 푸성귀 따위가 길차다. 2. 주접이 들지 않고 깨끗하다. 3.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 이 중 문의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뜻은 3번의 뜻입니다.	경상대 (이유미)

			'칠칠'뒤에 결합하는 '맞다'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또는 어근 뒤에 붙어』 '그 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칠칠맞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는 뜻이 되고 '칠칠맞지 못하다'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드라마의 장면에서 남자가 할 말은 '칠칠하다' 또는 '칠칠맞다'가 아닌 '칠칠맞지 못하다', '칠칠치 못하다'가 맞습니다.	
41	문법 표현	‘하게 하다’와 ‘-시하다’, ‘-시여기다’	‘-시(視)’와 ‘여기다’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두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같은 의미가 겹치므로 하나만 씁니다. ‘약속을 중요시 여기다.’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42	문법 표현	‘함양한다’와 ‘함양시킨다’	‘함양한다’가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함양하다’는 능력이나 품성을 기르고 닦도록 하는 것이므로 굳이 ‘시키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경상대 (이진은)
43	문법 표현	‘해하다’에서 일본어 냄새가 나는데 맞습니까?	질문하신 ‘해하다’는 현재 표준어이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하다’는 사용 빈도가 낮은 말이며, ‘해치다’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일본어에도 ‘해하다’에 해당하는 ‘害する’가 있습니다.(‘する’는 우리말의 ‘-하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도 ‘害’에 접사 ‘-하다’나 ‘-치다’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본어도 ‘害’에 접사 ‘する’가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하다’가 ‘害する’의 영향을 받은 일본어투인지 살펴보려면 어느 나라 자료에 먼저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하다’는 15세기에 이미 사용되던 어휘로서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북대 (송지혜)
44	문법 표현	‘행복하세요’	‘행복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만,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는 말(의문형)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상명대 (전영옥)
45	문법 표현	‘형용사’의 명령형	형용사라는 것이 어떤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앞으로 그 사물이 그 상태를 유지하라거나 다른 상태로 바뀌라는 의미로 명령문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형용사를 동사처	국어단체 (남영신)

			럼 쓰는 낱말이 늘고 있습니다. * 아버님, 행복하세요.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조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보면 형용사 가운데는 동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언어라는 게 딱 부러지게 어떤 원칙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특수 형용사에는 이런 용법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법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인사말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사말의 주된 내용이 서술어에 있지 않고 부사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 아버님, 행복하게 사십시오. * 어머님, 부디 건강하게 사십시오. * 조국이여, 영원히 존재하여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를 생략하고 부사어로 종결하면 문법적으로도 잘못이 없고 화자의 생각도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높임법의 문제나 생략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버님, 행복하게. * 어머님, 건강히. * 조국이여, 영원히.	
46	문법 표현	조사 ‘의’와 ‘에’	조사 ‘에’는 기본적으로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고, 조사 ‘의’는 앞 체언이 관형사 구실을 하게 하며, 뒤 체언이 나타내는 대상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아울러 조사 ‘의’는 처음절에서 ‘의’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이’로, 조사일 때 ‘에’로 발음합니다.	상명대
47	문법 표현	타당하지 만 알아 봐	정상적인 표현 '타당하지 않지만 해 봐'라는 표현을 비정상적으로 줄이면서 부정어의 위치도 달라져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어렵고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화 여 대 (박창원)
48	문법	한자어의 형태소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글자마다 본래의 뜻이 있지요. 따라서 한자는 한 글자가 곧 형태소입니다. '축구'는 '축'과 '구'라는 의존 형태소가 합성한	국 어 단 체 (남영신)

			단어이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형태소를 분석합니다. 여/자/가 축/구/를 하/ㄴ다	
1	어휘	'넣다'와 '담다'	'넣다'와 '담다' 둘 다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되어 헷갈린다고 하였는데, 이 둘은 사전의 뜻풀이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담다'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다', '어떤 내용이나 사상을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하거나 반영한다.'에 사용하고, '넣다'는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 '다른 것에 섞거나 타다', '어떤 범위 안에 들어 있게 하다', '사이에 어떤 것을 끼우거나 위에 어떤 것을 입혀 서로 어우러지게 하다', '어떤 단체나 학교, 직장 따위에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하다'에 사용합니다.	상명대
2	어휘 발음	'뵈다'의 발음	한글 표준 발음법 제4장 10항에 보시면, 겹받침 'ㄸ', 'ㅌ', 'ㄹ', 'ㄴ',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뵈다'는 자음 앞에서 [뵈]으로 발음하고, '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뵈]으로 발음한다. (1) 뵈다[뵈:따] 뵈소[뵈:쏘] 뵈지[뵈:찌] 뵈는[뵈:는→뵈:는] 뵈게[뵈:게] 뵈고[뵈:꼬] (2) 뵈-죽하다[뵈쭈카다] 뵈-둥글다[뵈똥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뵈따]로 발음하셔야 맞습니다.	경북대 (김유진)
3	어휘	'스폰서'의 순화어	'후원자'나 '광고 의뢰자'로 쓰시면 됩니다. '행사, 자선 사업 따위에 기부금을 내어 돕는 사람'의 의미라면, '후원자'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고주'의 의미라면, '광고 의뢰자'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김유진)
4	어휘	'3등'의 고유어	1,2,3 등을 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으뜸, 버금이라고 하는데 3등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딸림상, 돌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딸림상에서 '딸리다'라는 말에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있다는 의미가 있어 '돌움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경상대 (이유미)
5	어휘	'20위권 내'	'20위권'이라고 하면 1위부터 20위까지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어떤 기업의 영업 실적이 전국적으로 20위권에 들었다면 20위, 19위, 18위 등으로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10위권이라는 말	국어 단 체 (남영신)

			도 있으므로 20위권이라고 하면 1위부터 10위까지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은 앞의 명사가 지시하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수도권, 세력권, 공산권 등에서 쓰인 '-권'이 그런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20위권 내'라는 말은 '20위권'과 같은 말인데 강조 어법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20위권 밖'이라고 하면 21등 이하를 나타내므로 이에 대응하여 '20위권 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6	어휘	‘가족과 식구’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뜻하고 ‘식구’는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방송
7	어휘	‘개펄’ ‘갯벌’	‘개펄’은 ‘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을 뜻합니다. 여기서 ‘개흙’이란 ‘갯가나 늪 바닥 등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흙’을 말합니다.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을 뜻하는데 여기서 ‘모래톱’이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덮여 있는 벌판’ 즉, ‘모래벌판’을 뜻합니다. 쉽게 ‘모래사장’이라고 합니다.	청주대
8	어휘	‘개펄’ ‘갯벌’	사전의 뜻을 보면 ‘개펄’은 ‘갯가의 개흙 깔린 벌판’이고, ‘갯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사장. 또는 그 주변의 넓은 땅’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김경렬)
9	어휘	‘거치다’ ‘걸치다’	‘거쳐서’와 ‘걸쳐서’의 기본형은 각각 ‘거치다’, ‘걸치다’입니다. ‘거치다’는 ‘무엇에 걸리거나 막히다’, ‘마음에 거리끼거나 꺼리다’,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 등의 의미로 사용하며, ‘걸치다’는 ‘지는 해나 달이 산이나 고개 따위에 얹히다’, ‘일정한 횟수나 시간, 공간을 거쳐 이어지다’, ‘가로질러 걸리다’,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얹어 놓다’, ‘옷이나 착용구 또는 이불 따위를 아무렇게나 입거나 덮다’ 등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가 있는 ‘개발 기간을 거쳐서’로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0	어휘	‘걸히다’	‘걸히다’는 ‘걸다’의 피동으로 ‘걸음을 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안개가 걸린다.’와 ‘외상값이 잘 걸린다.’는 피동으로 쓰이는 예로써 올바른 표	청주대

			현입니다. ‘걷다’의 형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태 ‘걷다’는 감아서 올리거나, 감아서 위에 걸다의 의미로 ‘저고리 소매를 걷다’의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깔려 있는 것을 접거나 개키다 또는, 주워 모아 정리하다의 의미로 ‘마당에 깔 명석을 걷다’의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걷다’는 거두다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형태의 ‘걷다’는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면서 나아가다의 의미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의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다의 의미로 ‘우리 경제는 이제 바야흐로 항상 일로를 걷기 시작하였다’의 예문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걷다’의 형태는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어져 없어지다의 의미로 ‘구름이 걷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의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11	어휘	‘결혼’과 ‘혼인’	‘결혼(結婚)’이 일본에서 들어온 한자 차용어라는 말이 있으나, 그 말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혼인(婚姻)’은 15세기에도 많이 쓰였으나 ‘결혼’은 17세기 자료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결혼’이 뒤에 나타나서 쓰인 낱말이기는 하지만 시기를 보아 일본식 한자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2	어휘	‘경축’	‘경축’을 나라의 경사에만 쓰는 것입니까? ‘경축’이라는 말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한다는 뜻을 가진 말로 나라에서만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주시청에서 써도 무관합니다.	경상대 (조규태)
13	어휘	‘곡해’, ‘왜곡’, ‘오해’	‘곡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 ‘오해’는 의도적이지 아니라는 것,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상대 (김용석)
14	어휘	‘곤색’	‘곤색’은 한자어 ‘감’의 일본식 발음 ‘곤’에 ‘색’을 붙인 말입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곤색’을 ‘감색, 검남색, 진남색’으로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색’을 쓰지 말고 ‘감색, 검남색, 진남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15	어휘	‘곤욕’과 ‘곤혹’	‘곤욕’과 ‘곤혹’ 중 곤란한 상황을 당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모욕이나 또는 참기 힘든 일은 ‘곤욕’이라고 하고, 곤란한	상명대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를 ‘곤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곤혹’이 올바른 표기입니다.	
16	어휘	‘과반수’	“00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된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 00 위원이 10명인 경우 위촉되려면 찬성하는 사람이 5명을 넘으면 됩니까? 6명을 넘어야 됩니까? 과반수(過半數)는 반수를 넘어야 합니다. 반수는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찬성하는 사람이 최소한 6명은 되어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7	어휘	‘광’	‘광’은 방언이 아닌 표준어입니다. ‘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예) 벚섬을 광에 가득히 쌓아 올린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광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광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이 속담은 ‘제 살림이 넉넉하고 윤택하여야 남을 동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경상대 (이유미)
18	어휘	‘괜찮다’의 어원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의 뜻으로 쓰이는 ‘괜찮다’에 대한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말씀하신, ‘空然+ ㅎ[爲]-+-지[어미]+ 아니[不]+ ㅎ[爲]-+-다[어미]’와 같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하다’의 준말로써 ‘괜하다’가 있으므로 ‘괜찮다’의 어원으로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증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조선 중기 당쟁 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며 ‘관계치 않겠다’는 말 ‘關係+ ㅎ[爲]-+-지[어미]+ 아니[不]+ ㅎ[爲]-+-다[어미]’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괘념치 않다’ ‘掛念+ ㅎ[爲]-+-지[어미]+ 아니[不]+ ㅎ[爲]-+-다[어미]’를 어원으로 보는 견해 등도 있지만, 이들 모두 축약 과정의 설명에 있어서 무리가 따릅니다. 그 증거도 확실치 않아서 명백히 "이것이 '괜찮다'의 어원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경북대 (김유진)
19	어휘	‘구리’, ‘가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찾아보니 ‘구리, 가리’는 접미사가 아니라 한 단어의 일부분일 뿐이고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리’가 들어간 단어(구리다, 아가리, 대가리, 턱주가리 등)가 대	경북대 (홍미주)

			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멋대가리, 맛대가리, 재미대가리’에서 쓰이는 ‘-대가리’는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입니다.	
20	어휘	‘구입하다’와 ‘사다’	우리말에서 ‘구입하다’는 ‘사들임’, ‘사들이기’로 순화된 단어입니다. 이는 ‘물건 따위를 사서 들여오다.’ 정도의 의미이고 ‘사다’는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듦다.’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를 완전히 동의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명대
21	어휘	‘굴착’과 ‘굴삭’	‘굴삭기’는 일본에서 온 말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를 ‘굴착기’로 순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굴착기’로 쓰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장충덕)
22	어휘	‘귀걸이’, ‘귀고리’	원래는 여자들이 장식으로 뒤에 다는 것은 ‘귀고리’이고, 귀가 시리지 않도록 귀에 거는 물건이 ‘귀걸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식으로 다는 ‘귀고리’ 대신에 ‘귀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서는 ‘귀고리’의 의미인 ‘귀걸이’를 인정하여 복수표준어로 등재하였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23	어휘	‘귀걸이’, ‘귀고리’	‘귀걸이’와 ‘귀고리’의 뜻은 ‘귀에 거는 장신구’로 같은 뜻을 가집니다. 귀고리는 표준어이고 귀걸이는 복수표준어로 인정되어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경북대 (박유진)
24	어휘	‘기왕이면’과 ‘이왕이면’	‘(기왕이면/이왕이면) 더 좋은 것으로 사~’라고 말할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왕’은 ‘이미 지나간 이전’을 뜻하고, ‘이왕’은 ‘지금보다 이전’을 뜻합니다. 즉 이 둘은 의미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상명대
25	어휘	‘까맣게’와 ‘하얗게’	‘까맣게 잊고 있었다.’처럼 쓰는 것이 관용표현으로 옳습니다. ‘잊다’는 ‘까맣게’와 호응합니다. ‘하얗게 잊다’는 아직 관용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얗다’는 ‘질리다’와 호응합니다. 예컨대 ‘얼굴이 하얗게 질린 표정을 하고 있다.’처럼 쓰면 됩니다.	국 어 단 체 (남영신)
26	어휘	‘깨춤을 춘다’	‘깨춤’은 원래 깨를 볶을 때에 깨가 툭툭 튀는 모양에서 유래하여, 체구가 작은 사람이 방정맞게 까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깨춤(을) 춘다’라는 관용어구는 ‘몸이 작은 사	경북대 (송지혜)

			람이 툭툭 까불어 대다.’를 의미합니다. 소설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례가 보입니다. * 천지도 모르고 깨춤을 추면 어떡하나? 집안도 어렵다면서. <조성기, 에텐의 불칼>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깨춤을 추더마는 꼴 좋다. <박경리, 토지> 이 표현은 행동이 경망(輕妄)함을 의미하여 경만(輕慢)한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	어휘	‘나쁘다’ 와 ‘해롭다’	‘건강에 나쁩니다/ 해롭습니다’ 중 맞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롭다’는 ‘해가 되는 점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나쁘다’는 ‘좋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건강 따위에 해롭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건강에 해롭다’나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와 같이 쓰여 ‘건강’과 관련된 표현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두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
28	어휘	‘나투다’	‘나타내다’의 고어적 표현이다. 점잖게 말할 때, 혹은 문어적 표현에서 더러 씁니다.	경북대 (백두현)
29	어휘	‘내일’의 우리말	현재는 그러한 단어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일(來日)’에 해당하는 순 우리말이 있었다고 봅니다. 송(宋)나라의 손목(孫穆)이 지은 고려 시대 자료인 <계림유사>에 “明日曰轄載”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자 표기이므로 현재 ‘轄載’의 소리를 ‘하제, 올제, 후제’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모레, 글피’ 등이 여전히 사용되는 반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 자료에 ‘내일’에 해당하는 순우리말 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30	어휘	‘냉큼’과 ‘닝큼’	‘냉큼’은 머뭇거리지 않고 가볍게 빨리 하는 행동을 가리키고, ‘닝큼’은 머뭇거리지 않고 단번에 빨리 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표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명대
31	어휘	‘너머’ ‘넘어’	‘너머’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고개 너머, 저 너머’에서처럼 공간이나 공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넘어’는 동사 ‘넘다’에 어미 ‘-어’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너머’는 산 뒤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산 넘어’는 산을 넘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32	어휘	‘너무’와 ‘매우’	‘너무’는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 ‘매우’는 ‘보통 정	상명대

			도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33	어휘	‘녕쿨/ 덩쿨 / 덩굴’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의 줄기’는 ‘녕쿨’ 또는 ‘덩굴’이라고 합니다. ‘덩쿨’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상명대
34	어휘	‘ 네 ’ 와 ‘예’	대답하는 말 ‘네/예’는 표준어 규정 제18항에 복수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 이전에는 ‘예’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서울말에서는 오히려 ‘네’가 더 보편적으로 쓰여 왔고, 계속 쓰이고 있으므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와 ‘예’의 의미 차이가 없으므로, ‘숙제 다 했니?’라는 질문에 ‘네’나 ‘예’로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35	어휘	‘노른자’와 ‘노른자위’	‘노른자’와 ‘노른자위’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노른자위’에는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노른자위’가 전통적으로 쓰이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노른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같은 뜻의 단어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36	어휘 어원	‘눈썹’의 어원	국어사 자료에서 ‘눈썹’이 소급하는 최초의 형태는 15세기의 ‘눈섭’입니다. 이 말은 ‘눈(眼)’과 ‘섧나무, 땀나무, 풀, 잡초’ 등의 뜻을 가진 ‘섭’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눈썹’은 합성어로 볼 수 있습니다. ‘섭’이라는 단어는 15세기 문헌인 <법화경언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섭’이 ‘눈썹’으로 된 것은 ‘눈’과 ‘섭’ 사이에 사잇소리가 개입한 것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37	어휘	‘늘리다’와 ‘늘이다’	‘늘이다’와 ‘늘리다’에는 ‘길게 한다’는 공통된 의미 때문에 두 말의 쓰임이 자주 혼동된다. 1> ‘늘이다’: 정해져 있는 길이에서 잡아당기거나 어떤 압력을 주어 길게 한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연설을 엇가락처럼 늘어 되풀이하는 바람에 청중들이 지루했다. 2> ‘늘리다’: 덧붙이거나 이어 길게 하거나 많이 한다. 예> 학생 수를 늘리다, 적군은 세력을 늘린 후 다시 침범하였다, 실력을 늘려 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재산을 늘려 부자가 되었다, 쉬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경북대 (홍미주)
38	어휘	‘늘리다’와 ‘늘이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주로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으로 하여)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의 뜻이 있으며, ‘고무줄을 늘	청주대

			이다/엿가락을 늘이다/선분 그늘을 늘이면 다른 선분과 만나게 된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리다’는 늘다의 사동형으로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다,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가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다, 재주나 능력 따위가 나아지다, 살림이 넉넉해지다, 시간이나 기간이 길어지다’의 뜻이 있으며 ‘바짓단을 늘리다/학생 수를 늘리다/시험 시간을 30분 늘리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39	어휘	‘늘리다’와 ‘늘이다’	‘시간을 늘리다’가 맞습니다. ‘늘이다’는 ‘길이가 있는 물체를 잡아당겨 본디보다 길게 하다’의 의미이고, ‘늘리다’는 ‘수나 양을 크거나 많게 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길이가 있는 물체’로 볼 수 없으므로 ‘늘리다’가 맞습니다. 즉 ‘시간을 늘리다’는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40	어휘	‘단도리’	‘단도리’는 일본어 ‘Tantori’에서 온 말로 우리 말로는 ‘채비’나 ‘단속’으로 순화되었다.	충북대 (김민옥)
41	어휘	‘단전’(질문??)	‘단전’은 보통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므로, 이 용어를 쓰시면 다른 전기까지 중단된다고 사람들이 혼동할 것 같습니다. ‘전화 불통(不通)’이나 ‘통신 두절(杜絶)’이 적절할 듯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42	어휘	‘답도리탕’, ‘답볶음탕’	‘답도리탕’은 일본어 ‘토리(tori)’가 사용된 말입니다. 발음상의 이유로 ‘답토리탕’이 아닌 ‘답도리탕’으로 사용하였는데, 우리말로 순화하여 ‘답매운탕’, ‘답볶음탕’으로 표현합니다. ‘볶다’는 ‘음식이나 음식의 재료를 물기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로 열을 가하여 이리저리 자주 저으면서 익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청주대
43	어휘	‘담그다’	‘김장’과 ‘김치’는 모두 담글 수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장’의 경우 ‘김장을 하다’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김치를 하다’는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44	어휘 (분류)	‘덤터기’와 ‘덤터기’	남에게 넘겨썩우거나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를 ‘덤터기’라고 합니다. 덤터기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상명대
45	어휘	‘동네’, ‘마을’, ‘고장’, ‘동리’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동리’는 ‘마을’과 같은 뜻이며, ‘지방 행정 구역의 최소 구획인 동(洞)과 이	청주대

		‘부락’	(里)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부락’은 ‘시골에서 여러 민가(民家)가 모여 이룬 마을, 또는 그 마을을 이룬 곳’으로 ‘마을’로 순화하여 쓰도록 합니다. ‘고장’은 ‘사람이 많이 사는 지방이나 지역’, 어떤 물건이 특히 많이 나거나 있는 곳’의 뜻이 있습니다.(답변 내용 단순)	
46	어휘	‘두 자매’	‘두’는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두 사람’, ‘사과 두 개’, ‘두 볼에 흐르는 눈물’로 띄어 써야 합니다. 질문하신 연극 제목 ‘두자매’는 ‘두 자매’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47	어휘	‘두텁다’, ‘두껍다’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같은 것이 굳고 깊은 것을 뜻하고 ‘신앙이 두텁다, 친분이 두텁다, 정이 두텁다’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반면에 어둠이나 안개, 그늘 같은 것이 짙은 것을 나타낼 때는 ‘두껍다’를 써야 한다.	한 국 방 송
48	어휘	‘뜬금 없다’	전라방언, 충청방언 등에 주로 쓰이다가 문학작품에 사용되면서 널리 쓰이게 된 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더 오래된 다른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경북대 (백두현)
49	어휘	‘띠다’ ‘띠다’	‘띠다’는 ‘뜨이다’의 준말입니다. ‘뜨이다’는 ‘감았던 눈이 열리거나 막혔던 귀가 뚫리는 것 같다’ 또는 ‘눈에 보이다’의 뜻으로 ‘원고에 오자가 눈에 띈다’의 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한 칸 띈다’와 같은 예도 볼 수 있습니다. ‘띠다’는 ‘띠를 감거나 두르다’, ‘물건을 지나다’, ‘용무나 사명을 가지다’, ‘표정이나 감정이 겉으로 좀 드러나다’, ‘사상적 빛깔이 좀 섞여 있다’의 의미로 ‘품에 칼을 띈다’, ‘중대한 임무를 띈다’, ‘붉은빛을 띈 저녁노을’, ‘미소를 띈 얼굴’, ‘비판적 성격을 띈 발언’ 과 같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청주대
50	어휘	‘말 마 떠나’	‘마 떠나’는 ‘말’ 뒤에 붙어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표현입니다.	충북대 (김민옥)
51	어휘 발음	‘맛있다’ 의 발음	‘맛있다’의 원칙적 발음은 [마딘따]이고,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마신타]를 허용합니다. ‘맛없다’는 원칙 발음이 [마덥따]이고 실제 발음도 같으므로 예외적인 허용 발음이 없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52	어휘 발음	‘맛있다’ 의 발음	[마신타/마딘따] 두 가지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53	어휘	‘맞추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청주대

		‘맞히다’	맞게 대어 붙이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 ‘어떤 기준에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다.’,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 ‘열이나 차례 따위에 똑바르게 하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의향 따위에 맞게 행동하다.’,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아니하다.’,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부탁을 하다.’, ‘다른 어떤 대상에 닿게 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말, 육감 따위가 틀림이 없다.’, “‘그렇다’ 또는 ‘옳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 ‘어떤 대상의 내용, 정제 따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 ‘크기, 규격 따위가 다른 것에 합치하다.’,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일치하다.’, ‘분위기, 취향 따위가 다른 것에 잘 어울린다.’의 뜻이 있습니다. ‘퀴즈의 답을 맞히다’가 옳은 표현이고 ‘퀴즈의 답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맞히다’에는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어서 정답을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맞추다’는 ‘대상끼리 서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져서 ‘답안지를 정답과 맞추다’와 같은 경우에만 씁니다.	
54	어휘	‘매 다’, ‘매다’	‘안전띠를 매다’가 맞습니다. ‘매다’는 ‘가방을 어깨에 매다’할 때 씁니다.	경상대 (이유미)
55	어휘	‘맨날’과 ‘만날’	‘만날’은 ‘일만 만(萬)+날’의 형태로, ‘아주 많은 날’ 또는 ‘수없이 반복되는 날’이란 뜻입니다.	상명대 (양영하)
56	어휘	‘무슨, 어느, 어떤’	먼저 ‘무슨, 어느, 어떤’은 용법이 정확히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개 중 무엇이든 써도 될 때가 있고 하나만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1. 먼저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에: 뒤에 명사가 오면 ‘무슨, 어느, 어떤’이 모두 쓰이지만 뒤에 대명사가 오면 ‘무슨’은 쓰이지 않습니다. 예) 어느 것(0), 어떤 것(0), 무슨 것(어색) 2.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슨’은 정해지지 않은 범위에서 하나를 고를 때, ‘어느,	경북대 (송지혜)

			어떤'은 주어진 것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주로 쓰인다고 보기도 하는데 체계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예) 이 중에 어느/어떤 책 볼래? ('이 중에 무슨 책 볼래?'도 가능한 듯^^) 3. 대상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에 뒤에 사물이 오면 셋 다 가능하나 사람이 오면 '무슨'은 쓰이지 않습니다. 예) 어느 선생님 (O), 어떤 선생님(O), 무슨 선생님 (어색) 4. 대상이 무엇인지 물을 때는 '무슨, 어떤, 어느' 모두 가능하지만,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을 물을 때는 '어떤'만 가능합니다. '어떤'은 '어떠하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과 '어느'의 차이점이지요. 예) 대상을 물을 때: 무슨 책, 어떤 책, 어느 책. 특성을 물을 때: 어떤 책. 그러므로 '어떤 학생'이라고 하면 이름을 말해도 되고 특성을 말해도 되지만, '어느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인지만 답하면 됩니다.	
57	어휘 발음	‘물고기’ [물 꼬기], ‘불고기’[불고기]의 발음	'물고기'는 명사로 어류의 척추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물꼬기]로 발음합니다. '불고기' 역시 명사로 쇠고기 따위의 살코기를 저며 양념하여 재었다가 불에 구운 음식 또는 그 고기로 [불고기]로 발음합니다. 복합명사와 사이시옷이 어울릴 때에는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시옷이 나타지 않는 경우는 'A가 B의 형상, A가 B의 재료, A가 B의 수단·방법, A가 B와 동격, A(유정언체)가 B의 소유주·기원'일 때로 '불고기'는 불이 고기를 요리하는 수단 및 방법으로 'A가 B의 수단·방법'에 해당합니다.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경우는 'A가 B의 시간, A가 B의 장소, A(무정체언)가 B의 기원·소유주, A가 B의 용도'일 때로 '물고기'는 물이 고기가 살고 있는 장소로 'A가 B의 장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중세어 '뿔고기'로 표기하던 것의 사이시옷이 '물+ㅅ+고기'와 같이 결합하여 현재 [물꼬기]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청주대
58	어휘	‘뿔미’	흔히 인터넷에서 쓰는 언어로 컴퓨터에 글자를 입력할 때 ‘뿔임’을 빨리 치다가 나온 오타 ‘뿔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뿔임’과 같습니다.	경북대 (현영희)
59	어휘	‘박이다’, ‘박히다’	둘 다 형태로는 피동형이지만 '박이다'는 자동사, '박히다'는 피동사로 분류합니다. '박이다'를	국어 단 체

			자동사로 분류하는 이유는 물리적 힘이 박은 결과가 아니라 자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히다'를 피동사로 분류하는 이유는 물리적 힘을 가하여 특정한 지점에 박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태도가 생활화했다면 '박이다'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랜 야당 체질이 몸에 박인 탓에 걸핏하면 반대를 하고 나선다.”	(남영신)
60	어휘	‘발달, 발전, 향상, 진보’	발달(發達)은 ‘신체, 정서, 지능 따위가 성장하거나 성숙함’, ‘학문, 기술, 문명, 사회 따위의 현상이 보다 높은 수준에 이름’, ‘지리상의 어떤 지역이나 대상이 제법 크게 형성됨. 또는 기압, 태풍 따위의 규모가 점차 커짐’의 뜻으로 쓰입니다. 발전(發展)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의 뜻으로 쓰입니다. 향상(發展)은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됨’의 뜻으로 쓰입니다. 진보(進步)는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의 뜻으로 쓰입니다.(단순한 답변)	청주대
61	어휘 발음	‘뽕다’의 발음	‘뽕다’와 [뽕따]가 표준 발음이므로, [발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표준 발음법 제10항에서 겹받침 'ㄸ, ㅌ, ㄹ, ㄴ,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ㅂ]으로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뽕다’의 ‘뽕-’은 ‘뽕아[발브니], 뽕으니[발바]’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 받침의 ‘ㄷ’도 발음될 수 있으나, ‘뽕다, 뽕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뽕따], [뽕쏘] 등으로 받침의 ‘ㅂ’만을 발음해야 합니다.	충북대 (김민옥)
62	어휘	‘방정하다’, ‘단정하다’	‘단정하다’는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얹전하고 바르다’는 뜻이고 ‘방정하다’는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는 뜻으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63	어휘	‘별이다’ ‘별리다’	‘별이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라는 뜻입니다. ‘별리다’는 ‘사이를 넓히거나 연다’라는 뜻입니다. 잔치는 경사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을 청하여 즐김, 또는	청주대

			그 일을 뜻하므로 ‘잔치를 벌이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64	어휘	‘본인상’ (질문?)	(아무개) ‘본인상’이라는 말은 표준어도 아니고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이름난 신문에서는 ‘작고, 별세’ 등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65	어휘	‘봉당’의 의미	‘봉당’은 ‘티끌’의 강원 방언, ‘토방’의 강원도, 충청북도의 방언입니다. ‘뜰’의 경기, 경북 방언이기도 하며,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66	어휘	‘부치다’, ‘붙이다’	‘편지를 부치다’, ‘우표를 붙이다’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편지를 부치다’할 때의 ‘부치다’라는 단어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편지, 학비, 용돈 등을 보내다’라고 할 때 ‘부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붙이다’는 ‘붙다’의 사동사로서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계시판에 메모를 덕지덕지 붙이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경상대 (이유미)
67	어휘	‘부치다’, ‘붙이다’	‘붙이다’는 ‘붙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부치다’는 역사적으로 ‘붙이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붙이다’는 ‘붙다’의 의미가 살아 있고 ‘부치다’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원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지라도 둘은 다른 뜻으로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빈대떡을 부쳐 먹는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68	어휘	‘분화’	‘분화’는 하나가 여러 개로 나뉘거나 단순한 것이 복잡하게 변하는 것으로 반대말로는 ‘합일’, ‘융합’ 등이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69	어휘	‘비구니’	‘비구니’라는 말에 승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비구니승’이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승려인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비구니승’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사전에 있는 ‘비구니’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대 (장충덕)
70	어휘	‘비속어’, ‘은어’	비속어란, ‘비어’와 ‘속어’로 이 둘 모두 ‘낮은 말’이라는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다. ‘비어’는 상스럽고 천한 말, ‘속어’는 속된 말, 즉 통속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은어란, 어	경북대 (현영희)

			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비속어와 은어는 비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다.	
71	어휘	‘빌 어’, ‘빌려’	남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믿고 기대는 것은 ‘빌리다’를 쓴다. ‘빌다’는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 달라고 간청하거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	한 국 방 송
72	어휘	‘사이즈’의 순화어	크기, 치수 등 맞춤새(옷감의 떨어진 부분.)	경상대 (이진은)
73	어휘	‘사회 구조’와 ‘사회 계층’	사회 분야 전문 용어로 쓰이는 ‘사회 구조’는 지위와 역할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나 행동 양식을 정하여 주는 사회적 정의나 틀을 이르는 말이고, ‘사회 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재산, 교육, 직업, 주택, 명성 따위의 기준에 의하여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와 ‘계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조’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이룬 짜임새를 이르는 말이고, ‘계층’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조’와 ‘계층’은 의미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전문 용어 ‘사회 구조, 사회 계층’의 뜻이나, 일반 용어 ‘구조, 계층’의 뜻을 고려하면, 보이신 문장은 ‘국어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계층인가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주대 (박지학)
74	어휘	‘삼 가 하 다’ ‘삼가다’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로 고쳐야 옳습니다. ‘삼가하다’는 ‘삼가다’에 ‘하다’를 잘못 덧붙여 쓰는 말입니다. ‘삼가다’는 ‘삼가(<-삼가-+-아), 삼가니(<-삼가-+-니), 삼가서(<-삼가-+-서), 삼갑시다(<-삼가-+-ㅂ니다)’와 같이 쓰이는 말로 ‘하다’를 덧붙여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예)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삼가합시다)	충북대 (김민옥)
75	어휘	‘서민’	‘서민(庶民)’이란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과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청주대

			비슷한 말로 ‘백민(白民)’과 ‘평민(平民)’이 있으며 ‘백민(白民)’이란 ‘아무 벼슬이 없는 백성’을 뜻합니다. ‘평민(平民)’이란 ‘벼슬이 없는 일반인’ 또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시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다만, 사전에 ‘서민’이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이란 뜻풀이로 인하여 그 반대의 의미로 대기업주주, 정치인들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민(市民)’이란 ‘그 시(市)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이 있는 사람’과 ‘서민’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76	어휘 어원	‘설키다’, ‘섞히다’	‘얼키설키’나, ‘엮히고설키다’란 말은 ‘일 따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음을 뜻한다’ 이런 뜻을 고려해 보면 ‘섞-’이란 말은 옛말 ‘섞-’ (받침으로 -ㅅ 사용되었음)을 잘못 발음하게 되었거나, ‘엮-’의 받침 ‘ㄹ-’에 동화되어 가상적인 형태 ‘섞-’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즉 ‘얼기섞기/ 얼기석기’가 ‘얼기설기’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경상대 (조규태)
77	어휘	‘속 어’, ‘속 되 게 이 르 는 말’	크게 보면 속어나 속된 말이나 속되게 이르는 말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상스럽게 이르는 말이나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조금 미세하게 따진다면 아래와 같이 변별하여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속어=속된 말: 처음부터 속된 표현으로 사용되는 말. 2. 속되게 이르는 말: 어떤 특정한 의미로 쓰일 때에 속된 표현이 되는 말. 예를 들면, '떡값', '계집'은 '떡을 사면서 치르는 돈'의 의미나 '여자'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속된 말이 아니지만, '너물'의 의미나 '아내'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속된 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떡값'이나 '계집'은 특정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의미로 무엇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게 됩니다.	국 어 단 체 (남영신)
78	어휘	‘술 지 기 미’	'술지기미'라는 말은 '술'과 '지기미'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때 '지기미'는 '지게미'의 경남 방언입니다. 지게미 : 1.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 재강에서	경상대 (이유미)

			모주를 짜내고 나면 남는다. 예) 먹을 것이 귀했던 예전에는 술을 거르고 난 후, 남은 지게미를 먹기도 했다. 2.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열기가 있을 때 눈가에 끼는 눈곱. 예) 입에서 술내가 나고 눈에서 지게미가 나오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하였다.《한용운, 흑풍》	
79	어휘	‘시설’	‘시설’에 열차나 비행기, 여객선 등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통 시설’이라고 하면 도로나 교량 등을 뜻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설’보다는 오히려 ‘교통 기관, 운수 기관’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송지혜)
80	어휘	‘시숙’, ‘시형’, ‘아주버니’, ‘시아주버니’	남편의 형을 시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형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에 따르면 시숙이나 시형이나 모두 남편의 형을 가리키고 남편의 동생을 가리킬 때에는 시동생이라고 하니까요. 누님의 남편을 자형이라고 하고 누이동생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해야 할 터이지만 실제로는 누님의 남편을 자형 또는 매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여동생의 남편은 매제라고 합니다.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단어의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단체 (남영신)
81	어휘	‘싸다’와 ‘누다’	‘누다’의 뜻은 "배설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다."이지만, ‘싸다’의 뜻은 "똥이나 오줌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누다."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화장실에서 정상적으로 배변을 했다면 "똥을 누다."가 되지만 어린 아이가 바지에 실수로 배변을 했다면 "똥을 싸다."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상명대
82	어휘 발음	‘ㅈ’와 ‘ㄱ’의 차이	‘ㅈ’는 좀 더 아래턱을 내리고(입을 상대적으로 크게 벌려서) 발음해야 하고, ‘ㄱ’은 입을 상대적으로 덜 벌려서 발음하는 것입니다. ‘ㅈ’ 발음이 ‘ㄱ’ 발음에 비해 입에 긴장감을 더 줍니다. 따라서 요즘은 ‘ㅈ’ 발음을 해야 할 때도 ‘ㄱ’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친구 분에게도 요즘은 ‘ㅈ’와 ‘ㄱ’의 발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글로 쓸 때는 다르게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대
83	어휘	‘아니다’	‘아니다’는 역사적으로 ‘아니+이다’가 결합된 말	경북대

	어원	어원	입니다. ‘이다’가 결합된 근거의 하나를 들자면 ‘아니다’는 활용할 때 모음으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에요’나 ‘예요’가 결합하지 않고 (아니 예요 ×) ‘예요’가 결합하여 ‘아니예요’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다’가 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송지혜)
84	어휘	‘아니요’, ‘아니오’	‘아니요’가 맞다. ‘아니요’는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 쓰는 말인데 이때 ‘아니요’는 ‘아뇨’로 줄여서 쓸 수 있다. 만일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대답할 때는 ‘아니’를 쓴다. ‘아니오’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이며, ‘아니요’는 ‘예/네’와 상대되는 말로서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하여 말할 때 쓰는 말이다.	경북대 (홍미주)
85	어휘	‘아 이 러 니’	‘아이러니’는 ‘모순’이나 ‘역설’로 순화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를 사용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충북대 (손대익)
86	어휘	‘안’과 ‘속’	‘속’은 ‘거죽이나 겉질로 싸인 물체의 안쪽 부분’, ‘일정하게 둘러싸인 것의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사람의 몸에서 배의 안 또는 위장’, ‘어떤 현상이나 상황, 일의 안이나 가운데’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은 ‘어떤 물체나 공간의 둘러싸인 가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또는 그런 곳이나 부분’, ‘일정한 표준이나 한계를 넘지 않은 정도’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속’의 반의어는 ‘겉’이고, ‘안’의 반의어는 ‘바깥’입니다.	상명대
87	어휘	‘애기’와 ‘아기’	표준어 규정 제2장 제2절 제9항에 따라 ‘ㅣ’모음 역행 동화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뽀내기, 냄비, 동대이치다’와 같이 일부 단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기’가 표준어입니다.(글의 흐름이 어색)	상명대
88	어휘	‘야채’ ‘채소’	야채를 일본식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에 관련된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둘 다 표준어로 보고 있는 ‘야채’와 ‘채소’에 대하여 ‘야채’가 ‘채소’의 일본식 한자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근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청주대
89	어휘	‘어두음’,	‘음’은 음운론적 단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음이	충북대

		‘어중음’, ‘어말음’	나 처음 음에 해당됩니다. ‘아버지’의 어두음은 ‘아’, 어말음은 ‘이’입니다. 음절은 대부분 글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말음절은 ‘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옥)
90	어휘	‘엄한’ 사람	‘엄한’은 ‘애티’를 잘못 쓴 말인 듯합니다. ‘애티’는 ‘애티하다’의 준말 ‘애티하다’의 활용형으로, ‘애티 나이, 애티 사람 욱 먹이지 마라, 애티 사람 다치게 하지 마라.’ 등으로 쓰입니다. 그 뜻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애티한 사람을 욱 먹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북대 (장충덕)
91	어휘	‘엇그저께’와 ‘엇저녁’에서의 ‘ㅈ’	한글맞춤법 제4장 제5절 제32항에 따라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제 그저께’는 ‘엇그저께’로 적고, ‘어제저녁’은 ‘엇저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상명대
92	어휘	‘엇그제’	어제의 전날은 ‘엇그제’가 아니라 ‘그저께’입니다. ‘엇그제’는 어떤 하루만을 의미하지 않고 ‘며칠 전’을 뜻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93	어휘	‘에게’ ‘한테’	‘에게’는 조사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냅니다.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입니다. ‘한테’도 조사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입니다. ‘에게’보다 더 구어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어떤 물건의 소속이나 위치를 나타냅니다. ‘에게’보다 더 구어적입니다.	청주대
94	어휘	‘에 뻔 무지로’	‘에 뻔무지로’는 부사로 ‘단단하게 뻔지 않은 모양’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먼 길을 떠날 것이니 에뻔무지로 뻔지 마시오.’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위의 뜻 이외에 ‘결과를 바라지 아니하고, 헛하는 셈치고 시험 삼아 하는 모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95	어휘	‘역전앞’	‘역전앞’은 ‘역전’ 또는 ‘역 앞’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전앞’이나 ‘역 앞’이나 의미는 다를 바 없습니다. 말씀하신 ‘역 옆’이나 ‘역 뒤’를 말할 때는 ‘역전 옆’, ‘역전 뒤’라고 표현하지	경북대 (송지혜)

			않습니다. 중복된 표현은 특별히 의미를 강조하는 때가 아니라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6	어휘	‘예치’와 ‘예금’	‘예치’는 ‘맡겨둠’이란 뜻으로 ‘맡김’이나 ‘예금’으로 순화하여 쓰고 있습니다.	충북대 (손대익)
97	어휘	‘오지랴’	오지랴이란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따르면 ‘옷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지랴이 넓다’라는 말은 앞자락이 넓은 옷은 그만큼 많이 다른 옷을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체님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지랴이 넓다’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이나 참견하는 면이 있다.’와 ‘염치없이 행동하는 면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경북대 (송현주)
98	어휘	‘옷걸이’ 와 ‘옷거리’	옷을 걸게 만든 가구를 옷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옷을 입은 맵시도 옷걸이로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맵시를 칭찬하는 말을 할 때는 ‘옷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친구에게 옷을 입은 맵시를 칭찬할 때는 “넌 옷거리가 좋아서 아무 옷이나 다 잘 어울려.”처럼 옷거리를 사용하셔야지, 옷을 거는 가구를 칭찬하서는 안 되겠죠?	상명대
99	어휘 발음	‘원 룼’, ‘인라인’, ‘온라인’, ‘아울렛’	표준발음법 제20항에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 룼’은 [월 룼], ‘인라인’은 [일라인], ‘온라인’은 [올라인]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또한 받침 ‘ㄱ, ㅋ, ㆁ,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ㅍ]으로 발음된다는 규정에 따라 ‘아울렛’은 [아울렌]으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청주대
100	어휘	‘유 감’의 용법	일본의 총리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언론에서 이것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때도 있는데 예전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유감’의 뜻은 ‘상대방에 대해 섭섭하다, 불만이다, 언짢다’이므로 가해자가 가벼운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병성, 한겨레 2001. 5. 7. 7면>	경북대 (송지혜)
101	어휘	‘유모차, 아기차, baby	사회적으로 아기를 태워 끄는 차를 ‘유모차’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유모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경북대 (임효주)

		carriage ,	이 표현만이 옳다고 볼 수 없다. ‘아기차·유아차’라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	
102	어휘	‘음절’	음절은 ‘音節’로서 소리의 마디입니다. 음절의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입니다. ‘아침’은 음절이 두 개입니다. ‘아’와 ‘침’ 이지요. ‘침’은 ‘ㅈ, ㅅ, ㅁ’이라는 소리가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들은 하나의 소리로 인식합니다. 그것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03	어휘	‘응낙법’	‘응낙법’은 ‘허락법’이라고도 하며,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요구를 허락함을 나타냅니다. 종결어미 ‘-(으)럼나’, ‘-(으)려무나’의 준 형태인 ‘-(으)럼’으로 쓰입니다.	청주대
104	어휘	‘이내’	‘30% 이내’라는 말은 ‘1~30%’까지 모두 포함한 말로 쓰입니다. 즉, ‘30% 이내’라는 말에 ‘30%’도 포함이 됩니다.	경상대 (조규태)
105	어휘	‘이빨’	‘이빨’은 ‘이’를 낫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쓸 수는 있지만, 낫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106	어휘	‘이유와 때문’	‘때문이다’가 서술어인 경우 주어로는 ‘이유’나 ‘이유’와 비슷한 말, 어떤 상황이나 사건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 이유는 ~ 때문이다.’는 자연스러운 우리 표현입니다. 말씀하신 설명에서 옳다고 이야기하는 ‘~한 것은 ~ 때문이다.’에 쓰이는 ‘것’은 의존 명사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한 것은 ~ 때문이다.’에서 ‘것’은 바로 ‘이유’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한 것은 ~ 때문이다.’만 옳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내가 결석한 것은 감기 때문이다.’도 자연스럽고, ‘어제 내가 결석한 이유는 감기 때문이다.’도 자연스럽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107	어휘	‘인마’와 ‘임마’	‘인마’는 ‘이놈아’가 줄어든 말입니다. ‘인마’가 ‘임마’로 발음되는 것은 ‘ㄴ’ 뒤에 ‘ㄹ’이 올 때는 ‘ㄴ’보다 ‘ㄹ’으로 소리 내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마’는 ‘인마’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상명대
108	어휘	‘일절’, ‘일체’	일절 一切: 품사는 ‘부사’로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	경상대 (이유미)

			지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출입을 일절 금하다./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일체 一切 (1) '명사'로 '모든 것, 전부, 완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거기에 따른 일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일체로 술을 끊다 =>오늘부터는 장군한테 병정 단속하는 권한을 일체로 맡길 테니, 장군은 나를 버리지 마시오. 《박종화, 임진왜란》 한온이는 걱정이의 일이 조심되어서 한 침지와 부자간 의논한 뒤에 순이 할머니와 집안사람들을 일체로 말조심하라고 단속하고….《홍명희, 임궽정》 (2) '일체'는 '모든 것을 다'라는 뜻을 가지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때의 쓰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 근심일랑 일체 털어 버리고 자,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 따라서 음식점에서 '우리 음식점에는 별별 안주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의 뜻으로 쓸 때는 '안주 일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109	어휘	‘일 절’, ‘일체’	‘일체(一切)’는 명사로 ‘모든 것’, “‘일체로’ 꼴로 쓰여 ‘전부’ 또는 ‘완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절(一切)’ 부사로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切’는 ‘온통 체’, ‘끊을 절’과 같이 두 가지 뜻과 소리가 있습니다.	청주대
110	어휘	‘잃다’와 ‘잊다’	의식이나 감정 따위가 아주 사라짐을 의미할 때 ‘잃어버리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잃어버리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두거나 신경 쓰지 아니하다/기억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잊어버리다’도 사용할 수 있	전주대 (박지학)

			습니다. 그러므로 “수치심을 잊어버리다.”도 사용 가능합니다.	
111	어휘	‘임 용 고 사’ ‘임 용 고 시’	‘임용고시’, ‘임용고사’로 쓰는 것을 틀린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등교사임용 시험의 경우 공식 명칭은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입니다.	청주대
112	어휘	‘일사귀’와 ‘이파리’	‘일사귀’는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제21항 규정에 따라 ‘일사귀’라고 적습니다. 반면에 ‘이파리’는 어원적으로 어근 ‘일-’에 접사 ‘-아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 명사이지만, 공시적으로 ‘이파리’의 ‘-아리’는 생산성이 없으므로 접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파리’는 단언어로 처리합니다. 요컨대 ‘이파리’는 단언어이고, 일사귀는 파생어이므로 각기 다르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명대
113	어휘	‘작목반’	2003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신어 중 하나가 ‘작목’입니다. ‘작목’은 논밭, 농장, 과수원에서 심어 가꾸는 곡식, 채소, 과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作目’입니다. ‘작목반’은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 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1970년 이후 농협 자체적으로 육성해 온 「작목반」과 1983년부터 정부에서 육성해오던 「협동출하반」을 통폐합하여 1991년 명칭을 「작목반」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작목반’은 한자로 ‘作目班’으로 쓰시면 됩니다.	경북대 (송지혜)
114	어휘	‘장본인’	‘장본인’은 어떤 나쁜 일을 빚어낸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술관으로 개조한 사람’을 ‘장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때는 ‘주인공’이나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다.	한 국 방 송
115	어휘	‘재 감’이 없다	진주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감이 없다’ 또는 줄여서 ‘재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사리 분별을 못한다. 눈치가 없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국어 사전에는 이런 뜻을 가진 ‘재감’이란 말도, ‘재감 없다’라는 말도 실려 있지 않다. 그런데 한자 자전 중	경상대 (조규태)

			에서 유일하게도 1996년에 민중서림에서 출판한 『漢韓大字典』에 ‘재감’이란 말이 실려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재감(才鑑)’이란 말이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되어 있다. “재감(才鑑=才鑑) : 재주가 있어 감식(鑑識)을 잘 함.” ‘감식’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사물을 보고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냄, 또는 그것을 알아내는 식견’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감’이란 말은 ‘재주가 있어 사리 판단을 잘 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마도 ‘재감 없다’라는 말의 ‘재감’은 이 한자말에서 온 것 같다. 몇 번 꾸중 들어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재감이 없는’ 아이이고 한 번만 들어도 깨우치거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아이는 판단력이 있는 아이 즉, ‘재감이 있는’ 아이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 어떤 곳에는 ‘재감’을 ‘재금’이라고 발음하는 곳도 있다.	
116	어휘	‘정리’ ‘정돈’	‘정리’가 ‘정돈’보다 의미 범주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돈’이라는 의미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책상을 정리한다고 해도 되고, 정돈한다고 해도 됩니다. ‘정돈(整頓)’은 사전에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 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함.’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예로 장내 정돈, 책상 정돈 등이 있습니다. ‘정리(整理)’는 사전에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책상 정리/집안 정리/교통 정리/신변 정리 등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정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리’에는 이 뜻 외에도 “2.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함. ㉠서류 정리/카드 정리. ㉡「3」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음. ㉢채무 정리/재개발 지역의 택지 정리 ㉣「4」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아니하고 끝냄. ㉤불륜 관계 정리. ㉥「5」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나타냄. ㉦통장 정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예에는 ‘정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정리’와 ‘서류 정돈’은 때에 따라 뜻이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뜻	경북대 (송지혜)

			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117	어휘	‘줄’과 ‘지’	“넌 내가 놀기만 하는 줄/지 알아?”에서 ‘줄’과 ‘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과 ‘지’는 모두 의존명사로 ‘줄’은 어떤 방법, 셈 속 따위를 나타내고,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아?’가 맞습니다.	상명대
118	어휘	‘척/체’, ‘알은척/ 알은체’	‘알은체’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는 체하다’는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와 달리 ‘알은체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또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두 표현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청주대
119	어휘	‘컴맹’	문맹의 <표준국어대사전> 풀이는 아래와 같으므로 '컴맹'이라는 낱말을 장애인에 빗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컴맹은 아시다시피 (com + 盲)으로 이루어진 낱말입니다.	경상대 (박용식)
120	어휘	‘콧망울’, ‘콧방울’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은 ‘콧방울’이라고 한다.	한 국 방 송
121	어휘	‘큰집’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큰-'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만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그래서 '큰집'은 파생어로 봐야 합니다.	경상대 (박용식)
122	어휘	‘타계’와 ‘별세’	'죽음'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금기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꺼려 '완곡어'를 사용하여 그 뜻을 대신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죽음'이라는 금기어를 대체하는 말로 '별세', '타계'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의 쓰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계'는 '다른 세계'라는 뜻을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는 것도 '지금의 세계,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계'는 인간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의 죽	경상대 (이유미)

			음, 특히 귀인(貴人)의 죽음을 이르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예) 정정하시던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우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별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남'의 뜻으로 쓰입니다. 예) 조부모님의 별세를 알리는 전보가 왔다. 예) 갑례가 그렇게 통절한 울음에 파묻힌 것은 물론 어머니의 별세가 애통해서였다.《하근찬, 야호》 =>은사께서 지병으로 별세하셨다. =>운현 선생이 어제 별세하여 송장환은 상가에 다녀온 길이다.《박경리, 토지》 =>아버지를 낳고 조모님이 별세한 후 내내 독신으로 지내 오신 조부님이 급자기 세상을 떠나 시자...《김원일, 어둠의 축제》	
123	어휘	‘틀리다’와 ‘다르다’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표현입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 ‘다르다’와 같은말은 ‘같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고 우리가 흔히 쓰는 ‘틀리다’의 대부분은 ‘다르다’로 쓰여야 합니다.	강원대
124	어휘	‘틀리다’와 ‘다르다’	‘너는 나와 틀리다/ 다르다’에서 ‘다르다’가 맞습니다. 썸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날 때 ‘틀리다’로 사용하고,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거나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을 때 ‘다르다’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다르다’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상명대
125	어휘	‘팔불출’	첫째가 제 잘났다고 뽐내는 놈, 둘째가 마누라 자랑이고, 셋째가 자식 자랑하는 것, 넷째는 선조와 아비자랑을 일삼는 것이고, 다섯째는 저보다 잘난 듯싶은 형제 자랑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어느 학교의 누구 후배라고 자랑하는 일이며, 일곱째는 제가 태어난 고장이 어디라고 우쭐해 하는 것임.	경상대 (이유미)
126	어휘 발음	‘한류’의 발음	우리말에서는 ‘ㄴ’과 ‘ㄹ’이 연이어 나타날 때 [ㄹㄹ]로 발음하는 경우와 [ㄴㄴ]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ㄴ’ 받침을 가진 앞말이 자립적으로 쓰일 경우는 원래의 받침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뒷말의 발음이 동화되어 [ㄴㄴ] 소	상명대 (서은아)

			리로 납니다(예: 생산량[생산량]). 이와는 달리, ‘한류’의 ‘한’처럼 자립성이 없는 말들은 뒤 소리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 [ㄹㄹ]로 발음하게 됩니다.	
127	어휘	‘한테’와 ‘더러’	‘더러’는 ‘-를 가리켜/보고’, ‘-에게’의 뜻으로 쓰이는 조사입니다. 한국어에는 ‘ㄹ더러’라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나더러’가 맞고, ‘날더러’는 틀립니다. ‘더러’는 주로 말할 때 많이 쓰이고, 글(문어)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구어체 조사입니다. 또, 다 아시겠지만, ‘더러’는 동물이나 사물에게는 쓰이지 못하고, ‘나더러, 너더러’와 같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전주대 (박지학)
128	어휘	‘호도하다’	‘여론을 호도한다’ "호도하다"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뜻은 풀을 바른다는 뜻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호지부지 덮어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풀을 바른다는 뜻보다는 비유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을 호도하다."는 말은 "여론을 호지부지 넘기다 / 덮어 버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북대 (박유진)
129	어휘	‘홀몸’과 ‘홀몸’	‘홀몸’은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이거나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뜻하는 말이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홀몸도 아닌 여자니 조심해야지.”라는 문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 그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되었다. * 홀몸도 아닌데 장시간의 여행은 무리다. * 그는 홀몸으로 고향을 떠났다.	상명대
130	어휘	‘황당하다’와 ‘당황하다’	‘당황하다’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뜻으로 같은 말로는 당혹이라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황당하다’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않고 터무니없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다르므로 서로 같은 말은 아닙니다.	경북대 (김유진)
131	어휘 발음	김밥의 발음	자장면이 [짜장면]이 아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표준 발음은 [김:밥]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자 분처럼 발음하시지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크게 규제할 수 없는 수의적인 발음 차이지만	강원대

			분명히 발음규정에 나와 있기에 표준 발음을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점점 지나치게 격음화(된소리되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격음이 많은 국어. 과연 듣고 말하기에 좋을까요?	
132	어휘	수 건 을 세는 단위	수건을 세는 단위로는 ‘장’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 의존 명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개, 두 개’보다는 ‘한 장, 두 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경상대 (조규태)
133	어휘	의존명사 ‘ 줄 ’ 과 ‘지’	“넌 내가 놀기만 하는 줄/지 알아?”에서 ‘줄’과 ‘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과 ‘지’는 모두 의존명사로 ‘줄’은 어떤 방법, 셈 속 따위를 나타내고,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아?’가 맞습니다.	상명대
134	어휘 발음	중부지방 [중부찌방], 남부지방 [남부찌방]	합성어가 되면 대체로 사이시옷이 개입하여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 지방’, ‘남부 지방’ 같은 표현은 합성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부 찌방’, ‘남부 찌방’처럼 발음하는 것은 된소리 경향과 연관되는 언어 습관입니다. 우리말의 된소리 경향은 이유 없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국 어 단 체 (남영신)
1	언어 예절	‘ 기 사 ’, ‘기능사’	시설기능사들은 현재 ‘기사님’이라고 부르기를 요구합니다. ‘기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떤지요? ‘기사님’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업무와도 관련이 있고, 본인들도 원하니까요. 그런데 기사는 따로 직책이 있으니 ‘기사님’이라고 부르면 기사들의 반발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닙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의사가 절대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능사님’은 조금 이상하네요. ‘기사’ 또는 ‘기능사’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2	언어 예절	‘당신’	‘당신’은 몇 가지 뜻이 있어서 상대나 상황에 따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1」 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 할 자리에 쓴다. 「2」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3」 맞서 싸울 때 상대방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4」	경북대 (송지혜)

			‘자기03[Ⅱ]’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 2, 4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3번과 같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 4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당신’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언어 예절	‘드림’과 ‘올림’	‘드림, 올림’ 등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 뒤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림, 드림, 배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화법에서는윗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서명란에 ‘OOO 올림’과 ‘OOO 드림’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년배에게 보낼 경우에는 ‘OOO 드림’을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OOO 씬’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하며 올림’의 뜻으로 ‘배상(拜上)’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스러운 편지에서 주로 쓰였던 것으로 오늘날에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화 여대 (손달임)
4	언어 예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라는 말에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씬’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듯한 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화법>에서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를 대신하여 ‘고맙습니다’ 또는 ‘애쓰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5	언어 예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라는 말에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씬’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듯한 어감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화법>에서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를 대신하여 ‘고맙습니다’ 또는 ‘애쓰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6	언어 예절	‘시’의 사용	‘선생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라고 했을 때는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건강하시길’, ‘행복하시길’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다만,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라는 문장의 경우 ‘계시겠습니다’로 쓰지 않는 것은 그때는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말씀’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7	언어 예절	‘참고해 주십시오.’보다 더 정중한 표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내용에 더 가까운 표현으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있습니다.	경북대 (송지혜)
8	언어 예절	‘하라고 하시는’	국어의 존대법은 존대의 대상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존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존대,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존대 등이 그것입니다. A : "대답안할거야?" B : "무슨 대답을 하라시는 건지..." 대화 중에 > B : "무슨 대답을 하라시는 건지..."라고 했다면, '시'로써 생략된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는 했지만,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은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즉 '모르겠다'를 생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를 생략했는지 모른다는 결론이지요.	이화여대 (박창원)
9	언어 예절	‘합시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인가?	청유형의 격식체 예사높임입니다. "-합시다"는 청유형의 격식체 예사높임을 만드는 종결어미입니다. 들이 높임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아주낮춤, 예사 낮춤, 예사높임, 아주높임, 반말"로 나뉘고 의례적 용법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격식체와 정감적 용법으로 격식을 덜 차리는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그 관계를 들어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높임표현 낮춤표현 격식체 합쇼체(아주높임) 하게체(예사높임) 하오체(예사높임) 해라체(아주 낮춤) 비격식체 해요체(두루 높임) 해체(두루 낮춤) 위에서 풀이한 마침법과 들음이 높임의 관계에 따르면 질문하신 "-합시다"는 청유문으로 격식체 예사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는 아랫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리면서도, 아주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쉽게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전주대 (박지학)

			"-합시다"는 나이가 같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나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 쓰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비격식체인 "-해요"를 쓰는 것이 정겨운 표현입니다.	
10	언어 예절	‘합시다’의 높임 대상	"-합시다"는 아랫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격식을 차리면서도, 아주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쉽게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합시다"는 나이가 같은 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있거나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 쓰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전주대
11	언어 예절	압존법	'압존법'은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쓰는 것은 언어 예절에 맞으나 가정이 아닌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듣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일지라도 '사장님, 전무님이 오셨습니다.'와 같이 함이 언어 예절에 맞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할머니께 말할 때에는 '할머니, 아버지가 왔어요.'처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표준 화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할머니, 아버지가 오셨어요.'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 높여 말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한편, 부모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언제나 높여 말해야 합니다. 가령, 학교 선생님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 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압존법은 경우에 따라 그 쓰임을 자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까다롭지만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대
12	언어 예절	호칭 순위 시누이의	순위 시누이 남편에 대한 바른 호칭어는 ‘아주버님’ 또는 ‘서방님’입니다. ‘아주버님’은 순위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서방님’은 순위	상명대

		남편	나 손아래 시누이 남편에게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손위 시누이 남편에 대한 지칭어는 자녀와 그 외의 사람들로 나누어 다르게 씁니다. 자녀에게는 ‘고모부(님)’으로 지칭하고,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는 ‘(지역 이름) 아주버님’, ‘(지역 이름, 성) 서방님’, ‘~ 고모부(님)’으로 지칭하면 됩니다.	
13	언어 예절	호칭 친 구 의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는, 어린이 말은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로 정하고, 어른 말은 '(○○) 어머니', '아주머니'로 정하였습니다. '(○○) 어머니'의 경우, 친구의 이름을 넣어 '○○ 어머니'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어머님'도 허용하였습니다.	전주대 (박지학)
14	언어 예절	호칭 친 구 의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어는, 어린이 말은 '○○ 어머니(엄마)', '(지역 이름) 아주머니'로 정하고, 어른 말은 '(○○) 어머니', '아주머니'로 정하였습니다. '(○○) 어머니'의 경우, 친구의 이름을 넣어 '○○ 어머니'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어머님'도 허용하였습니다.	전주대
15	언어 예절	호칭 (모든 학 습자에게 두루 사 용 할 수 있는 호 칭)	1. '성+ 이름+ 님'과 함께 '이름+ 님'도 두루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보통 성을 생략하지 않으므로 '성+ 이름+ 님'이 더 많이 쓰입니다. 2. 가장 무난한 것은 '성+ 이름+ 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님'은 명사이므로 '홍길동 님', '길동 님'과 같이 띄어 쓰셔야 합니다.	경북대 (송지혜)
16	언어 예절	호칭 여동생의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에는 이름 앞에 ‘성’에다가 ‘서방’을 붙여 부르면 됩니다. 혹시 나이가 더 많다면 ‘서방’에 ‘님’을 붙여 ‘성+서방님’으로 부르면 됩니다.	경북대 (현영희)
17	언어 예절	호 칭 (남 편)	표준화법 해설에 따르면 문의하신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높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인이...”처럼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높여 가리키거나 “저희 남편이 이러셨어요.”라고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우리 영감이 ... 이러셨어요.”처럼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가리키는 말입니다.(부인: 남의 아내를 높여 이	경북대 (송현주)

			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18	언어 예절	호 칭 (남 편)	요즘 젊은 세대에서 ‘자기’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호칭은 올바른 호칭이 아닙니다. 보통 신혼 초이든 나이가 들어서 부를 때이든 남편을 부르는 일반적으로 가장 적당한 호칭으로는 ‘여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면 ‘여봐요’라는 표현을 거쳐 조금씩 연습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이름에 아버지, 할아버지를 붙여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경북대 (현영희)
19	언어 예절	호 칭 (남 편)	결혼 전에 부르는 호칭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친정 부모님 앞에서 부르는 경우라면 성을 붙여 ‘0서방 그랬어요?’ 정도로 불러야 할 듯합니다. ‘-씨’를 붙여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충북대 (김민옥)
1	기타	‘만 수 무 강’의 한 자	만수무강의 ‘강’자는 ‘지경 강(疆)’자입니다. 이때 지경은 ‘경계, 한계, 끝’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만수무강을 ‘어려움 없이 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끝, 한계, 지경’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전이가 되어 ‘무강’이라는 말이 ‘한계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등으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경상대 (이유미)
2	기타	원 고 지 작성	원고지 안에 숫자를 써야 할 때는 몇 글자씩 써야 하나요? 2007은 두 칸에 나누어 씁니다.	경상대 (박용식)
3	기타	‘메 모’의 순화어	‘메모’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하여 짧막하게 글로 남긴 것을 뜻하는 단어로, ‘기록, 비망록, 적바림, 적발, 쪽지 기록’ 등으로 순화하고 있습니다.	충북대 (장충덕)
4	기타	속담 (작은 이 익을 생 각했었는 데 더 큰 이 익 을 얻게 된 경우에)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될 때 쓰는 속담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팽 먹고 알 먹고 등지 털어 볼 땀다, 팽 먹고 알 먹는다 / 팽 먹고 알 먹기, 굿 보고 떡 먹기/ 알로 먹고 팽으로 먹는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뽕도 탄다, 마당 쓸고 돈 줍고.	경북대 (송지혜)
5	기타	한 글 로 조합가능 한 총 글	한글 낱자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한글 한 글자는 11,172입니다. 겹글자를 포함한 한글 자모의 개수는	강원대

		자수	초성자: ㄱ~ㅎ 19자 = 19 가지. 중성자: ㅏ~ㅣ 21자 = 21 가지. 종성자: ㄱ~ㅎ 27자(겹받침포함) + 종성자 없음 1 = 28가지. 전부 곱하면 11,172. 단, 현실적으로 국어에서 이 모든 조합이 다 쓰이지는 않고, 일부만 쓰입니다.	
6	기타	핸드폰에서 쓸 수 없는 글자	한글의 조합 가능한 글자의 개수는 11,172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글자를 뽑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어 전문가나 확실한 통계 자료의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준어에서 쓰이지 않는 글자를 쓸 수 있다거나,('자' 등) 표준어에는 쓰이지만 쓸 수 없는 경우('꽤' 등)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구형 휴대전화는 '2바이트 완성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글자 수가 2,350글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글자를 쓰려면 입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정확한 자료조사와 전문가의 감수 등을 통해 더 나은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강원대
7	기타	숫자 읽기 '1024개'	“천이십사 개”, “천스물네 개” 수를 세는 단위인 ‘개’가 한자어이지만 언중에게 고유어처럼 인식되어 그 앞의 수도 고유어가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천이십사 개”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경북대 (김유진)
8	기타	항목 순서 쓰기 (공 문서에서)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공문서의 구성 중 항목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경북대 (송지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9	기타	추진기, 프로펠러	프로펠러나 프로펠라를 추진기로 순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순화어 선정 목적은 국어를 좀 더 아름답게 쓰기 위함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의 편리를 생각한다면, 질문자의 말처럼 프로펠러가 더 유리한 어휘가 되겠지요. 그리고 외래어의 경우는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확고히 표준어로 자리 잡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프로펠러는 좀 다릅니다. 추진기라는 순화어 즉 대체어가 있습니다. 또 '프로펠라'는 더더욱 곤란합니다. 외래어표기법에 의해 '프로펠러'로 먼저 올바르게 써야 하겠지요. 국립국어원에서는 프로펠러를 추진기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안미애)

2. 공공기관, 언론기관 대상 국어상담

[1] 문장 교열 관련 상담

(1) 소방방재청 안전생활 가이드

상담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10. 15. - 2008. 10. 24.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담당자: 예방전략과장

● 집중호우 시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교열> 상류 급경사 지역으로서, 집중 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집에 있는 경우에는 현관, 복도 또는 창문의 유리파편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곳으로 피한다.

<교열> 집에 있는 경우에는 현관이나 복도 또는 창문의 유리 파편이 튀지 않을 곳으로 피한다.

● 간판이나, 나뭇가지, 파손된 유리, 전선 등 밖은 위험하므로 될수록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어린이는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

<교열> 밖에는 간판이나 나뭇가지, 파손된 유리, 전선 등이 널려 있어 위험하므로 어린이는 복구가 끝날 때까지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한다.

●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갑작스런 한기의 남하에 의한 기습한파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열> 최근 들어 세계적인 이상 기후 현상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기습 한파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주요 지진 피해사례를 보면, 쌍계사 지진(1936.7/ 규모 5.1), 충남 홍성 지진(1978.10/ 규모 5.0)으로 인명피해가 있었다.

<교열> 우리나라에서 인명 피해를 입혔던 주요 지진으로는 쌍계사 지진(1936.7/ 규모 5.1)과 충남 홍성 지진(1978.10/ 규모 5.0)이 있었다.

●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에 의한 화재진압을 기대할 수 없을 수가 있어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교열> 대지진 발생 시에는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화재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평소에 작은 지진이라도 불을 끄는 습관을 익힌다.

<교열> 작은 지진이 일어난 때에도 불을 끄는 연습을 한다.

<교열> 평소에 작은 불이라도 끄는 연습을 한다.

●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월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의 정박은 피해야 한다.

<교열> 방파제 내측은 지진해일이 넘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이곳에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한다.

● 너울은 연안역에서 쇄파에 의한 에너지소모가 적어 쳐오름 현상이 우세하며, 발생 및 전파예측이 어려워 해안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교열> 너울은 연안 해역에서 부서지지 않아 에너지 소모가 적어 쳐오름 현상이 우세하며, 발생 및 전파 예측이 어려워 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 급출발, 급 핸들,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미끄러짐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제동장치(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방법을 잘 지킨다.

<교열> 급출발, 급핸들조작, 급브레이크조작 등은 미끄러짐이나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엔진제동장치(엔진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등 기본적인 운전방법을 잘 지킨다.

● 겨울철 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의 원인은 보일러를 환기 불량한 장소 등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급·배기구 설치불량과 배기관 연결부 이탈 때문인 폐 가스 유입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교열> 급·배기구 설치 불량, 배기관 연결부 이탈 등으로 인해 폐가스가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수면부족 때문인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때는 안전장치를 한다.

<교열> 수면 부족으로 피로가 축적되면 자칫 감전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 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때는 안전 장치를 한다.

● 적란운은 수직으로 긴 구름으로 대기 중 바람에 의해 이동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동루트는 없으나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적란운은 산을 넘을 수 없어 계곡을 따라, 기압골 전선 상의 적란운은 기압골을 따라 이동한다.

<교열> 적란운은 수직의 긴 구름 모양을 하고 바람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이동 루트는 없으나, 산악 지대에서 발생한 적란운은 산을 넘을 수 없어 계곡을 따라 이동하고, 기압골 전선 상의 적란운은 기압골을 따라 이동한다.

● 겨울산은 귀찮다고 몸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저체온증 뿐 아니라 체력소모를 불러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일산행에서는 되도록 보온병,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준비해야한다.

<교열> 겨울에는 몸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워, 겨울 산에서는 저체온증 뿐 아니라 체력 소모 때문에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일산행에서도 보온병,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는다.

<교열>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는다.

● 소아나 영아의 심정지 원인은 성인과는 달리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보다는 손상이나 호흡성 심정지가 많다. 따라서 처치 순서가 성인과 조금 다르다.

<교열> 소아나 영아의 심장 정지 원인은 성인과는 달리 잔떨림 제거가 필요한 심실 잔떨림보다는 손상이나 호흡성 심장 정지가 많다.

(2)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답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12. 1. - 2008. 12. 15.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담당자: 김동균(변리사)

● 第16條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교열>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第26條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第33條 ① 디자인권의 設定登録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디자인권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登録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録料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교열>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후 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이나 그와 닮은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第50條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創作하거나 그 디자인을 創作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교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시에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를 통해서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그와 닮은 디자인을 실시하여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과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第52條 ①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録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교열> 등록디자인을 닮은 디자인의 실시가 그 출원일 또는 그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에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또는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에 그 디자인권에 대해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서 바로 쓰기 편람

상답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10. 2. - 2008. 10. 21.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김형곤(홍보실 차장)

● 어떤 위원이 개인적인 사건임을 전제로 공단이 실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교열>어떤 위원이 사건이라면서 공단이 실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들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까지 받아내야 함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열> 정부는 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들로부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받아내는 방안은 물론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 무임승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이사회에 동 직제규정개정(안)을 부의하여 의결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이사 및 당연직 공무원 이사의 강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열> 이사회에 이 직제규정개정(안)을 부의하여 의결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 추천이사와 당연직 공무원 이사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체납 시에는 별도의 추가통보 없이 법적인 절차(임금, 재산압류 등)가 진행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열> 체납 시에는 별도로 추가통보를 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임금, 재산압류 등)를 진행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의료환경의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열> 우리 공단은 앞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의료환경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한 용서를 빕니다.

<교열>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 부서 간의 갈등을 서로의 대화로 풀어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교열> 부서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가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반이 되는 방법론으로 활용함

<교열>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또는 기반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함.

● 다음에는 노인들의 여가 활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열> 다음 시간에는 노인들의 여가 활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의 복지 정책은 앞으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열> 현재의 복지 정책은 꼭 손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열>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지 정책은 꼭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표준 의결서 문장

상답 종류: 표준 의결서 체제 잡기, 문장 교열

기간: 2008. 1. 4. - 2008. 4. 30.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구혜영, 홍영호

담당자: 장용희(조사기획팀 사무관)

의결서 작성 부분별 기준 보완 및 설명

1. 총칙

의결서는 '누가 누구에게 처분한 민원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에 따라 판단할 때에 부당하니 어떻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주문을 주제로 하여 구성한다. 의결서의 뼈대는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유 부분은 주문의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의결서의 뼈대와 각

부분의 구성 방법은 '의결서 작성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시한다.

2. 주문 부분

주문의 문장 서술어를 '시정권고한다'에서 '권고한다'로 고친다. 서술어를 보완하는 이른바 목적어 부분이 '시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서술어에 '시정권고'라는 말을 다시 쓰는 것은 동어반복이어서 비논리적이다. 의결서의 성격을 '시정권고', '권고' 등으로 구별하기 때문이라는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 꼭 필요하다면 의결서 제목 뒤에 '시정권고'라는 명문을 괄호 속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 문법: '그에게 이사비를 줄 것을 권고한다.'와 '그에게 이사비를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를 비교해 보면 '시정'이라는 말이 허공에 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시정권고한다'는 '시정을 권고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다면 '시정'의 목적어가 무엇이겠는가? '그에게 이사비를 주는 것'이 '시정'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게 이사비를 주지 말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정권고한다'를 쓰려면 목적어를 '그에게 이사비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하고 '그에게 이사비를 주지 않은 것을 시정하도록 권고한다(시정권고한다).'라고 표현해야 옳게 된다.

3. 이유 부분

(1) 배경: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면 된다. 다툼이 일어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있고 있다'보다는 '있었다'를 쓰는 것이 시제를 명료하게 하는 표현이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런 주장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3)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거절한 이유를 그가 내놓은 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거절 이유가 둘 이상이면 각 이유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거절 사유를 빠짐없이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4) 쟁점: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거절 이유 가운데에서 맞서는 부분을 찾아 제시한다. 쟁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판단 재료이므로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쟁점이 둘 이상이면 따로 나누어 제시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적지 않는다.

(5) 사실 관계: 사실 관계는 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을 제시하되 쟁점에 대해 판단

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관련 사항을 따로 제시한다. 사실을 단순히 제시하지 말고 쟁점을 판단하는 데 연관되도록 제시해야 한다.

* ‘도시1’의 경우에는 개발 계획 승인 고시일인 2003년 10월 6일로부터 1년 전인 2002년 10월 6일(보상 기준일) 이전에 이 민원 건축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초점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6) 법령 관계: 판단에 필요한 법령, 판례, 학설 등을 제시하되 별지로 보내고 필요한 부분만 판단문에서 인용한다.

(7) 판단: 쟁점별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쟁점을 몇 개의 주제로 나누어 판단해야 할 때에 주제별로 문단을 나누어(대개 작은 번호를 붙인다.) 판단하되 각 판단 문장은 쟁점과 관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령의 제한 규정이 이 민원 건축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시1’ 수정본 ‘판단’ 부분의 ‘가항 제1호’에 적힌 것처럼 병령이나 사실 관계를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와 관련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상황이 어떤지 함께 지적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판단’ 항의 하나로서 독립한 주제를 가지는 문단의 자격을 갖게 된다.

* 고충처리위원회 ‘재정산업1’ 수정본 ‘판단’ 부분은 불필요한 것이 매우 많다.

(8) 결론: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처럼 서술어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의결문 단위 문장 작성 기준

(1) 어문 규정에 맞게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들을 보완하는 것으로는 ‘외래어 표기 용례집’, ‘표준어 모음’, ‘국어 순화 자료집’ 등이 있고, 기관별로 공문서 바로 쓰기를 위해서 작성한 기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 감사원의 ‘감사 문장 바로 쓰기 기준’ 등이 있는데 이 기준에는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를 벗어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서에 쓰인 어문 규정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철자법에 맞게 고쳐야 할 것들(화살표 오른쪽이 바른 표기임)

* 슈퍼마켓 → 슈퍼마켓

* 작성년월일 →작성 연월일

* 제출하는 직전년도 → 직전 연도

② 띄어쓰기에 맞게

- * 무허가 건물등에 → 건물 등에
- *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서는 →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는
- * 우리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우리 위원회
- * 지정시는 → 지정 시는
- * 조사전 → 조사 전
- * 되어있으며 → 되어 있으며
- * 제반여건 → 제반 여건
- * 소매인 지정대상장소로 하여 → 지정 대상 장소로
- * 지하2층 기계실 → 지하 2층 기계실
- * 주변여건을 → 주변 여건을
- * 수사관련 교육을 → 수사 관련 교육을
- * 의뢰결과 → 의뢰 결과, 판단결과 → 판단 결과
- *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 * 매출자료를 → 매출 자료를
- * 기타집기류 50개 → 기타 집기류 50개
- * 부여방향 → 부여 방향
- * 조사의뢰결과 → 조사 의뢰 결과
- * 공청회도 한번 없이 → 한 번
- * 같은면 가척리 84가구, 같은면 분강리 4가구 → 같은 면

③ 문장부호 사용법에 맞게

㉠ 접속어(접속부사) 다음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 * 그러나, 피신청인은 → 그러나 피신청인은
- * 따라서, 객관적인 → 따라서 객관적인
- * 그렇다면, 이주자택지공급 및 주거이전비지급을 구하는 → 그렇다면 이주자택지 공급 및 주거 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 문장 안에서는 연월일을 온점으로 줄여 쓰지 않고 한글로 표시한다.

- * 2006. 11. 1. 신청인에게 행한 → 2006년 11월 1일에 신청인에게 행한
- * 신축하면서 1992. 7. 2. 및 1992. 7. 24.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중간검사신청을 하여 → 1992년 7월 2일과 1992년 7월 24일에
- * 1968. 10. 20.부터 2004. 6. 27.까지 계속 거주하였다. → 1968년 10월 20일부터 2004년 6월 27일까지

㉔ 따옴표나 괄호 안에서 문장이 둘 이상일 때는 앞 문장에 마침표를 표시한다. 의문문일 때에는 모두 물음표를 표시한다.

* 황모 조사관은 “너도 그럴 작정으로 만난 것 아니냐 다 알고 만난 것 아니냐 그걸 모르다니 바보냐”라고 우롱하였고 → 황모 조사관은 “너도 그럴 작정으로 만난 것 아니냐? 다 알고 만난 것 아니냐? 그걸 모르다니 바보냐?”라고 우롱하였고

(2) 문법에 맞게: 조사와 어미, 문장 성분 구성법에 맞게

① 조사, 어미 정확하게 사용하기

* 이 민원 불가처분을 내린 것은 → 이 민원에 불가처분을 내린 것은.

* 주택을 남양주진접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함에 따라 → 주택이 편입됨에 따라

* 약 4m 거리 내 있음 → 내에

* 사실을 확인되는 점 → 사실이 확인되는 점

* 건설됨으로서 → 건설됨으로써

*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여 → “경찰에 신고 하겠다”라고 하여

* 일체가 소실된 사실을 확인되는 점 → 사실이

*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을 우롱하며 피의자를 두둔하는 발언과 허위 진술조서 작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청. → 두둔한 발언

* 적용하여 2006. 4. 30. 납기로 → 2006년 4월 30일을 납기로

* 고양소방서장이 2004. 1. 28. 발급한 화재증명원 → 2004년 1월 28일에

② 성분 간의 호응 지키기

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우편연락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다. → 우편물은

* 신청인은 2006. 10.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 수사를 받았으며

*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는 “신청인이 피의자 집에까지 순순히 따라온 후 옷을 갈아입고 성교를 하려한 이유, 전에 성경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대질 조사하는 등으로 보완 조사하라”고 지휘한 바 있고, 피신청인 1 소속 경사 신상철은 우리위원회 조사에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와 신청인을 대질신문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앞에서 신청인에게 ‘원조교제 경험’에 대해 질문 한 사실은 있지만, ‘벌금이 나와도 30만원 미만이다’ 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얘기를 한 사실

은 없다”고 한 바 있다. →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를 제거할 것
 * 각 진술조서 말미에 신청인의 서명 무인되어 있고, 사건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 2 소속 형사과 경사 ○○○이 조사한 바 있다. → 조사는 형사과 경사 아무개가 하였다.

㉠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 * 이 민원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므로 무허가건물에 해당하여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주거이전비 및 이주자택지를 줄 수 없다고
- * 신청인은 2006. 10.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 2006월 10월 2일에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였으며
- * 사실을 확인되는 점, →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수식어와 피수식어(관형어와 체언, 부사어와 용언)의 호응

- * 그러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답변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소들은 당해 건물에 기존 소매인이 있음에도 추가로 소매인을 지정할 때 고려될 사항이므로 이 민원 영업소가 입점한 건물 내에 기존 소매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답변 내용은 한 건물에 소매인이 있는데 추가로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이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조사를 위한 우리위원회 연락에 전화도 받지 않고, → 이 민원 사건을 조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전화도 받지 않고
- * 신청인은 이 민원사건 조사를 위한 우리위원회 연락에 전화도 받지 않고, → 우리위원회 전화도 받지 않고,
- * 신설도로는 민원지역에서 약 10m 정도 성토되어 건설됨으로서 도로주변에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어렵다. → 신설도로는 민원지역에서 약 10m 정도 흙을 쌓아 건설하였기 때문에 도로 주변 마을에서 드나들기 어렵다.
- * 이 민원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 서술어와 서술어의 호응

- *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 →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

③ 성분의 무분별한 생략 자제

- * 피의자가 앞에서 신청인의 원조교제 사실을 얘기해 수치심을 주었고, → 피

의자가 여러 형사들 앞에서 ('여러 형사들'을 생략하면 '피의자가 신청인 앞에서'의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 강력2팀에는 황씨 성을 가진 경찰관이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도 폭력팀과 분리되어 있다. → 강력2 팀의 사무실도 폭력 팀의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다.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의뢰결과 →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이 민원 업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의뢰한 결과

④ 높이법, 시제, 서법에 맞추어

*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확인하였다.

* 거래처를 통하여 매입내역을 파악한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이 가능하였을 터인데도 → 파악했다면

(3) 어휘 사용을 정확하게

① 부적절한 어휘 사용

*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권고한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이와 동일하다. → 취지도

* 이 사업장을 영위하면서 면세사업자가 → 운영하면서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다. 또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 그리고 ('또한'은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다 더.'의 뜻을 가진다. 즉 덧붙이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부사다.)

* 기타집기류 50개 등이 완전 → 50점

* 음성메모에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응답을

* 신청인을 우롱하며 피해자를 두둔하는 → 피의자를

* 개선효과가 미비함에 비해 → 미미함에 비해

* 연결로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은 → 주민은

*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 객관적인 지정기준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 적합한데도

*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해당 여부에 대하여,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가척리 마을 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를 개설하여 → 바로

*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 보완 조사하라고 지휘한 바 있고, → 지시한

* 신설도로의 교량하부를 통과하여야만 → 다리 밑을

② 순화 대상 어휘, 외국어 사용 자제

- * 당해 건물 → 그 건물
- * 무인 → 손도장
- * 신청인에게 수차 연락을 하였으나 → 여러 번
- * 남양주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수리통보를 받았다. → 에게서 받아들인다는 통보를
- * 교량하부를 → 다리 아래를
- * 제반여건 → 여러 여건
- *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받아들일
- *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 화재로 모두 불타

(4) **평범하게**: 쉽고 평범한 어휘와 표현법 사용, 외국어투 자제, 명사형 문장 자제.

① 평범한 표현, 외국어투 자제

- * 소속 담당경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 신청인의 신청은 타당하므로
-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 나머지 신청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 *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 지정권자가 구내소매인의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 결정할 때에
- * 도로주변에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어렵다 → 도로 주변에서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
- * 신설도로에서 가척리 방향으로의 연결로를 설치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 → 방향으로 나가는 연결로를 설치하는 데

② 명사형 문장 자제

- * 완공 당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 *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 이용객이 담배를 살 때
- *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내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 구내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 * “수사진행시 피해여성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내 NGO와 연계토록 한다.” → 수사할 때 피해 여성과 상담하거나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 * 구내소매인 지정을 할 때 → 구내 소매인을 지정할

- *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
- * 거래처를 통하여 매입내역을 파악한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이 가능하였을 터인데도 → 파악했다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 * 조사전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고 조사 전에 설명하고

③ 어색한 표현 다듬기

-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및 결격여부 조사를 의뢰하였다.
- *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부패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부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다른 지정거부 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지정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없다.)
- * 신청인의 원조교제 사실을 얘기해 수치심을 주었고 → 수치스럽게 하였고
- *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나 합의 중용 언행을 금한다.”고 되어있고, → 관계없는 질문을 하거나 합의하도록 중용하는 언행을 금한다.’라고
- *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 신청인을 조사하면서
- * 신청인에 대하여 내린 이 민원 불가처분은 → 신청인에게

(5) 명료하게: 전문 용어 사용, 중의성 제거, 주제화와 뒷받침.

- * 이 민원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 * 원조교제로 조사받을 당시 → 원조교제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 * 현행 도로구조에 의하면 부여방향에서 → 현재의 도로 구조를 보면
- *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8 주택을 남양주진접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과,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 피신청인이 남양주 진접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8 주택을 편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신청인의 가구원수에 따라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 *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은 허위의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적힌 허위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6) **짧게:** 중복 표현 제거, 군더더기 제거

① 중복 표현 제거

* 도로 확·포장 공사의 신설 도로에서 가척리 마을 등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로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에는 오촌교차로에서 가척리 마을 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연결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 공사의 당초 설계에는 신설 도로의 오촌 교차로에서 가척리 마을 등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연결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② 군더더기 제거

*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작성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 우리위원회 연락에 전화도 받지 않고, → 우리 위원회의 전화도

(7) 불필요한 피동 또는 사동 표현 억제

① 피동 표현 억제

* 이 민원의 경우에는 위 의뢰결과와 무관하게 지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지정 처분을 해야

*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다. → 건축한

* 만일 현재의 계획대로 이 민원 연결로가 설치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 연결로를 설치한다면, 불편이

*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판단한다.

② 사동 표현 억제

*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 비하하는

*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것이니 → 가중하는

(5) 정보문화진흥원 정보문화헌장

상답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5. 23. - 2008. 5. 27.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고현정(미래사회전략팀장)

<원문>

정보문화현장

21세기 신문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문화를 창달할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에 정보문화현장을 제정하여 우리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로 삼으며 전 세계인과 더불어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자유와 자율,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공유될 때 민주사회가 발전하듯이, 사이버공간에서도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며, 창조적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정보사회는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

폭력과 비방, 무절제한 힘의 논리를 극복하는 진정한 평화의 가치가 우리사회에 넘쳐날 때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참여와 개방, 나눔의 정신을 더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일구어가야 한다.

선진정보사회는 신뢰사회이다. 정보경제활동이 고도화될수록 신뢰는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신뢰문화의 꽃을 피워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정보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품위 있는 생활과 세련된 행동으로 성숙한 정보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이 존경하는 나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다진다.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인류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정보문화의 창달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 모두 민주, 평화, 신뢰, 성숙의 정보문화를 가꾸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공영의 지구촌을 만드는 절실한 역사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

<1차 수정문>

정보문화 현장

21세기 신문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하고 정보 문화를 창달할 시대적 소명을 받았다. 이에 정보문화 현장을 제정하여 우리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로 삼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자유와 자율,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공유될 때 민주 사회가 발전하듯이, 지식정보 사회도 자유와 책임이 공유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며, 창조적 가치가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지식정보 사회는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책임한 폭력과 비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식정보 사회를 통해서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어렵다. 또한, 지식정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다. 정보와 경제 활동이 고도화될수록 신뢰는 새로운 가치 창조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책임과 신뢰의 꽃을 피워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정보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21세기 지식정보 사회를 주도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새 지평을 여는 지식정보 문화의 창달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지구촌의 공영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2차 수정문>

정보문화현장

21세기 신문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정보문화를 창달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 이에 정보문화현장을 제정하여 우리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로 삼으며 전 세계인과 더불어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자유와 자율,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때 민주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창의성이 발휘되며, 창조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정보문화는 더 윤택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폭력과 비방, 무절제한 힘의 논리를 극복할 때 진정한 평화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참여와 개방, 나눔의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 가야 한다.

선진정보사회는 신뢰사회이며 정보경제활동이 고도화될수록 신뢰는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 우리는 신뢰문화의 꽃을 피워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정보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품격 있는 생활과 행동은 성숙한 정보문화의 지표이다. 우리는 세계의 귀감이

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선진일류국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 민주, 평화, 신뢰, 성숙의 정보문화를 가꾸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지구촌의 공영을 이룩하는 역사적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터넷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우리는 폭력과 비방을 자제하고 바른 언어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 및 창조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 우리는 세계 정보문화의 선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행동한다.
- 우리는 사랑과 배려로 올바른 정보문화를 공유한다.

(6) 안산시청 문화재 안내판

상답 종류: 국어, 영어 문장 교열

기간: 2008. 2. 18. - 2008. 3. 5.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담당자: 안옥희(총무과)

(가) 이익선생묘

이익 선생 묘	
경기도 기념물 제40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일동 555	
한글	이곳은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 이익(1681~1763) 선생의 묘이다. 선생의 자는 자신, 호는 성호, 본관은 여주이다. 선생은 부친이 귀양가 있던 평북 운산에서 태어났으나 경기도 안산의 침성리에서 살았으므로 이곳의 지명에서 성(星)자를 따 호를 성호라고 지었다고 한다. 선생의 부친이 당쟁에 휘말려 유배되었다가 선생이 태어난 다음 해에 별세하고, 선생을 가르치던 형 이잠마저 당쟁으로 희생되자, 선

	생은 벼슬을 단념하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여 실학의 대가가 되었다. 선생은 유형원의 학풍을 계승하여 천문, 지리, 의약, 율산, 경사ⅴ등에 통달함으로써 정치, 경제, 재정, 지방제도, 과거제도, 학제, 병제, 관제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제시한 성호사설을 저술하여 조선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선생은 곽우록, 성호문집 등 저술도 남겼다. 선생의 학문은 그ⅴ후 안정복, 이가환, 이중환 등이 계승하였다.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 조정에서는 선생의 학덕을 기려 이조판서를 추증하였다.
영문	TOMB OF YI IK Kyonggi-do Monument No.40 1(il)-dong, <u>Ansan city</u> This mound is the tomb of Yi IK(1681-1763), a great scholar during the latter years of the <u>Joseon</u> Kingdom(1392-1910). He was born in Unsan, <u>Pyeonganbuk-do</u> where his father was living in exile. Because his father died in exile and his elder brother was killed in a factional strife, he gave up holding any government office to study and teach. Succeeding to the academic traditions of <u>Yu Hyeong-won</u>, He was thoroughly versed in astronomy, geology, medicine, mathematics and the Chinese classics. In his representative work, <u>Seonghosasol</u>, he offered various reform in such fields as politics, economics, finance, provincial administration, state examinations, schools, military service and government. His followers included scholars <u>An Jeongbok</u>, <u>Yi Gahwan</u> and <u>Yi Jeonghwan</u>. After his death, the government posthumously appointed <u>Him</u> a Minister of Personnel for his great scholarly achievements.

(나) 사세충렬문

한글	사세충렬문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8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와동 151 이 건물은 임진왜란 당시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신립(申)稔 장군과 함께 왜적을 막아내다 전사한 장의공 김여물(1548~1592)의 충절과,
----	---

	병자호란 때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김여물의 후실 평산 신씨, 김여물의 아들 김류의 처 진주 유씨, 손자 김경징의 처 고령 박씨, 종손자 김진표의 처 진주 정씨 등의 절개를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 내려준 정문이다. 건물 안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른쪽 칸에는 김여물의 충신 정문이 있고, 왼쪽 칸에 4대 열녀의 정문이 있다. 지금의 건물은 1979년에 중수한 것을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면서 보수한 것이다.
영문	Monument gate of Kim Yeomul and three women Cultural Property of Gyeonggi-do No.8 This is the gate granted by the Royal Court to extol the unswerving loyalty of Kim Yeomul(1548~1592) who was killed at the Battle of Tankeumdae in Chungju during the <u>Japanese</u> invasion of Joseon and the conjugal faithfulness of his second wife whose family name was Sin who <u>kept</u> her chastity with death, the wife whose family name was Yu of his son Kim Ryu, the wife whose family name was Park of his grandson Kim Gyeongjing, and the wife whose family name of Jeong of his great-grandson Kim Jinpyo.

(다) 별망성지

	별 망 성 지 경기도 기념물 제73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56
한글	이 성은 여곶(汝串) 또는 초지영(草芝營)이라고도 하였으며, 바다에 근접해 있는 야산의 능선을 남쪽의 해안에 연결하여 쌓은 평산성(平山城)이다. 이 성은 조선 초기 남양만을 거쳐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쌓았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이곳에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이전에 이미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있던 초지영(草芝營)은 효종 7년(1656)에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폐지되었다. 성의 크기는 둘레가 1,040m이 되고, 높이가 1.2~2.1m라는 옛 기록이 있지만, 6·25전쟁 때 대부분 파괴되었던 것을 1988년에 복원하였

	다. 지금의 성벽은 길이 225m, 높이 1.45m이며, 성벽의 바깥은 돌을 수직에 가깝도록 쌓았고 안쪽은 완만하게 흙을 다져 놓았다. 성 안에는 곳곳에 군대가 머물렀던 60㎡ 안팎의 편평한 터가 있는데 그 언저리에는 자기와 기와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다. 이 성을 고려시대의 삼별초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문헌자료나 출토된 유물로 볼 때 조선시대 초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17세기 중엽에 폐지되기까지 약 250년 동안 서해안을 방어하는 데 쓰인 중요한 성이었다.
영문	Byeolmangseong site Monument of Gyeonggi-do No.73 <u>This fortress</u> is constructed before the 15th century in order to prevent the foreign invasions through the sea. Built near the sea, it is designed to afford the entry and clearance of ships. Until it was abandoned in the mid 17th century, it had been used for the defense of the western sea for about 250 years. It was severely damaged during the Korean War, but was restored in 1988.

(라) 오정각

한글	오 정 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58 이곳은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실패하여 처형을 당한 충의공 김문기(? ~1456)와 그의 아들 김현석의 충신 정문과, 손자인 김충주, 증손자 김경남, 4대손 김약전의 효자 정문이 모셔져 있어 오정각이라 한다. 김문기는 세종 8년(142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치다가 세조가 즉위하면서 공조판서가 되었다. 세조 2년 사육신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 영조 7년(1731)에 관직이 회복되었고, 영조 33년에 충의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묘역 안에 그의 가묘가 만들어져 있다. 지금의 건물은 고종 7년(1870)에 건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

	그때 걸어 놓았던 김문기의 영정은 경상남도 함양군의 후손 집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 오정각에 걸린 영정은 최근에 그린 것이다. 오정각 내부의 정면에는 김문기의 영정이 걸려있고, 그 뒤에 김문기의 정문을 비롯하여 다섯 정문이 있다.
영문	Ojeonggak Cultural Property of Gyeonggi-do No.7 This is called Ojeonggak Memorial Hall for in it there are the gates dedicated for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of 5 generations of <u>Kim Mungi's</u> family: <u>Kim Mungi</u>(?~1456) and his son Kim Hyeonseok who took part in the conspiracy that attempted to restore King Danjong to the throne in the time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and for Kim Chungju, <u>Kim Mungi's</u> grandson, Kim Gyeongnam, his great-grandson, and Kim Yakjeon, his great-great-grandson.

(마) 고송정지

	고 송 정 지 경기도 기념물 제101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화정동 산 Ⅴ54
한글	고송정이 있는 이곳은 조선 세조 때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했던 김문기(金文起)와 그의 아들 김현석(金玄錫)이 참화를 당하자 손자인 김충주(金忠柱)가 도성을 탈출하여 여러 곳을 떠돌다가 정착하여 살던 곳이다. 조선 순조 27년(1827)에 그의 9세손인 김처일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고송정(枯松亭)’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김충주가 단종을 그리며 울었다는 망월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올라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자 주변의 소나무가 말라죽었다는 일화에서 송정(枯松亭)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는 이곳에서 숲을 구워 연명하며 자신을 ‘숲 굽는 노인’이라 하였다 하여 이곳을 ‘탄옹고지(炭翁古址; 숲 굽는 노인의 옛터)’라고도 한다. 정자 서쪽에 ‘炭翁古址’라고 새긴 바위가 있으며 동쪽으로 그

	당시에 심었다는 향나무가 있다. 원래의 건물은 없어지고, 1936년에 후손들이 그 자리에 정면 두 칸 측면 V 두 칸인 정자를 세웠다. 지금의 건물은 1992년에 전면 보수한 것이다.
영문	Gosongjeong site Monument of Gyeonggi-do No.101 This pavilion where Kim Chungju lived after he escaped from the capital city and wandered here and there when his grandfather Kim Mungi and his father Kim Hyeonseok who took part in the conspiracy that attempted to restore King Danjong to the throne in the time of the reign of King Sejo of Joseon were killed. In 1827 Kim Cheoil, the 9th descendant of him built a pavilion and named Gosongjeong Pavilion.

(바) 안산읍성 및 관아지

	안산읍성과 관아지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산 26-4 일원
한글	안산읍성은 수암봉의 능선을 이용하여 쌓은 것으로, 자연 V 지세를 이용하여 성을 쌓는 한국 성곽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성의 둘레는 772m이고, 주요 방어 지역으로 여겨지는 서쪽과 북쪽은 자연 V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몇 층의 높은 단을 이루도록 가파르게 쌓았다. 평지인 남쪽은 돌로 쌓았는데 도로를 내느라 절단한 곳을 보면 성벽의 바닥 V 부분과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석축을 하고 그 안쪽에는 흙을 다져서 성벽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성 안에 조선 V 초기의 무장이었던 김정경(1345~1419)의 거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김정경이 심었다고 전하는 은행나무 세 그루가 남아 있다. 성 안 여기저기에서 기와 조각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이 여러 V 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형태로 보아 군사적인 목적보다는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쌓은 전형적인 V 읍성으로 보이며, 조선 V 초기 왜구를 막기 V 위하여 쌓았던

	서해안 지역의 여러 읍성들과 계통이 같다.
영문	Ansaneupseong and gwana Site Monument of Gyeonggi-do NO.127 This fortress with the girth of <u>772 meters</u> is constructed along a ridge line. The use of natural topography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ortresses. Its form entails that it was used less for military purpose than for administrative purpose while being similar to the fortresses of the western area that was built to prevent Japanese pirates in the early Joseon Period.

(사) 청 문 당

	안 산 청 문 당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
한글	진주 유씨 16대손 유시회(柳時會, 1562~1635)가 처음 지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새로 지은 것이다. √유시회는 조카 유적(柳?)이 선조의 부마로 정해진 후 아버지 유시행(柳時行)의 묘를 부곡동 새 √터에 정하면서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뒤 진주 √유씨는 임금이 하사한 넓은 사패지(賜牌地)와 안산 바닷가의 어염권을 기반으로 이곳에서 살면서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고, 조선 중기에는 기호남인(幾湖南人) √3대 가문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 또 이들이 서고로 사용했던 청문당 만권루(萬卷樓)는 조선 4대 서고의 하나로, 기호남인들의 학문과 예술 활동의 중심이자 실학의 산실이 되었다.
영문	Cheongmundang Academy Cultural property of Gyeonggi-do No.94 It is said that this structure was originally built by Yu Si-hoe (1562 - 1635) from Jinju. However, the present structure was reconstructed in the <u>late</u> Joseon Dynasty. Using a generous

	land grant from the King, Yu Si-hoe cultivated many men of talent by creating a school here. Later in the Joseon Dynasty Mangwollu, one of the four libraries in the Joseon Dynasty became a seat of practical science and also the center of learning and arts of the southern branch of the Giho school.
--	--

(아) 대부도 자선비

한글	자 선 비(慈 善 碑) 안산시 향토유적 제20호 단원구 대부남동 V 1066-133 이찬(李燦) V 선생은 한말(韓末)에서 1920년대 초까지 생존한, 이 고장의 덕망가, 재산가, 유지로서,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이다. 선생은 부농(富農)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남동 일원의 토지가 거의 그의 소유라 할 만큼 대지주였으며, 많은 소작인을 거느렸다. 선생은 마음이 너그럽고 인정이 두터워 가난한 소작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빚과 소작료(小作料)를 탕감(蕩減)해 주는 등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큰 덕량(德量)을 베풀었다고 한다. 선생이 별세(別世)하자 은의(恩義)를 입은 마을 사람들이 거향적(舉鄉的)으로 장례(葬禮)를 치르고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지금의 남동에 있는 선생의 묘소 V 앞에 자선비(慈善碑)를 세웠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선생의 가세가 기울고 후사(後嗣)가 끊기자 선생의 선행도 점차 잊혀갔다. 그리고 자선비가 섰던 자리에 길이 나는 등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 1980년 4월 5일 대부남동 산 V 85-11번지로 옮겨 세웠다가 대부도 시도 V 2호선 도로 V 건설 때문에 2001년 6월 17일 다시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석은 시멘트조로 만들어졌다. 비의 크기는 높이 140cm, 폭 34.5cm, 두께 15cm이다.
	The monument of benevolence Local provincial relics, No.20 of Ansan city Located at 1066-133, Namdong, Ansan city Lee Chan. who lived in <u>the late</u> Yi Dynasty and early 1920s, was a man of property and interested person highly respected by

	many people at that time in this area. His family origin was <u>Gyeongju</u> as well. He was born <u>with</u> golden spoon, a son of the richest. While he <u>was</u> alive, the land of Namdong area mostly belonged to him as a big landowner. So most of the land was cultivated by many tenant farmers. However, <u>it</u> is said that Lee Chan himself was so humble and considerate that he could understand the hardship of the poor and public's mind very deeply. He gave them some of the land and wrote off their debts and rent for tenancy. which was common man couldn't think. After he died, the town people favored had a really big funeral ceremony and they couldn't forget his grateful heart of human loving. Consequently, in order to commemorate his will, the monument of benevolence was erected.
--	---

(7) 서울 동대문구청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현판

상담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11. 7. - 2008. 11. 12.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박미서(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

(제1안)

박물관 개관

우리민족의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국내외에 알리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과 (사)서울약령시협회는
10여년간 뜻을 모아
옛날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던
보제원이 있었고
현재 국내 최대 한약재시장인 서울약령시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개관한다.

2006년 9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0 0 0
(사)서울약령시협회장 0 0 0

(제2안)

박물관 개관

우리민족의 우수한 한의약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국내외에 알리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과 (사)서울약령시협회는
10여년간 뜻을 모아
옛 보제원이 있던 서울약령시에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개관한다.

2006년 9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0 0 0
(사)서울약령시협회장 0 0 0

<제2안 수정안>

한의약 박물관 개관

우리의 한의약 문화를 발전시키고 널리 국내외에 알리고자, 동대문구청과
(사)서울약령시협회가 함께 옛 보제원이 있던 이곳에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을 개관한다.

2006년 9월 13일
동 대 문 구 청 장 0 0 0
(사)서울약령시협회장 0 0 0

(8)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정수장 유적 안내판

상담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3. 20. - 2008. 3. 31.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김한중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水源池第一淨水場)

* 뚝섬(뚝섬을 뚝도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잘못 사용하는 것임.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쓴다면 ‘독도(蘓島)’가 되어야 함. 그러나 새삼스럽게 한자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이미 일반에 잘 알려진 ‘뚝섬’을 쓰는 것이 좋겠음. ‘뚝도’라는 명칭은 이 수원지 이름에 쓰인 것 외에는 사용처가 없음. ‘뚝섬유원지, 뚝섬역’을 참고삼아서 ‘뚝섬수원지’로 이름을 바꾸기 바람.)

* 제목에는 ‘제1정수장’이 있는데 내용에는 ‘뚝도수원지’와 ‘송수실’만 설명하고 ‘제1정수장’은 설명하지 않음.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2호

시 대 : 융희2년(1908)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뚝도수원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수도 수원지이다. 1903년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워크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상수도 시설에 관한 특허를 얻어 1906년 펌프가 설치된 송수실과 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과지 공사를 시작하여 1908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다. 수원지를 시내에서 떨어진 뚝섬에 설치한 까닭은 청계천과 중랑천의 생활하수가 흘러들지 않는 한강 상류에서 맑은 물을 얻기 위함이었다. 뚝도수원지에서 생산된 물은 대현산 배

수지를 통해 서울의 4대문 안과 용산 일대에 공급되었는데, 당시 서울시내 5만 6천호 중 삼분의 일인 1만 8천호가 이 수원지의 혜택을 받았다.

물을 내보내는 펌프가 설치된 송수실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서, 현관은 화강석 아치로 구성되었고, 좌우에 아치형 창호가 배치되었다. 주 출입구 양옆에는 ‘경성수도양수공장’을 새긴 화강석 판과 대한제국 연호를 넣어 ‘광무11년 건축’이라고 새긴 화강석 판이 붙어 있다. 주 출입구 현관 상부에는 ‘Seoul Water Works 1907’이라는 글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수원지 시설에는 ‘물공장(수도양수공장)’이라는 재미있는 말이 새겨져 있다.

완속여과지(緩速濾過地)

Slow Sand Filter

* 완속(緩速)이라는 단어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편찬)에 없음.

물리학에서는 ‘완속물질’을 ‘감속재’로 순화하여 쓰고 있고, 일부에서 빠른 속도(급속도)에 대응하는 말로 느린 속도를 ‘완속도’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편성이 없음. 따라서 ‘완속여과지’라는 말 대신에 ‘느린 여과지’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추천함. ‘급속여과지’는 ‘빠른 여과지’라고 하면 좋겠음.

* ‘여과지’의 한자는 ‘濾過地’가 아니라 ‘濾過池’임.

* 완속여과지를 영어로 Slow Sand Filter를 썼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음. ‘여과지’는 filter bed(filter basin)라고 하니 slaw filter bed라고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확인 바람.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2호(1989.09.11지정)

규 격 : 폭 21.9m, 길이 35.3m

깊 이 : 3m(모래+자갈70cm)

여과지면적 : 총 4,344㎡(6지)

시 대 : 융희2년(1908)

운 영 기 간 : 1908년8월-1908월(82년)

이 여과지는 1908년에 다섯 지(池)가 완공되었고, 1938년 한 지가 증설되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현존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과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치구조로 지었고, 사각형 철근을 사용했다. 아치의 상부는 철근콘크리트로 덮고, 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해 흙을 60cm 두께로 덮었는데, 현재는 철근콘크리트의 안전 때문에 흙

을 제거했다.

이 여과지는 모래층의 내부 또는 표면에 증식하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중의 부유 물질이나 용해성 물질 같은 불순물을 걸러 산화하고 분해하는 시설이다. 여과 속도는 4m/일 정도로, 120m/일인 급속여과지에 비해 매우 느리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정수 시설에 비해 30배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완속여과지는 원수의 수질이 양호할 경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산 시설이다. 완속여과지는 장치가 간단하고 운전 및 유지 관리가 비교적 쉬워 비전문가도 운영할 수 있고 또 경제적이기 때문에,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정수 시설로 많이 이용된다.

정수지 (淨水地)

Clear Well

* 정수지의 한자는 ‘淨水地’가 아니라 ‘淨水池’임. 영어로는 ‘cleaning bed’이다. ‘clear well’이라고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규 격 : 1지-폭 20.8m,깊이3.4m 2지 - 폭 20.0m, 깊이 3.2m

정수지 면적 : 총 672m² (2지)

시대: 융희2년(1908)

운영기간 : 1908년8월-19908월(82년)

정수지는 여과된 수량(水量)과 공급할 수량 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여과지 등 정수 시설 보수에 대비하여 수량의 일부를 저장하는 곳으로, 여과 후에 주입된 염소를 균일화하고 수질을 안정시키는 최종 단계의 시설이다. 정수지에서 염소와 충분히 접촉한 물은 공급 과정에서 세균 등에 오염될 염려가 없다.

(9) 강원도 횡성군청 한우현장

상담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 10. 1. - 2008. 10. 2.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임춘섭(한우명품담당)

황 성 한 우 헌 장(안)



황성한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쇠고기로서 오랫동안 소비자의 따스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다. 이에 우리는 황성한우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황성한우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황성한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생명체로 인식한다.
1. 황성한우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건강한 한우로 사육한다.
1. 황성한우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한우로서의 품격을 높인다.
1. 황성한우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식품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
1. 황성한우는 우리고장의 전략 품목으로써 선진화의 기반을 닦아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한다.

5.

『황성한우헌장』 세부이행표준 선정

첫째항목] 황성한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생명체로 인식한다.

- 황성군 한우양축가들은 황성한우를 자식 키우듯이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 피겠습니다.
-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황성한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 황성한우로 키워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사육기술의 집약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항목]

황성한우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건강한 한우로 사육한다.

- 횡성한우농장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문 또는 외부와의 구분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차단방역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농장의 정문에는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농장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우사내 우분과 혼합된 톱밥은 최소한 6개월 이내의 주기로 교체하겠습니다.
-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
- 한우사육농가는 반드시 HACCP 지정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청정횡성한우임을 입증하겠습니다.
- 횡성한우의 1등급이상 출현율 100%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항목]

**횡성한우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한우로서의
품격을 높인다.**

- 횡성군 지역협력단, 횡성한우 포럼, 한우발전실무협의회 운영, 한우리 위크숍 등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발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횡성한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 우수한 혈통을 가진 번식암소를 지속 유지하여 횡성한우의 혈통을 보전하는데 양축가가 앞장서겠습니다.
- 고등등록우의 송아지생산을 장려하여 횡성한우의 계대를 형성하고 모계중심으로의 개량을 촉진하겠습니다.
-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하인센티브 지원을 비육기술의 향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수송아지는 조기에 거세하고, 횡성산 혈통 송아지의 경매시장 활용을 약속하겠습니다.
- 한우의 유전적인 차별성을 위하여 횡성한우 씨수소 선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항목]

**횡성한우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식품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다.**

- 농가 스스로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외지산 한우를 유입하지 않겠습니다.
- 횡성한우 생산농가는 위기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한우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횡성한우를 공급하는데 관·학·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 군은 과학적이고 양질의 축산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축가와 유통업체는 고품질 횡성한우를 생산·유통하겠습니다.
- 유용미생물(생균제)를 이용하여 친환경 횡성한우의 사양기술 확산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횡성한우 초음파 육질측정 컨설팅을 통한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횡성한우와 관련된 취급업소에서는 스스로 결속하여 수입육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 업소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횡성한우 둔갑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횡성한우 지킴이 활동과 횡성한우식품 클린-콜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항목]

**횡성한우는 우리고장의 전략품목으로서 선진화의 기반을 닦아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한다.**

- 횡성한우명품화사업에 의한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 고능력 횡성한우 암소의 우수개체 선발·육성을 위한 암소종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한우관련 분야별 전문CEO를 육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을 위한 명인 육성과 후계자 발굴을 위하여 양축가 모두 앞장서겠습니다.

- 품격 있는 횡성한우전문점 지정으로 원산지과 품질수준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세계인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횡성한우축제를 통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횡성 한우 현장(감수안)

횡성한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쇠고기로서 오랫동안 소비자의 따스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다.

이에 우리는 횡성한우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횡성한우 현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횡성한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생명체로 인식한다.
1. 횡성한우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건강하게 사육한다.
1. 횡성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한우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사육한다.
1. 횡성한우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축산 식품 산업을 선도하도록 한다.
1. 횡성한우는 우리 고장의 전략 상품으로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첫째 항목] 횡성 한우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귀중한 생명체로 인식한다.

- 횡성군 한우 양축가들은 횡성 한우를 자식 키우듯이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피겠습니다.
-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횡성 한우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로 키워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사육 기술의 집약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항목] 횡성 한우는 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건강하게 사육한다.

- 횡성 한우 농장은 출입자 및 출입 차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문 또는 외부와 구분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차단 방역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농장의 정문에는 차단 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농장 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 우사 내 우분(쇠똥)과 혼합된 톱밥은 최소한 6개월 이내의 주기로 교체하겠습니다.
-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준수)
- 한우 사육 농가는 반드시 HACCP 지정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청정 횡성 한우임을 입증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 100%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항목] 횡성 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한우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사육한다.

- 횡성군 지역 협력단, 횡성 한우 포럼, 한우 발전 실무 협의회 운영, 한우리 워크숍 등을 통하여 횡성 한우의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횡성 한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 우수한 혈통을 가진 번식 암소를 지속 유지하여 횡성 한우의 혈통을 보전하는 데 양축가가 앞장서겠습니다.
- 고등 등록우의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여 횡성 한우의 계대를 형성하고 모계 중심으로의 개량을 촉진하겠습니다.
-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하 인센티브 지원에 비육 기술 향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수송아지는 조기에 거세하고, 횡성산 혈통 송아지의 경매 시장 활용을 약속하겠습니다.
- 한우의 유전적인 차별성을 위하여 횡성 한우 씨수소 선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항목]

횡성 한우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축산 식품 산업을 선도하도록 한다.

- 농가 스스로 횡성 한우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외지산 한우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 횡성 한우 생산 농가는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한우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횡성 한우를 공급하는데 관·학·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 군은 과학적이고 양질의 축산 기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축가와 유통 업체는 고품질 횡성 한우를 생산·유통하겠습니다.
- 유용 미생물(생균제)을 이용하여 친환경 횡성 한우의 사양 기술 확산 및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 초음파 육질 측정 컨설팅을 통한 과학적인 사양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와 관련된 취급 업소에서는 스스로 결속하여 수입육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 업소 간 상호 정보 교환으로 횡성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횡성 한우 지킴이 활동과 횡성 한우 식품 클린-콜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유통 경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둔갑 판매

를 방지하여 국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항목] **횡성 한우는 우리 고장의 전략 상품으로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 횡성 한우 명품화 사업에 의한 안정적 사육 기반 확충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 고능력 횡성 한우 암소의 우수 개체 선발·육성을 위한 암소 종합 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한우 관련 분야별 전문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경쟁력 있는 한우 산업을 위한 명인 육성과 후계자 발굴을 위하여 양축가 모두 앞장서겠습니다.
- 품격 있는 횡성 한우 전문점 지정으로 원산지과 품질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 브랜드 가치를 세계인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 횡성 한우 축제를 통하여 횡성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

(10) 강원도청 비무장지대 박물관 설명문

상담 종류: 문장 교열

기간: 2008년 11월 10일 ~ 11월 15일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조경숙

담당자: 윤동근(스페이스 밸런스)

● 19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의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설치한 액체폭발물에 의해 폭파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여 각종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북한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외교적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김현희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1990.3.27)되었으나 전향의사 표명과 김정일의 도구로써 이용된 점이 참작되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

되었다.

<교열> 1987년 11월 28일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의 공작원 김승일과 설치한 액체폭발물이 폭발되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여 각종 제재를 가하였고, 일본도 북한 공무원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외교적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김현희는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1990. 3. 27.)를 받았으나 전향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김정일의 도구로 이용된 점이 참작되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 1998년 6월22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동쪽 18Km지점 우리 영해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어선이 뿌려놓은 끈치 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6월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됐다. 이 잠수정에서는 승조원과 공작원 등으로 추정되는 9구의 시신이 자폭한 채 발견됐다.

<교열> 1998년 6월 22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동쪽 18Km 지점 우리 영해에서 어선이 쳐놓은 끈치 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는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을 해군 함정이 6월 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하였다. 이 잠수정에서는 승조원과 공작원 등으로 추정되는 자폭한 시신 9구가 발견됐다.

● 미2사단이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고전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도록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투였다. 처음에 국군 제7사단이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새로 투입한 국군 제8사단이 악전고투 끝에 백석산을 탈환해 적의 전투력을 분산시키고 미2사단의 ‘단장의 능선 작전’ 지원에 성공했다.

<교열> 미 제2사단이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고전하던 전황을 뒤집기 위하여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전투였다. 처음에 국군 제7사단이 공격했으나 새로 투입한 국군 제8사단이 악전고투 끝에 백석산을 탈환해 적의 전투력을 미 제2사단의 ‘단장의 능선 작전’ 지원에 성공했다.

●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124군 부대의 무장공비 120명이 경북 울진 ·

삼척지구에 침투하였다. 이들은 응봉산을 중심으로 한 4개 마을의 주민을 포섭하고 노동당에 가입을 강요하며 위조지폐로 선심공작을 하였다.

<교열>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 124군 부대의 무장공비 120명이 경북 울진·삼척지구에 침투하였다. 이들은 응봉산을 중심으로 하여 4개 마을의 주민을 포섭하고 노동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며 위조지폐로 선심공작을 폈다.

● 1998년 6월22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동쪽 18Km지점 우리 영해에서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이 어선이 뿌려놓은 콩치 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다 해군 함정에 의해 6월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됐다. 이 잠수정에서는 승조원과 공작원 등으로 추정되는 9구의 시신이 자폭한 채 발견됐다.

<교열> 1998년 6월 22일 오후 4시 강원도 속초시 동쪽 18Km 지점 우리 영해에서 어선이 쳐놓은 콩치 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하는 북한의 유고급 잠수정 1척을 해군 함정이 6월 23일 새벽 동해안으로 예인하였다. 이 잠수정에서는 승조원과 공작원 등으로 추정되는 자폭한 시신 9구가 발견됐다.

● 1936년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었다. 8.15해방 전까지는 선교와 육영사업을 하였으나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는 기독교 청년학생들이 반공투쟁을 벌였다. 6.25전쟁 당시는 북한군이 막사로 쓰면서 지하실을 양민과 반공투사들을 고문과 학살 장소로 사용하였다.

<교열> 1936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8·15해방 전까지는 선교와 육영사업을 하던 곳이었고 해방 후 공산치하에서는 기독교 청년학생들이 반공투쟁을 벌인 곳이다. 6·25전쟁 당시에는 북한군이 막사로 쓰면서 지하실을 양민과 반공투사들을 고문과 학살 장소로 사용하였다.

● 넓은 범위(대략 반경 27~32m)에 파편을 퍼뜨리기 때문에 살상효과 큰 지뢰이다.

<교열> 과편이 매우 넓게(대략 반경 27~32m) 퍼져나가기 때문에 살상효과 큰 지뢰이다.

● 군수물자에 묻어온 유해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는 이미 변화했고 북한의 화전으로 벌거숭이 산하가 되었다. 또한 시야 확보를 위한 맞불 작전으로 DMZ는 커다란 수목조차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교열> 군수물자에 묻어온 유해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는 이미 변화했고 북한의 화전으로 산하는 벌거숭이가 되었다. 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맞불 작전으로 DMZ는 수목조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 6·25전쟁 발발이전 1948년 8월 북한은 군사적 연결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교량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지역주민들이 ‘노력공작대’ 라는 이름으로 총동원되어 6·25전쟁 초까지 다리 기초 공사와 2개의 교각을 세워 북쪽 부분은 거의 완성되고 남쪽부분은 남게 되었다. 그 이후 이지역이 수복되어 국군에 의해 임시목조 가교가 놓여 졌다가 1958년 12월 미완성된 부분이 마감되어 다리가 완공되었다. 다리이름은 원래 '한탄교'라는 이름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승만대통령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합해 ‘승일교’ 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해지고 있다. 한편 6·25당시 한탄강을 건너 북진하던 도중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고 박승일(朴昇日)대령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승일교’로 명명되었다는 설도 있다.

<교열> 6·25전쟁 발발 이전 1948년 8월 북한은 군사적 연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량설치공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노력공작대’ 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을 총동원하여 6·25전쟁 초까지 다리 기초 공사를 하고 2개의 교각을 세워, 북쪽 부분은 거의 완성되고 남쪽 부분만 남게 되었다. 그 후 이 지역이 수복되어 국군이 임시로 목조 가교를 놓았다가 1958년 12월 미완성된 부분을 마무리하여 다리를 완공하였다. 원래는 '한탄교'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승만대통령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합해 ‘승일교’ 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해지고 있다. 또 6·25당시 한탄강을 건너 북진하던 도중 전공을 세우고 전사한 고 박승일(朴昇日)대령의 우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승일교’로 명명하였다는 설도 있다.

(11) 서울메트로 발매기 설명문

상담 종류: 문장 교열

상담자: 한국방송

담당자: 서울메트로9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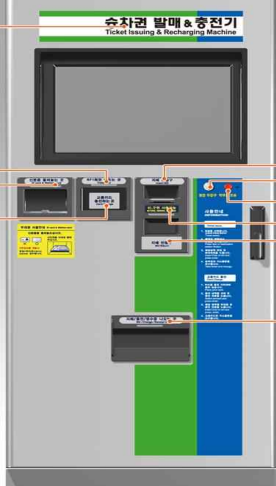
서울메트로 자립형 발매기

현 재	수정 안
1 우대권 사용안내 ID card & Welfare card 신분증을 올려놓으십시오. 사진면을 아래로 향해 주십시오. [[부정사용 적발시 운임+부과금(이용구간 요금30배) 징수합니다.	
2 사용안내 INFORMATION 승차권 발매 Ticket Issue 1. 권통을 선택합니다. 권통을 투입합니다. Ticket select. 2. 목적지 역명이나 운임을 선택합니다. Press fare or destination station Button. 3. 해당금액 투입 후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Insert Coin or bill and press enter. 4. 승차권과 거스름돈을 회수합니다. Take ticket and change. 교통카드 충전 Card Charge 1. 카드를 충전 거치대에 올려 놓습니다. Place your card. 2. 충전 금액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Select amount and press enter. 3. 해당 금액을 투입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Insert Coin or bill and press enter. 4. 교통카드와 거스름돈을 회수합니다. Take card and change.	



서울메트로 자립형 발매기

현 재	수정 안
1 승차권 발매 & 충전기 Ticket Issuing & Recharging Machine	
2 RF1 회권 나오는 곳 Ticket Out	
3 신분증 올려 놓는 곳 ID card & Welfare card	
4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 Card Charge	
5 지폐 투입구 Bill Insert	
6 동전 투입구	
7 역무원 호출	
8 신, 구권 사용가능 ₩1000, ₩5000, ₩10000	
9 지폐 반환구 Bill Return	
10 지폐/ 동전 / 영수증 나오는 곳 Bill/ Charge/ Receipt Out	



현재	수정안
1. 승차권 발매 & 충전기	
2. RF1회권 나오는 곳	RF1회권 -> 승차권
3. 신분증 올려놓는 곳	
4.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	
5. 지폐 투입구	지폐 넣는 곳
6. 동전 투입구	동전 넣는 곳
7. 역무원 호출	역무원 부름(호출은 부름으로 순화)
8. 신, 구권 사용가능	신·구권 사용 가능(,를 ·로)
9. 지폐 반환구	지폐 돌려받는 곳
10. 지폐/동전/영수증 나오는 곳	지폐·동전·영수증 나오는 곳(/를 ·로)
우대권 사용안내 신분증을 올려놓으십시오. !!부정사용 적발시 (이용구간요금30배)	우대권 사용 안내(띄어쓰기) 신분증을 올려놓으십시오. 부정 사용할 경우! (이용 구간 요금 30배)
사용안내 권종 해당금액 투입 후 확인버튼 회수합니다. 거치대 선택 후	사용 안내 승차권 종류 해당 금액을 넣은 후 확인 버튼 가져가세요. 충전하는 곳 선택한 후

(12) 기타

원고에 직접 교열하여 보냈기 때문에 이곳에 제시할 수 없게 된 성과물이 상당한 제목만 제시한다.

- * 국방부 국방백서 교열: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 * 감사원 감사문장 교열: 제주대 국어문화원
- *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고객센터현장 교열: 충북대 국어문화원
- * 한국수자원공사(고객현장) 교열: 충북대 국어문화원
- * 국가기록원 일반기록물 기술규칙 교열: 충북대 국어문화원
- * 청주시 홍보물 『만화로 보는 우리 고장 청주』 교열: 충북대 국어문화원
- * 청주시 도로표지판 등 교정·교열: 충북대 국어문화원

[2] 표기(국어의 로마자 표기, 외국어의 한글 표기) 관련 상담

(1) 안산시청 도로 표지판

상담 종류: 국어의 로마자 표기, 용어 순화

기간: 2008. 2. 18. - 2008. 3. 5.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담당자: 안옥희(총무과)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와~스타디움	1층	안산시 체육회 창고	Ansan city life storehouse	the storehouse of Ansan Athletic Association
	1층	이재민구호창고/생활체육회창고	Victims/Athletic life storehouse	the storehouse for the Aid of Sufferers/ the storehouse for the Amateur Sports
	1층	매표소	Ticket agent	ticket office
	1층	1호 매점	Snaks	snack bar
	1층	전기실	Electrical Room	electrical room
	1층	발전기실	Generator Room	generator room
	1층	EPS실	EPS Room	EPS Room
	1층	홍보관실	Publicity Exhibition Hall	the room for the public affairs officer
	1층	안산체육회	Ansan city sports council	Ansan Athletic Association
	1층	방재실	prevention of disasters Room	the room for the prevention of disasters
	1층	통신실	Correspondence Room	communications room
	B1층	중앙감시실	Center person Room	central monitoring room(pulpit room)
	B1층	기계실	Machinery Room	machinery room
	1층	용역원실	Service Corp Room	Service corps Room
	1층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사무국	The council office for the ansan pact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Ansan council office for the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pact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와~스타디움	1층	회의실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
	1층	서고	Document Archives	stack room
	1층	상황실	Briefing Room	briefing room
	1층	심판원실(여)	Referee Room (women)	referee room (women)
	1층	약물검사실	Medicine Examination Room	doping test room
	1층	심판원실(남)	Referee Room (men)	referee room (men)
	1층	심판장실	Head Referee Room	head referee room
	1층	경기운영실	Play Operation Room	game operation room
	1층	안산할렐루야 선수단 숙소	Ansan Hallelujah player's quarters	Hallelujah club training camp
	1층	체육단체 회의실	Sports Association conference Room	the athletic organization conference room
	1층	경기결과 처리실	Play result processing Room	the game results processing room
	1층	사진판정실	Photo Decision Room	the photo decision room
	1층	상소심판실	Appeal Decision Room	the appeal decision room
	1층	안산시 생활체육 협의회	The ansan city council of sport for all	the association of the amateur sports
	1층	공조실	Ventilating Room	ventilating room
	1층	안산할렐루야 야구단사무실	Ansan Hallelujah club office	Hallelujah club office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한)문	영(한)문
공단전망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산36	공단전망대	industrial complex observation platform	observation platform in the industrial complex
표지판	고향마 을(아) 단지내 사업소 앞	사할린영주 귀국동포 지원사업소	Service Office For Korean Sakhalin Returnee	the Service Office For Korean Returnee from Sakhalin
			한문명: 사할린 永住歸國同胞 支援事業所	사할린 永住歸國同胞 支援事業所
상록수 보건소 안내표 지판	사동 1584	상록수보건소	Sangnoksu Health Center	Sangnoksu Health Center
안산시 립노인 전문병 원 안내 표지판	사동 1586	안산시립노인 전문병원	Ansan City Geriatric Hospital	Ansan Municipal Geriatric Hospital
안산시 립 노인 전문병 원 실내 표찰	사동 1586	한방과	Oriental Medicin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재활의학과	Rehabilitaion	Rehabilitaion
		정신과	Psychiatry	Psychiatry
		신경과	Department of Neurology	Neurology
		내과	Internal Medicine	Internal Medicine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ADL Room	ADL Room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각골운동 장 (21주구)	본오동 728	각골 운동장	Gakgol Playground	Gakgol playground
사리운동	본오동	사리	Sari	Sari playground

장 (23주구)	968	운동장	Playground	
장화운동 장 (24주구)	사동 1502- 1	장화운동장	Janghwa Playground	Jangwha playground
용하운동 장 (25주구)	사동 1535- 2	용하 운동장	Yong-ha <u>Stadium</u>	Yong-ha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반월공원	본오동 723	반월공원	BANWOL PARK	Banwol park
사리운동장	본오동 968	사리운동장	Sari Playground	Sari playground
점섬운동장 (17주구)	부곡동705	점섬운동장	Jeomseom Playground	Jeomseom playground
안골운동장 (18주구)	일동720	안골운동장	Angol Palyground	Angol playground
구룡체육관/ 구룡운동장 (19주구)	상록구 이동 609-3	구룡체육관·운 동장	Guryong Gymnasium Playground	Guryong gymnasium/playground
상록운동장 (20주구)	본오동 1111	상록 운동장	Sangrok Playground	Sangnok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석수골운동 장 (9주구)	선부동 1068	석수골 운동장	Seoksugol Playground	Seoksugol playground
신촌운동장 (11주구)	와동 813	신촌운동장	Sinchon Playground	Sinchon playground
당곡운동장	고잔동	당곡운동장	Donggok	Danggok playground

(13주구)	677-1		Playground	
민속운동장	고잔동 779	민속운동장	Minsok Playground	Minsok playground
제27주구운동장	고잔동 713-3	제27주구운동장	-	the 27th residential section playground (27-jugu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돌안말운동장 (1주구)	성곡동 627-2	돌안말운동장	Dolanmal Playground	Dolanmal playground
능길운동장 (2주구)	신길동 1053	능길운동장	영문표기 없음	Neunggil playground
능안운동장 (4주구)	목내동 472	능안운동장	Neungan Playground	Neung-an playground
관산체육관/ 관산운동장 (7주구)	원곡동 936	관산체육관/운동장	Gwansan Gymnasium/ Playground	Gwansan gymnasium/playground
근로자운동장 (8주구)	원곡동 946-1	근로자운동장	Geunroja Playground	Geulloja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감골시민홀	감골 시민홀 사거리	감골 시민홀	없음	Gamgol civic center
	상록구 사동 1342	감골 시민홀	Gamgol Citizen Hall	Gamgol civic center
와동 체육관	와동 813	와동 체육관	Wadong Gymnasium	Wadong gymnasium
구룡	상록구	구룡	Guryong	Guryong

체육관 /구룡 운동장	이동 609-3	체육관· 운동장	Gymnasium · Playground	gymnasium/playground
관산 체육관	원곡동 936	관산체육관	Gwansan Gymnasium	Gwansan gymnasium

시설물명	위치	위치 (안내)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안산시초지 종합 사회복지관	초지동 604-3	안산시초지 종합사회 복지관	Choji social welfare center	Choji social welfare center
안산시본오 종합 사회복지관	본오동 523-1	안산시본오 종합사회 복지관	Bono General social worker of Ansan city	Bono social welfare center
안산시부곡 종합 사회복지관	부곡동 711	안산시부곡 종합사회 복지관	Ansan Bukok social welfare center	Bugok social welfare center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올림픽 기념관	고잔동 604번지	올림픽 기념관	Olympic Memorial Hall	Olympic Memorial Hall
		올림픽 기념 국민 생활관	Olympic Commemoration Hall	Olympic memorial civic center
능안 운동장	목내동 472	능안 운동장	Neungan PLAYground	Neung-an playground
관산 운동장	원곡동 936	관산 운동장	Gwansan PLAYground·	Gwansan playground
근로자 운동장	원곡동 946-1	근로자 운동장	Geunroja PLAYground	Geulloja playground

석수골 운동장	선부동 1068	석수골 운동장	Seoksugol PLAYground	Seoksugol playground
------------	-------------	------------	-------------------------	----------------------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당곡 운동장	고잔동 677-1	당곡 운동장	Dolanmal PLAYground	Dangnok playground
민속 운동장	고잔동 779	민속 운동장	Minsok PLAYground	Minsok playground
신도시 운동장	고잔동 713-3	제27주구 운동장	없음	the 27th residential section playground (27-jugu playground)
신도시 임시 운동장	푸르지오 1차 옆	신도시 임시 운동장	없음	the new town temporary playground (Sindosi imsi playground)
안골 운동장	일동720	안골 운동장	Angol PLAY ground	Angol playground
점섬 운동장	부곡동 705	점섬 운동장	Jeomseom PLAYground	Jeomseom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구룡 운동장	이동 609-3	각골 운동장	Gakgol PLAYground	Gakgol playground
상록 운동장	본오동 1111	상록 운동장	Sangrok PLAYground	Sangnok playground
각골 운동장	본오동 728	각골 운동장	Gakgol PLAYground	Gakgol playground
사리		사리	Sari	Sari playground

운동장	본오동 968	운동장	PLAYground	
용하 운동장	사동 1535-2	용하 운동장	Yong ha PLAYground	Yongha playground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장화 운동장	사동 1502-1	장화 운동장	Jang hwa PLAYground	Jangwha playground
청소년 수련관	상록구 성포동 214-1	청소년 수련관	Ansan Youth Center	Ansan Youth Center
		대덕과학 탐구 학습관	DAEDUCK Science Research Learning Center	Daedeok science research & learning center
안산 청소년 문화의집	단원구 선부동 1070-10	안산 청소년 문화의집	-	Ansan youth culture center
사동 디지털 문화의집	상록구 사동 1468-1	사동 디지털 문화의집	-	Ansan digital culture center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상록구 일동 596-6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	IL-Dong Youth Culture Center	Il-dong youth culture center
화정 영어마을	단원구 화정동 515번지	안산 화정 영어마을	ANSAN HWAJEONG ENGLISH VILLAGE	Hwajeong English Village

사무실명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시장실	시장실	Mayor. Room	mayor's room
시민의 시장실	시민의 시장실	Mayor's office For Citizens	citizen mayor's room
부시장실	부시장실	Vice-Mayor Room	deputy mayor's room

행정지원 국	행정지원국장실	Director-General of Administrative Supporting Depit	the office of director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ing department
주민생활 지원국	주민생활지원 국장실	Director General's office of the Department of Life Support for Citizens	the office of director of the life support fo citizen department
공보담당 관	공보담당관실	Information Services & Public Information	administrator of the public information
감사담당 관	감사담당관실	The Office (of) Auditor-in-charge	auditor's room
총무과	총무과	Genneral offair Divsion	the general affair section
자치행정 과	자치행정과	Aotonomous Administration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section
회계과	회계과	Accounting Division	accounting section
세정과	세정과	Taxation Affairs Division	tax administration section
정보통신 과	정보통신과	Information & Communication Divion	information & communication section
기획예산 과	기획예산과	Planning & Budget Division	planning & budge section
문화관광 과	문화관광과	Culture & Tourism Divison	culture & tourism section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Division of Life Support for Citizens	life-support for citizer section
사회복지 과	사회복지과	Social Welfare Division	social welfare section
가족여성 과	가족여성과	Family & Women Division	family & women section

사무실명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단원보건	보건소장실	Head of Health Center	Head of Health Center
	결핵관리실	Anti TB. Management	Anti-tuberculosis room

소 실내 표찰	사무실	Office	Office
	한방진료실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재활보건실	Rehabilitaion Therapy	Rehabilitation Therapy
	치과진료실	Dental Clinic	Dental Clinic
	방문건강관리실	Home-visiting Care	Home-visiting Care
	일반진료실	Primary Medical Clinic	Primary Medical Clinic
	보건교육실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운동처방실	Exercise Prescription	Exercise Prescription
	모자보건실	Mother-Child Health	Mother-Child Health
	영유아관리 예방접종실	Infant Management Inoculation	Infant Management & Vaccination
	놀이방	Child Room	Play room
	금연클리닉	No Smoking Clinic	anti-smoking clinic
	접수실	Reception	Reception
	임상병리실	Clinical & Pathological Lab	Clinical & Pathological Lab
	방사선실	X-ray	X-ray

사무실명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부대시설	당직상황실	Night Duty & Certral Monitoring Room	monitoring room fo the man on watch
	성차별신고센 타	Gender Discrimination Complaint Center	Gender Discrimination Complaint Center
	복지상담실	Office of Welfare Consulting Services	office of the welfare consultation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Free Legal Consultaion office For citizen	office of the free legal consultation
	건축허가종합 심의실	Construction Dermit Deliberation office	office of the construction permi deliberation
	청문실	Public Hearing Room	Public Hearing Room
	상설감사장	Permanent Auditing Room	Permanent Auditing Room
	직원상담실	Counselling Room	Counseling Room
	브리핑룸	Briefing Room	Briefing Room

	문서D/B팀	Document Database Division	Document Database Team
	시정방송실	Broadcasting Room	Broadcasting Room
	휴게실	Lounge	Lounge
	모유수유실	Breast feeding Room	Nursing Room
	문서접수실	Document Processing Room	Document Processing Room
	전기실	Electric Power Room	Electrical Room
	기계실	Machine Room	Machine Room
	신용협동조합	Credit Union	Credit Association

사무실명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도시과	도시과 지적담당	City Planning Divsion	official in charge of land registration city planning section
건설과	건설과	Construction Division	construction section
재난관리 과	재난관리과	Disaster Management Division	disaster management section
건축과	건축과	Architecture Division	architecture section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Sewage Division	sewage section
기획예산 과	심사평가담당	Review Evaluation	official in charge of judgment
기획예산 과	예산1,2담당	Budget 1, 2 Section	official in charge of budge 1, 2
창조경제 국	창조경제국실	-	the Bureau of the Creation & Economy
도시교통 국	도시교통국장 실	-	room for the director of urban transportation bureau
신설부서	투자경영과	-	investment & management section
	도시경제과	-	urban economy section

	생명과학과	-	life science section
	스포츠산업과	-	sports industry section
	지구환경과	-	global environment section
	푸른녹지과	-	greens section(afforestation section)
	시민공원과	-	park section
	도시계획과	-	city-planning section
	도시디자인과	-	city design section
	교통기획과	-	transportation planning section
	대중교통과	-	public transportation section
부대시설	대회의실	Grand Conference Room	Grand Conference Room
	제1회의실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
	상황실	Contral Monitoring Room	Briefing room(Monitoring room)
	당직실	Night Duty Head Officer Room	room for the person on watch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와~스타디움	1층	트레이닝실	Training Room	training room
	1층	응급실	First-Aid Room	emergency room, first-aid station
	1층	선수대기실	Player waiting Room	players waiting Room
	1층	머리조심하세요	Head carefulness	Beware of bumping on heads.
	2층	기자실	News Room	pressroom
	2층	VIP실	VIP Room	VIP Room
	2층	인터뷰실	Interview Room	interview room
	3층	R-vip 관람석	R-vip	R-vip seat

			spectator`s seat	
	3층	cp 통제실	cp control center	cp control center
	3층	운영본부	Head quarters	headquarters
	3층	경찰본부	Police Head quarter	the Police Headquarters
	3층	소방본부	Fire Head quarter	the Fire Headquarters
	3층	재난본부	Misfortune Head quarter	the Disaster Prevention Headquarters
	3층	통제본부	Control center	control center
	3층	연회장	Banquet hall	banquet hall

시설물명	위치	위치 표지판		감수 결과
		한글	영문	영문
시낭 운동장	부곡동 719-1	시낭 운동장	Sinang Playground	Sinang playground
원시 운동장	원시동 782	5주 구운동장	없음	the 5th residential section playground (5-jugu playground)
골안말 야구장	목내동 351	안산시 야구장	없음	Ansan baseball park
성포 배수지	상록구 일동 산106	성포 배수지 체육시설	seongpo baesugi sports facilities	Seongpo baesuji sports facilities
선부 배수지	선부동 산128	선부배수지 체육시설	seonbu baesugi sport facilities	Seonbu baesuji sports facilities

(2)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역사 주변 안내판

상답 종류: 안내판 글자 교정

기간: 2008. 12. 22. - 2008. 12. 29.

상답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담당자: 천호진 실장(메카조형그룹)

<교정 주요 내용>

1. 지구대(地溝帶) → 지구대(地區隊)
2. 초,중학교 → 초·중학교(가운뎃점을 써야 합니다.)
3. 初等&中學校 → 初·中學校(한글 표기와 같도록 바꾸고 가운뎃점을 찍음)
4. 한문과 함께 적힌 한글은 모두 영문으로 바꿈(예: 麻谷^{Naru}方面, 漢江^{Media}高等學校. *5호선 등에서도 한문과 영문을 혼용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국인을 안내하려는 목적에도 부합할 것으로 봄.) 다만, ‘가양역’ 8번 출구에 있는 ‘유석初等學校’의 ‘유석’은 한자어이므로 한자로 ‘有石’이라고 고쳤음.
5. ‘동’이나 ‘가’ 앞에 숫자가 오는 경우에는 숫자의 우리말 발음에 따라서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국토해양부 도로표지 규칙(2006년)에 따른 것임. 예: Deungchon 3(sam)-dong
6. ‘가양대교’ 같은 다리 이름은 영문 표기 뒤에 다리임을 나타내는 ‘Br’를 괄호 속에 넣음. 이것도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 규칙에 따른 것임. 예: Gayangdaegyo(Br)
7. ‘주민센터’의 영문 표기는 ‘Community Service Center’로 통일함. ‘Service’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서 통일한 것임. 구청 담당자에게 자문하여 결정한 사항임.
8. 고유명사의 영문 표기는 그 기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함. 외래어표기법에도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예: Youngil High School
9. ‘강서보건소’는 ‘강서구보건소’가 공식 이름인데 영문 명칭은 'Gangseogu Community Health Center'입니다. 다만, ‘강서보건소’라고 하여 ‘구’를 뺀다면 ‘Gangseo Community Health Center’가 될 것입니다. ‘public’ 대신에 ‘community’를 썼다는 말입니다.
10. 한글 이름에서 ‘방면’과 ‘별관’만 앞말에서 띄어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붙여서 하나의 이름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방화1동주민센터, 마곡나루방면, 강서구청 별관
11. 경찰서 관련 ‘지구대’와 ‘치안센터’는 각각 ‘area patrol unit’와 ‘community policing center’로 적었는데 이 영어 명칭은 경찰청이 2009년 1월 중에 바꿀 예정이라고 함.

역명	출구 NO.	주변 주요 지명		
		한글	한문	영문
개화	1	김포차량기지	金浦車輛基地	Gimpo Train Base
	2	개화산공원	開花山公園	Gaehwasan Park

김포공항	1	김포공항국내선청사	金浦空港國內線 廳舍	Gimpo Int'l Airport Domestic Terminal
	2	김포공항국제선청사	金浦空港國際線 廳舍	Gimpo Int'l Airport International Terminal
	3	송정역 방면	松亭驛方面	To Songjeong Station
공항시장	1	공항지구대 공항시장	空港地區隊 空港市場	Airport Area Patrol Unit Airport Market
	2	김포공항국제선청사	金浦空港國際線 廳舍	Gimpo Int'l Airport International Terminal
신방화	1	방화1동주민센터	傍花一洞住民 Center	Banghwa 1(i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	방신종합시장 방화쌈지공원	芳新綜合市場 傍花Ssamji公園	Bangsin Market Banghwa Ssamji Park
	3	신방화사거리 송화초등학교	新傍花四距離 松花初等學教	Sinbanghwa Sageori Songhwa Elementary School
	4	가양1동 방면	加陽一洞方面	To Gayang 1(ii)-dong
	5	마곡나루 방면	麻谷Naru方面	To Magongnaru Station
	6	기상통신소	氣象通信所	Meteorological Radio Transmission Station
	7	공항초등학교 공항중학교	空港初等學教 空港中學教	Gonghang Elementary School Gonghang Middle School
	8	김포공항 방면	金浦空港方面	To Gimpo Int'l Airport
마곡나루	1	방화1동 방면 신방화역 방면	傍花一洞方面 新傍花驛方面	To Banghwa 1(ii)-dong To Sinbanghwa Station
양천향교	1	가양1동주민센터	加陽一洞住民 Center	Gayang 1(i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	양천향교 궁산공원	楊川鄉校 宮山公園	To Yangcheo Hyanggyo Gungsan Park
	3	가양2동 방면 가양대교 방면	加陽二洞方面 加陽大橋方面	To Gayang 2(i)-dong To Gayangdaegyo(Br)
	4	가양1동우편취급소	加陽一洞郵便取 扱所	Gayang 1(ii)-dong Postal Agency
	5	등촌3동 방면	登村三洞方面	To Deungchon 3(sam)-dong
	6	강서우체국	江西郵遞局	Gangseo Post Office
	7	가양1동 방면	加陽一洞方面	To Gayang 1(ii)-dong
	8	가양1치안센터	加陽一治安 Center	Gayang 1(ii) Community Policing Center
가양	1	종합사회복지관	綜合社會福祉館	Community Welfare Center
	2	가양2동	加陽二洞	Gayang 2(i)-dong
	3	가양대교	加陽大橋	Gayangdaegyo(Br)
	4	가양1동우편취급소	加陽一洞郵便取	Gayang 1(ii)-dong Postal

			扱所	Agency
	5	경서중학교	京西中學校	Gyeongseo Middle School
		강서구청 별관	江西區廳別館	The detached office of the Gangseo-gu Office
	6	강서소방서	江西消防署	Gangseo Fire Station
	7	강서구청입구사거리	江西區廳入口四距離	Gangseo-gu Office Sageori
	8	유석초등학교	有石初等學校	Yooseok Elementary School
	9	등촌동	登村洞	Deungchon-dong
	10	등원초·중학교	登元初·中學校	Deungwon Elementary & Middle School
증미	1	경서중학교	京西中學校	Gyeongseo Middle School
	2	염창동 방면	鹽倉洞方面	To Yeomchang-dong
	3	백석초등학교	白石初等學校	Baekseok Elementary School
	4	강서소방서	江西消防署	Gangseo Fire Station
등촌	1	염창초등학교	鹽倉初等學校	Yeomchang Elementary School
	2	강서보건소	江西保健所	Gangseo Community Health Center
	3	양동중학교	楊東中學校	Yangdong Middle School
	4	목3동주민센터	木三洞住民Center	Mok 3(sam)-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5	등촌시장	登村市場	Deungchon Market
	6	영일고등학교	永一高等學校	Youngil High School
	7	등촌중학교	登村中學校	Deungchon Middle School
	8	백석중학교	白石中學校	Baekseok Middle School
염창	1	염창동우체국	鹽倉洞郵遞局	Yeomchang-dong Post Office
	1	염창동종합시장	鹽倉洞市場	Yeomchang-dong Market
	2	염창동	鹽倉洞	Yeomchang-dong
	3	목동도심소공원	木洞都心小公園	Mok-dong Minipark
	4	양화초등학교	楊花初等學校	Yanghwa Elementary School
신목동	1	목2동	木二洞	Mok 2(i)-dong
	2	목6동	木六洞	Mok 6(yuk)-dong
	3	안양천	安養川	Annyangcheon(Riv)
선유도	1	양평동6가	楊坪洞六街	Yangpyeong-dong 6(yuk)-ga
	2	양평동7가	楊坪洞七街	Yangpyeong-dong 7(chil)-ga
	3	당산초등학교	堂山初等學校	Dangsan Elementary School
	3	한강미디어고등학교	漢江Media高等學校	Hangang Media High School
	4	양평2동주민센터	楊坪二洞住民Center	Yangpyeong 2(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4	한강미디어고등학교	漢江Media高等學校	Hangang Media High School

	5	강서세무서	江西稅務署	Gangseo Tax Office
	6	양평동3가	楊坪洞三街	Yangpyeong-dong 3(sam)-ga
당산	1	양평동 방면	楊坪洞方面	To Yangpyeong-dong
	2	여의도한강공원	汝矣島漢江市民公園	Yeouido Hangang Park
	3	당산중학교	堂山中學校	Dangsan Middle School
	4	당산동5가	堂山洞五街	Dangsan-dong 5(o)-ga
	5	당산동4가 방면	堂山洞五街方面	To Dangsan-dong 4(sa)-ga
	6	당산동5가	堂山洞五街	Dangsan-dong 5(o)-ga
	7	당산동5가	堂山洞五街	Dangsan-dong 5(o)-ga
국회의사당	1	국회의사당	國會議事堂	National Assembly
		여의도한강공원	汝矣島漢江公園	Yeouido Hangang Park
	2	여의도광장우체국	汝矣島廣場郵遞局	Yeouido Gwangjang Post Office
	3	여의도공원	汝矣島公園	Yeouido Park
	4	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여의도공원	汝矣島公園	Yeouido Park
	5	한국방송공사	韓國放送公社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여의도	6	국회의사당 영등포 방면	國會議事堂 永登浦方面	National Assembly To Yeongdeungpo
	1	사학연금관리공단	私學年金管理公團	Korea Teachers Pension Corporation
	2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3	여의도공원	汝矣島公園	Yeouido Park
	4	중소기업진흥공단	中小企業振興公團	Small Business Corporation
	5	여의도우체국	汝矣島郵遞局	Yeouido Post Office
		한국증권거래소	韓國證券去來所	Korea Stock Exchange
셋강	6	윤중초·중학교	輪中初·中學教	Yunjung Elementary & Middle School
	1	대한지적공사	大韓地籍公社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2	한국방송공사 별관	韓國放送公社 別館	KBS Annex
		원효대교	元曉大橋	Wonhyodaegyo(Br)
	3	여의도치안센터	汝矣島治安 Center	Yeouido Community Policing Center
노량진	4	윤중초·중학교	輪中初·中學教	Yunjung Elementary & Middle School
	1	대방역 방면	大方驛方面	To Daebang Station
	2	노량진수산물시장	鰲梁津水產市場	Noryangjin Fisheries Wholesale Market

	3	동작경찰서	銅雀警察署	Dongjak Police Station
	4	노량진초등학교	鷺梁津初等學校	Noryangjin Elementary School
	5	동작구청	銅雀區廳	Dongjak-gu Office
	6	한국산업안전공단	韓國産業安全公團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노들	1	사육신공원	死六臣公園	Sayuksin Park
	2	수원지공원	水源地公園	Suwonji Park
	3	본동초등학교	本洞初等學校	Bondong Elementary School
	4	노들지구대	Nodeul地區隊	Nodeul Area Patrol Unit
	5	노량진우체국	鷺梁津郵遞局	Noryangjin Post Office
흑석	1	흑석체육센터	黑石體育Center	Heukseok Sports Center
	2	흑석초등학교	黑石初等學校	Heukseok Elementary School
	3	흑석2동주민센터	黑石二洞住民Center	Heukseok 2(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4	흑석1동주민센터	黑石一洞住民Center	Heukseok 1(i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동작	1	반포본동 방면	盤浦本洞方面	To Banpo Bon-dong
		반포한강공원	盤浦漢江公園	Banpo Hangang Park
	2	흑석동 방면	黑石洞方面	To Heukseok-dong
		동작주차공원	銅雀駐車公園	Dongjak Parking Park
	3	동작동 방면	銅雀洞方面	To Dongjak-dong
	4,6	동작동 방면	銅雀洞方面	To Dongjak-dong
		사진전시관	寫眞展示館	Photo Exhibition Hall
		유품전시관	遺品展示館	Relics Exhibition Hall
		현충관	顯忠館	Memorial Hall
	5	흑석동 방면	黑石洞方面	To Heukseok-dong
구반포	7,8,9,10	흑석동 방면	黑石洞方面	To Heukseok-dong
		국립현충원	國立顯忠院	National Memorial Board
		현충문	顯忠門	Memorial Gate
		현충탑	顯忠塔	Memorial Tower
구반포	1	이수교	梨水橋	Isu Bridge
	2	반포한강공원	盤浦漢江公園	Banpo Hangang Park
	3	반포초·중학교	盤浦初·中學校	Banpo Elementary & Middle School
신반포	1	반포2동주민센터	盤浦二洞住民Center	Banpo 2(i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	신반포중학교	新盤浦中學敎	Sinbanpo Middle School
		계성초등학교	啓聖初等學校	Gyeseong Elementary School
	3	고속버스터미널	高速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4	반포종합운동장	盤浦綜合運動場	Banpo Sports Complex

고속터미널	1	반포사거리	盤浦四距離	Banpo Sageori
	2	반원초등학교	盤元初等學校	Banwon Elementary School
	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江南高速Bus Terminal	Gangnam Express Bus Terminal
사평	1	반포1동주민센터	盤浦一洞住民Center	Banpo 1(il)-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2	서초4동주민센터	瑞草四洞住民Center	Seocho 4(s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신논현	1	반포IC	盤浦IC	Banpo Interchange
	2	논현역 방면	論峴驛方面	To Nonhyeon Station
	3	논현초등학교	論峴初等學校	Nonhyeon Elementary School
	4	국기원	國技院	World Taekwondo Headquarters
	5	역삼동우체국	驛三洞郵遞局	Yeoksam-dong Post Office
	6	서초초등학교	瑞草初等學校	Seocho Elementary School
	7	서초4동주민센터	瑞草四洞住民Center	Seocho 4(sa)-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3)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도로 표지판

상답 종류: 국어의 로마자 표기

상답자: 충북대

담당자: 흥덕구청

번호	대상	수정 결과	사유
10 11	ROK Airforce Academy ROK → Korea	Korea Air Force Academy	표기의 일관성 유지 4번 표지판에서는 “Air Force”로 표기하였으나, 10,11번에서는 “Airforce”로 표기함.
29	북대1동 Bokdae-1dong	북대1동 Bokdae1-dong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47 56 121 132	병무청 Military Manpower Admin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또는 Chungbuk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	지방병무청은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로 써야 함. 그리고 81번 표지판에도 “Regional Military Manpower Office”로 표기

181			되어 있음.(일관성 유지)
50			“청주공항” 로마자 표기에서 글자 크기 통일(확인 바람.)
60	가경동 Gagyeongdong	가경동 Gagyeong-dong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117	속리산 SongniSan	속리산 Songnisan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이때 띄어 쓰지 않으므로 소문자로 쓴다.
122	흥덕경찰서 Heungdek Police Station	흥덕경찰서 Heungdeok Police Station	‘흥덕’의 ‘Heungdeok’에서 ‘o’가 빠짐.
148	청주산업단지 Cheongju Inderstral Complex	청주산업단지 Cheongju Inderstrial Complex	사진에 ‘i’자가 안 보임. 확인 바람.
148 150 151	북대2동 Bokdae2dong	북대2동 Bokdae2-dong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149 152	북대2동 Bokdae-2dong	북대2동 Bokdae2-dong	上 同
149	충청대학 CHUNG CHEONG UNIVERSITY	충청대학 Chungcheong College	1) 첫 글자만 대문자로 적는다. 2) 표기의 일관성 유지 156번 표지판에서는 “Chungcheong College”로 표기함.
139 140 141 142	예술의 전당 Cheongju Art Hall → Arts Center	청주 예술의 전당 Cheongju Arts Center	표기의 일관성 유지 ‘청주 예술의 전당’의 표기가 ‘Arts Center’, ‘Cheongju Art Center’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음. 두 표기보다 ‘Cheongju Arts Center’가 바른 표기로 판단됨.
178 180 183	예술의 전당 Cheongju Art Hall → Cheongju Art Center	청주 예술의 전당 Cheongju Arts Center	
84	예술의 전당 Arts Center	청주 예술의 전당 Cheongju Arts Center	

(4) 언론사(화광신문사) 외국어 한글 표기

상답 종류: 외국어 한글 표기

기간: 2008. 1. 1. - 2008. 12. 31.

상답자: 국어단체연합 김영덕

담당자: 목원덕(화광신문사)

NO	한글	영문	비고
1	엘리너 루스벨트	Eleanor Roosevelt	미국제32대 루스벨트 대통령부인(1884~1962)
2	아난타 마히돈	Ananda Mahidol	타이 사람이름
3	마히돈 대학교	Mahidol University	타이 대학명
4	코치코르(ch에 대한 키르기스어 표기법이 없어 러시아어 표기법을 준용했습니다.)	Kochkor	키르기스스탄 지명
5	송쿨	Songkul	키르기스스탄 지명
6	나린	Naryn	키르기스스탄 지명

No.	기존사항	상답소 의견	영문명	질문
1	라파엘 벨라소 차신대학교	라파엘베요소차신대학교(차베스 대통령이 취임해 국가명을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보면 아직 '베네수엘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베네수엘라'로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RafaelBelloso Chacín University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 ※문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공화국을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는 '베네수엘라'라고만 하지 않나요? 브리태니커 사전을 찾아보니 '베네수엘라공화국'이 정식명으로 나와 있고, 볼리바르는 하나의 주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식 명칭이고 한국에서 출판할 때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여쭙니다.
2	바이칼국	바이칼 국립 경제 법률 대	BaikalNational	러시아 연방의 대학교 이

	립경제법 률대학교	학교/국립 바이칼 경제 법률 대학교' 둘 다 가능해 보입 니다. 둘 중 사용하던 관례 가 있으면 그쪽으로 사용하 시기 바랍니다.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름
3	카를로 스 엔리케 페냐	카를로스 엔리케 페냐	Carlos Enrique Peña	산타마리아대학교 부총장 이름
4	오스카엔 리크벨로 소메디나	오스카르엔리케베요소메디나	Oscar Enrique Belloso Medina	라파엘 벨라소 차신대학 교 총장 이름
5	마리 잔 느 슈랑 크	마리잔 셸링크	Marie-jeanne Schellinck	나폴레옹이 '레지옹 도뇌 르 훈장'을 수여한 여성 병사 이름
6	리오넬 로 와이 어	리오넬루아예('큐피드와프시 케'가맞는표기입니다.)	Lionel Royer	'큐피드와 프쉬케' 그림으 로 유명한 화가 이름
7	엘렌 케이	엘렌 세위	Ellen Key	스웨덴의 여성교육자
8	두바이 놀리지 빌리지	두바이 놀리지 빌리지(원어 그대로 적는다면 '두바이 놀리지 빌리지'가 됩니다. 그러나 '두바이' 외 뒤의 말 은 번역어로 사용하는 게 좋 지 않을까 합니다. 혹 번역 어로 사용하던 용어는 없는 지요. 있다면 그쪽을 권하고 싶습니다.	Dubaiknowledgevillage	두바이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센터

NO	한글 ?	영문	비고
1	마힌다 라자팍세 [보통 Mahinda Rajapakse 로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를 확인해 주십시오.]	Mahinda Rajapaksal	스리랑카 대통령
2	고드프리 시마시키	Godfrey Simasiky	주일 잠비아공화국 대사
3	룬디잔찬	Lundeejantsan	몽골 사람 이름
4	시히후투그[higher school of Law	Shihihutug higher	몽골 대학 이름

	는 번역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chool of Law	
5	두웨이밍	杜維明 (du wei ming)	중국 곤명 출생으로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페루 인명			
NO	영문	한글	비고
1	Alfonso Jaguande	알폰소 하관데	알폰소 아관데 박사
2	Manuel Pantigoso	마누엘 판티고소	마누엘 판티고소 박사
3	Jose Ignacio Lopez	호세 이그나시오 로페스	이그나시오 로페스
4	Ivan Rodriguez	이반 로드리게스	이반 로드리게스
5	David Sobrevilla Alcazar	다비드 소브레비아 알카사르	데이비드 소브레비자
6	Francisco Miro Quesada Cantuarias	프란시스코 미로 케사다 칸투아리아스	프란시스코 미로케사다

NO	영문 or 한자	한글	비고
1	蘇基朗	쭈지랑	홍콩 인명
2	黃素玉	황쑤위	홍콩 인명
3	Shitikov	시티코프	러시아 인명
4	Ogonyok	오고노크(Ого́ньк)	러시아 잡지명
5	Joao Ricardo Moderno	주앙 히카르두 모데르투	브라질철학 아카데미총재

NO	영문	한글	비고
1	David J. Guzmán	다비드 구주만	엘살바도르 국립박물관
2	Walter V. Wendler	월터 V. 웬들러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학교 카본데일 캠퍼스 총장
3	Fábio Magalhães	파비우 마갈랑이스	브라질 상파울루 미술관 관장

NO	영문 or 한자	한 글	비고
1	梅松明	메이쑹밍	말레이시아 사람
2	Gonzalez	곤살레스	에스파냐 외교관
3	Gonzales	곤잘레스(필리핀)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Seyyed Abbas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인

	Araghchi		
2	Gran Parque Luis J. Prieto	그란 파르케 루이스 J. 프리에토	멕시코 공원
3	Kathya Andrea Gutierrez Leano	카티아 안드레아 구티에레스 레아노	멕시코 인명
4	(Carlos Alberto) de la Fuente Flores	(카를로스 알베르토) 데 라 푸엔테 플로레스	멕시코 인명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Rene Dubos	르네 뒤보	파리출생 미국 미생물학자
2	礼文島	레분 섬	일본 섬 이름
3	宮古島	미야코 섬	일본 섬 이름
4	西神田	니시칸다	일본 지명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Matthias Gröninger	마티아스 그뢰닝거	독일인
2	Perez de Cuellar	페레스 데 쿠에야르	제5대 유엔사무총장
3	Mae Fah Luang University	매팔루앙 대학교	타이 대학교

NO	영문	한글	비고
1	實踐大學(Shin Chien)	스젠대학	타이완대학교
2	德明財經科技大學(Tak Ming)	더밍재경과기대학	타이완대학교
3	São José do Rio Preto	상조제두히우프레투	브라질 도시명
4	紫 荊	쯔징	홍콩 잡지

NO	영문	한글	비고
1	Nichelino	니켈리노	이탈리아 도시명
2	Leo. A. Falcam	레오 A. 팔캄	미크로네시아 전 대통령
3	Wiesenthal Center、SWC	사이먼 비젠탈 센터, SWC	국제적 인권단체 (LA에 위치)
4	Olivier Urbain	올리비에 위르뱅	벨기에 태생

NO	한글 ?	영문	비고
1	마힌다 라자팍세	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

2	고드프리 시마시키	Godfrey Simasiky	주일 잠비아공화국 대 사
3	룬디잔찬	Lundeejantsan	몽골 사람 이름
4	시히후투그 [higher school of Law 는 번역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hihihutug higher school of Law	몽골 대학 이름
5	두웨이밍	杜維明 (du wei ming)	중국 곤명 출생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NO	한글 ?	영문	비고
1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Eleanor Roosevelt	미국제32대 루스벨트 대 통령부인(1884~1962)
2	아난타 마히돈	Ananda Mahidol	타이 사람 이름
3	마히돈 대학교	Mahidol University	타이 대학명
4	(로마자 표기를 도저히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키르기스국립대학교에 있는 동상 인물 이름
5	코치코르(ch에 대한 키르기스어 표기법이 없어 러시아어 표기 법을 준용했습니다.)	Kochkor	키르기스스탄 지명
6	송쿨	Songkul	키르기스스탄 지명
7	나린	Naryn	키르기스스탄 지명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Occhiobello	오키오벨로	이탈리아 지명
2	Ll Resto del Carlino	리 레스토 델 카를리노	이탈리아 기관지

NO	영문 or 한자	한글	비고
1	蘇基朗	쑤지랑	홍콩 인명
2	黃素玉	황쑤위	홍콩 인명
3	Shitikov	시티코프	러시아 인명
4	Ogonyok	오고노크(Огонёк)	러시아 잡지명
5	Joao Ricardo Moderno	주앙 히카르두 모데르투	브라질철학아카데미 총재

NO	영문	한글	비고
1	EyglÓ JÓnsdóttir	에이글로 온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인명
2	Thoruun Sveinbjarnardottir	토룬 스베인바르나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인명
3	Hafnarfjordur 시	하프나르포르튀르 시	아이슬란드

			지명
4	Naguanagua	나과나과	베네수엘라 지명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Anhanguera University	아냥게라 (대학교)	브라질 대학 (고이아스주)
2	Hilda Solis	힐다 솔리스	미국 연방하원 의원
3	Martin O'malley	마틴 오맬리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4	Tiago de Mello	치아구 지 멜루	브라질 계관시인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Navarat Chinomi	나와랏 치노미	타이
2	Phiphat Tangwiboonphanit	피팟 땅위분과닛	동남아시아
3	Lek Wattanasuthipong	렉 와파나수티뽕/ 렉 와타나수티퐁	동남아시아
4	Phoomsit Sreesai	폼싯 시사이	동남아시아
5	Surachai Chatburanayont	수라차이 ?	동남아시아
6	Chainarong Banchongmanee	차이나롱 반총마니	동남아시아
7	Nut Tiranawaddi	nut 티라나사와디/ nut 티라나사와디	동남아시아
8	Saravut Srimahajariyapong	시라우트 시마하짜리야뽕/ 시라우트 시마하짜리야퐁	동남아시아
9	Tidawan Anatanond	띠다완 아나타논/ 티다완 아나타논	동남아시아
10	Napaporn Kriengkraiwanich	나빠쁘른 꼬링꼬라이와닛/ 나과폰 크링크라이와닛	동남아시아
11	Boonmee Sae-Tia	분미 새띠아/ 분미 새티아	동남아시아
12	Sukanya Petakteerabundit	수간야 빠따띠라분딧/ 수간야 페탁티라분딧	동남아시아
13	Darunwan Thongkaew	다룬완 통깨우(ทองแก้ว)	동남아시아
14	Samorn Tamsang	사몬 텡상(เต็มสง)	동남아시아
15	Yaovarat Sotarapitnugun	야오와랏 소따라뻏누군/ 야오와랏 소타라뻏누군	동남아시아
16	Keomanevone Phalikhanh	케오마네본 팔리칸	라오스
17	Gary Murie	게리 ?	미국
18	Congdon Smith	콩던 스미스	

19	Mai Ogushi	마이 ?	캐나다
20	Pier Alberto Pierini	피어 엘버토 피리니	
21	Eugenie Waters	유지니 워터스	
22	Andrea Yeung	앤드리아 융	
23	Andrew Foerster	앤드루 포스터	
24	Trizana Parillo	? 파릴로	
25	Jose' Antonio Rodriguez Echeverria	호세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에체베리아	베네수엘라
26	Arlex Gustavo Castro Garrido	아를렉스 구스타보 카스트로 가리도	
27	Evelyn Barrios	에벨린 바리오스	베네수엘라
28	Gabriela Falciatore	가브리엘라 팔시아토레	
29	Daniel Enrique Rivero Bastardo	다니엘 엔리케 리베로 바스타르도	
30	Fe'lix Alberto Guerra De La Cruz	펠릭스 알베르토 게라 데 라 크루스	
31	Daniella Ferreira De Freitas	다니엘라 페레이라 데 프레이타스	
32	Maria Eugenia Caballero	마리아 에우헤니아 카바예로	

NO	영문	한글	비고
1	Dojoogiin Tsedev	도주긴 체데브	몽골 인명
2	Efroni choir of Israel	에프로니 성가대(합창단) ?	이스라엘 단체명
3	Mongolian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몽골예술문화대학교 ?	몽골 대학

NO	영문 표기	한글 표기	비고
1	Emile Rwamasirabo	에밀 르와마시라보	르완다
2	Walid Mahmoud Abdelnasser	왈리드 마흐무드 압둘나세르	이집트
3	Gabriel Alexandre Sar	가브리엘 알렉상드르 사르	세네갈
4	Marcel Mulumba Tshidimba(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마르셀 물룸바 치딤바	콩고
5	Estifanos Afeworki Haile	에스티파노스 아페워르키 하일레	에리트레아
6	Dennis N.O.Awori	데니스 아워리	케냐
7	Prem Chand Patanjali	프렘 찬드 파탄잘리	인도
8	Purvanchal University	푸르반찰 대학교	인도 대학
9	Sethu Kumanan	세투 쿠마난	인도
10	Yakubu Gowon	야쿠부 고윈	나이지리아

11	Stuart Harold Comberbach	스튜어트 해럴드 ?	짐바브웨
12	Godfrey S. Simasiku	고드프리 시마시쿠	잠비아
13	Jusuf Kalla	유슈프 칼라	자카르타 대통령

NO	영문	한글	비고
1	Guarapari 시	구아라파리 시	브라질 도시
2	Bombinhas 시	봄비냐스 시	브라질 지명
3	Da silva	다 시우바 (만약 원어를 병기하신다면 da Silva 쪽이 더 정확한 표기가 됩니다.)	브라질 인명

NO	영문 표기	한글	비고
1	Gennedy P. Turmov	겐나디 투르모프 (Turmov, Gennady P. / Турмов, Ген надий Петрович)	러시아 극동국립대학교 박사
2	Tay Hee Chiew	테이 히 치우	싱가포르 사람
3	Yelyutin	엘류틴	러시아 사람

NO	영문표기	한 글	비고
1	Panny Ng	패니 응	오스트레일리아
2	Yee chen Eriel Huang	이 첸 에리엘 후앙	남아프리카
3	Andry Niaina Rakotobe	앙드리 니아이나 라코토베	마다가스카르
4	Susanne Haberfellner	주자네 하버펠너	오스트리아
5	Anurag Karol	아누라크 카롤	오스트리아
6	Paula Fabiola Ramírez Hernández	파울라 파비올라 라미레스 에르난데스	멕시코
7	Moni Shrestha		영국
8	Mariana AGONGLO	마리아나 아공글로	베냉(아프리카)
9	Surjeet Kumar Lamba	수르지트 쿠마르 람바	인도
10	Rakesh Tharoor		두바이

중국인 인명

蔡忠福 차이중푸

汪文財 왕원차이

(싱가포르 인명의 경우 한자 이름과 로마자 이름이 각각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내 주신 인명의 경우 달리 로마자 표기를 찾지 못해 중국어 표기법에 맞추어 적었습니다.)

독일 출판사명(19건)	
	한글
DTV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데테 파우(도이처)
Rowohlt Taschenbuch Verlag	로볼트
Alfred Kroener Verlag	알프레트 크뢰너
J.B. Metzler Verlag	메츨러
Fischer Taschenbuch Verlag	피셔
Reclam Verlag	레클람
Suhrkamp Taschenbuch	주어캄프
Langenscheid	랑겐샤이트
Dudenverlag	두덴
WBG	베베게
Bertelsmann- Springer- Verlag(Berlin, Heidelberg)	베르텔스만슈프링거
S-Fischer-Verlag	에스피셔
Droemer- Knaur- Verlag	드뢰머크나워
Ullstein- Verlag(Berlin)	울슈타인
Guetersloh- Verlag	귀테르슬로
Goldmann- Verlag	골드만
Bastei- Verlag	바슈타이
Carl- Hanser- Verlag(Muenchen, Wien)	카를한저
TASCHEN Icons	타센

베네수엘라 주요 일간지

1. El Universal 엘우니베르살
2. El Nacional 엘나시오날
3. The Daily Journal 데일리 저널(앞에 ‘the’ 가 있는 경우 ‘더’를 붙여 ‘더 데일리 저널’ 처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the’를 한글로 옮겨 적지 않아 ‘더’를 적지 않았습니다.)
4. El Globo 엘글로보
5. El Mun 엘문

베네수엘라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

1. Venevision 베네비시온
2. Radio Caracas Televen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벤
3. Glovovision 글로보비시온

라오스 사람

Bounthiem Phitssamay 분티엠 핏사마이(기타언어 표기법을 적용)

[3] 용어 순화 관련 상담

(1)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 용어

상담 종류: 용어 순화

기간: 2008. 11. 24. - 2008. 12. 10.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조경숙

담당자: 사옹제(경영기획실 홍보팀)

우편 용어 순화				
	순화 대상	순화어	검토안	비고
	우편낭	우편자루	우편자루	
	개낭하다	자루를 열다	자루를 열다	
	공행낭	빈 우편물 자루	빈 우편자루	
	개피	개봉	개봉	
	반착료	반송 수수료	반송 수수료	
	반착소포	되돌아온 소포	반송 소포	‘반송’ 사용
	도착송치증	우편물인수증	우편물송달증	‘송치’는 ‘송달’로
	발송인	보내는 이	보내는 이	
	부전지	미배달사유표시지	불임쪽지	
	수령증	영수증	영수증	
	수집편찰	수집표	수집표	
	수취인	받는 이	받는 이	
	수취인 부담	받는사람 요금부담	받는 이 부담	
	수취함	우편함	우편함	
	신서	편지, 서신	서신	
	신서 재리	편지가 든	서신이 든	
	신서 합장	편지 동봉	서신 동봉	
	우편물도착통지서	우편물도착안내문	우편물 도착 안내문	
	우편수취함	우편함	우편함	
	익일 특급	익일 등기	다음날 특급	
	인영	도장모양	도장발, 인발	
	일부인	날짜도장	날짜도장	
	재감 우편물	재조사우편물	수감자 우편물	
	종적조회	행방조회	과정 조회	
	주소이전신고	주소변경신고	주소변경신고	
	즉납	즉시납부	즉시납부/즉납	‘별납, 후납’ 참조
	지환우편물	미배달우편물	미배달우편물	

	착불	받는 사람 지불	받는 이 지급	
	파속	묶음	묶음	
	표리정리	구분정리	구분정리	
	필연대	기록대	기록대	
	합장소포	편지동봉소포	동봉소포	
	환부	반송	반송	
예금 용어 순화				
	가불금	임시 지급금	임시 지급금	
	가수금	임시 수입금	임시 수입금	
	장제 자금화	강제 자금화	우선 현금화	
	격지자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	격지자 사이	‘격지자’ 사용
	고지	알림	알림	
	공고	알림	공고	
	과오급	잘못 지급	잘못 지급	
	과오납	잘못 납부	잘못 납부	
	과오불	잘못 지급	잘못 지급	
	과초금	준비초과금	초과금	
	과태금	과태료	과태료	
	교부하다	내어주다	내어주다	
	구좌	계좌	계좌	
	국고 귀속	국고 입금	국고 입금	
	당발	우체국에서 보냄	우체국에서 보냄	‘타발’=은행 발송
	디지털인감	전자서명	전자서명	
	만기 도래	만기가 다가옴	만기가 됨	
	만료일	끝나는 날	끝난 날	
	명실	없어짐	없어짐	
	모점국	관리국	관리국	
	반환	돌려줌	돌려줌	
	보정	바로잡음	바로잡음	
	산입하다	계산에 넣다	계산에 넣다	
	상환	갚음	갚음	
	송부하다	보내다	보내다	
	수불	주고받음	주고받음	
	시효완성	권리소멸	시효소멸	
	예금잔고	예금 잔액	예금 잔액	
	예입	입금	입금	
	예치 한도	예금 한도	예금 한도	
	온라인환	전송환	전송환	
	요구불예금	자유 예금	자유 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우편환	우체국환	우체국환	
	인도	건네줌	건네줌	

	인출하다	찾다	찾다	
	일할계산	날짜 계산	날짜 계산	
	잉여금	남은 돈	남은 금액	
	자행	우체국	우체국	
	잔고	잔액	잔액	
	적의서식	알맞은 서식	알맞은 서식	
	전결금리	우대금리	특별금리	국장 전결 금리
	정대지	지폐묶음지	띠지	
	정리계좌	사용중지계좌	사용중지계좌	
	주화사산기	동전샘틀	동전 계수기	
	증빙서류	증거서류	증거서류	
	지급필 수표	지급완료수표	지급완료수표	
	지급필통지	요금수령확인통지	요금수령통지	
	지폐사산기	지폐계산기	지폐계수기	
	징구	받기, 요구	받기, 요구	
	체신관서	우정관서	우정관서	
	최고	독촉	독촉	
	최고통지서	독촉통지서	독촉통지서	
	추심금		받은돈	
	추심의뢰	지급의뢰	지급의뢰	
	카테고리	범주	범주	
	타발	다른 기관에서 우 체국으로 보낸	다른 기관이 보낸	‘당발’=우체국 발 송
	타점권	다른 은행 수표	은행 수표	
	타행	다른 은행	은행	
	피위임인	위임받으신 분	위임 받은 분	
	현금출납인		현금출납도장	
	현재고증명	잔액증명	잔액증명	
	환급	돌려줌	돌려줌	
보험 용어 순화				
	가수증	임시 영수증	임시 영수증	
	거치 기간	예치 기간	거치 기간	
	결재 상신	결재 올림	결재 올림	
	경구약	먹는약	먹는약	
	계약적부제도	계약적정성확인제 도	계약적부확인제도	
	고지 사항	알려야 할 사항	알릴 사항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알릴 의무	
	공상	공무중 부상	업무 중 부상	
	공제한다	빼다	빼다	
	기납입보험료	납입한 보험료	낸 보험료	

	기왕증	과거 질병	과거 질병	
	녹취하다	녹음하다	녹취하다	
	반려하다	되돌려보내다	돌려보내다	
	법적 절차 착수 예	법적 절차 시작 예 정	법적 절차 안내서	
	정통지서	통지서		
	변제하다	갚다	갚다	
	보험연령	보험나이	가입나이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보험증서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회의에 부치다	
	불입	납입	납입	
	상병부위	다친 데	다친 부위	
	소정의	정해진	정해진	
	적정한	적절한	알맞은	
	허위	거짓	거짓	
창구 게시 용어 순화				
	게시문	안내문	알림글	
	게시판	안내판	알림판	
	견양	본보기	본보기	
	공중실	고객실	고객실	
	공지사항	알리는 말씀	알림	
	샘플	견본	표본	
	순번대기표	번호표	차례표	
	유도표지판	안내표지판	안내표지판	
	인터넷프라자	인터넷광장	인터넷광장	
	제세공과금	각종공과금	각종공과금	
	조견표	보기표	보기표	
	카운터	창구	창구	
	프랭카드	플래카드	현수막/펼침막	
	필연대	기록대	고객용 책상	
민원서식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감	줄임	줄임	
	고지위반	고지의무위반	알릴의무 위반	
	구매	구입	사들임	
	구비서류	갖춤서류	갖출서류	
	귀책사유	책임질 사유	책임 사유	
	납부하고	내고	내고	
	망실	잃어버림	잃음	
	매뉴얼	설명서	설명서	
	사양서	세부설명서	규격설명서	
	상기와 같이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상동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시방서	세부설명서	(공사)설명서	
	식지(式紙)	서식 용지	서식	
	신고센터	신고소	신고소	
	양식	서식	서식	
	예금입출금통지 서비스	예금입출금알림서 서비스	입출금 알림 서비스	
	우편물 수령처	우편물 받는 곳	우편물 받는 곳	
	우표 첩부	우표 붙임	우표 붙임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인발/도장발	
	일반공중	일반인	일반인	
	최종납년월	최종납입년월	최종납입연월	
	투합장소	접수장소	제출장소	
	현금시재금명세표	현재금명세표	잔금명세표	
	현재고증명서	잔액증명서	잔액증명서	
	최고장	독촉장	독촉장	
	소장	소송서류	소송서류	
	피사취수표	사기당한 수표	사기당한 수표	

(2) 한국철도공사 철도 용어

상당 종류: 용어 순화

기간: 2008. 1. 4. - 2008. 3. 18.

상당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김희진, 구혜영

담당자: 신동일(철도학회)

번호	순화 대상 용어	순화안	순화안 설명	용어 정의
1	간선(幹線, a trunk line, a main line)	③간선, 줄기 노선	바꾸지 않아도 될 용어로 판단함. 다만, 순화어를 제시한다면 ‘줄기’와 ‘가지’의 개념을 이용하여 ‘줄기 노선’, ‘가지 노선’이 좋을 것임. 지선(支線)은 가지 노선으로 순화함.	도로, 수로, 전신, 철도 따위에서 줄기가 되는 주요한 선.(표준국어대사전)
2	개집표구 (改集票口, A Ticket Gate)	①표 보이는 곳	‘개표구’와 ‘집표구’를 합한 용어로서 어떤 목적으로든지 표를 보이는 행위를 하는 곳이므로 ‘표 보이는 곳’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음.

			순화함. 다만, 표를 검사하고 받는 기계를 나타내는 말로는 ‘표검사기’를 채택함. ‘표검사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나타내는 말로 ‘표 보이는 곳’을 씀.	
3	개찰 (改札, Examination Of Ticket)	①표검사	‘개찰(改札)’은 한자어이지만 일본식 한자 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말로 바꿔야 함. 종전에는 ‘개표(改票)’로 순화하였는데 그래도 ‘개(改)’의 의미가 일본식으로 쓰인 것이어서 곤란함. ‘표검사’로 순화하는 것이 좋음.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 확인함. 개표.(표준국어대사전)
4	경두레일 (硬頭軌條, head hardened rail)	①강화레일	‘경두’나 ‘궤조’나 모두 일반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고,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낱말이므로 쓰지 않도록 함. ‘경두’는 ‘강화 머리’로, ‘궤조’는 외래어인 ‘레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레일의 특성을 감안할 때에 구태여 ‘머리’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강화 레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고 봄.	쉴바이트레일: 레일 두면 약 20mm를 소입시켜 쉴바이트 조직의 한 것이며 일명 경두일이라고도 한다.(철도학)
5	공전 (空轉, slipping, whill turn)	①헛돌기/헛돌이	제자리에서 헛도는 것을 가리키므로.	1.기계나 바퀴 따위가 헛돌. 2.일이나 행동이 헛되이 진행됨(표준국어대사전)
6	궤도침하 (軌道沈下, Subsidence of the Track)	①궤도꺼짐	‘궤도’는 순화하지 않음. ‘침하’는 ‘꺼짐’으로 순화함. 그래서 ‘궤도침하’는 ‘궤도 꺼짐’으로 순화함.	침하: 1.가라앉아 내리 2.건물이나 자연물이 내려앉거나 꺼져 내려 3.궤도의 바닥이나 천의 구조물이 내려앉음(표준국어대사전)
7	너클 (Knuckle)	②결쇠	차량과 차량을 연결하는 연결기 가운데에서 두 연결기를 서로 결 수 있도록 구부러진 부분을 특별히 이르는 말임.	자동연결기에서 상호결, 해방에 사용되는 부품.(철도기술용어해설집)
8	단척레일 (短尺軌條)	①짧은레일	기준 길이의 짧고 긴 것에 따라서 붙인 이름이므로 ‘짧은 레일’, ‘긴 레일’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음. ‘정척궤조’는 ‘표준 레일’, ‘장척궤조’는 ‘긴 레일’, ‘장대레일’은 ‘더 긴 레일’로 순화할 것	표준 길이 미만, 5m 이하의 레일.(철도기술용어해설집)

			을 권함.	
9	도상갱환 (道床更換, ballast changing)	① 자 갈 바 꾸 기 , 철길자갈 바꾸기	ballast changing은 철길의 자갈을 바 꾸는 작업을 가리킨다. 여기에 ‘도상’이 라는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도상 갱환’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자갈 바 꾸기’ 또는 ‘철길 자갈 바꾸기’로 부를 것을 권함. 콘크리트 도상을 바꾸는 경 우를 아울러 말해야 한다면 ‘도상 바꾸 기’ 정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도상(道床, track be 일반의 궤도구조는 석, 자갈 등을 부설하 침목을 놓고 그 위에 개의 레일을 설치하는 쇄석, 자갈 등을 도상 라고 한다.(철도기술용 해설집)
10	보기차 (bogie car)	① 대 차 열차, 대차 객 화차	‘보기차’는 ‘보기’를 장착한 차량을 가 리키므로 기관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 차량(객차와 화차)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대차 열차’ 또는 ‘대차 객화 차’로 순화할 수 있다.	대차가 2개 이상으로 대차와 차체의 사이에 회전할 수 있도록 자 된 차량.(철도기술용어 해설집)
11	보기(bogie)	① 대 차 (臺車)	‘보기’는 차체를 올려놓게 만든 차로서 바퀴와 동력 전달 장치를 해 놓은 것 임. 보기와 대차는 동의어이므로 보기 를 대차로 순화하는 것이 옳다. 일부에 서 보기를 ‘보기차’와 혼용하기도 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보기 대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다.	주행장치는 별개로 만 어 차체를 지지하도 했으므로 곡선 통과 용이하다. 이것을 대 또는 보기라고 한다. (도공학)
12	삭도(索道, rope way/ cable way)	② 쇠 밧 줄, 쇠줄차 길	공중에 매어 달아 쇠줄차(cable car)가 다니게 만든 쇠줄로 만든 길이라는 점 에서 쇠줄차길로 순화할 수도 있음. 일 반적인 줄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쇠밧 줄로 순화함.	1.삼 따위로 세 가닥 지어 굵게 꼰 줄. '밧 줄'로 순화. 2.=가공 쇠 '하늘 찻길'로 순화.(표준 국어대사전)
13	선로연변(線 路沿邊, the area along a railway)	②철길옆	선로는 철길과 같은 말이다. 연변(沿 邊)은 그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므 로 길옆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로 연변은 철길옆이라고 해도 잘못 이 없다.	연변(沿邊):강, 철도, 로 따위를 끼고 따르 는 언저리 일대.(표준 국어대사전)
14	스위치백 (轉向線路, Switchback)	①갈지자 선로	방향을 바꾼다는 뜻으로 쓰인 ‘전향’은 선로 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므로 순화 대상으로 봄. 선로가 갈지(之)자처럼 생겼으므로 갈지 자 선로로 순화함. 국어에 ‘갈지자결음’이라는 말이 있음.	스위치백은 산간지방 급기울기를 완화시켜 차운행을 가능하게 하 방법으로 선로가 Z자 으로 설치되어 있다. (어집1차 시안)

15	스크린도어 (Screen Door)	①안전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문이며, 이미 ‘안전문’으로 쓰이고 있음.	
16	시계운전 (視界運轉)	① 육안운전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서 곧 육안으로 운전하므로.	시계=시야(視野): 시야가 미치지 않는 범위.(표준국어대사전)
17	신호모진 (信號冒進, Signal Over run)	①신호무시(운전)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나아가는 행위이므로 ‘신호 무시’를 쓰기를 권함.	모진: 함부로 나감.(표준국어대사전)
18	역전(驛前, station front)	③역전, 역 앞	‘역전’을 그대로 쓰도록 함. 굳이 순화한다면 ‘역앞’을 쓸 수 있을 것임. ‘역광장’ 같은 말도 쓸 수 있음.	역의 앞쪽. ‘역 앞’으로 순화.(표준국어대사전)
19	역행운전(力行運轉, power running)	①동력운전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므로, 동력이 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타행운전)이라면 ‘제움직임’이 제격일 것임.	동력을 이용하여 차량이나 열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타력운전에 반대되는 개념. ‘동력 운전’으로 순화.(용어집1차안)
20	연락운송 (連絡運送, connecting transport)	①연계운송(連繫運送)	각 구간을 이어 가면서(연계하면서) 운송 체제이므로, 국어에서 연락과 연계는 조금 다르게 쓰임. *연락(連絡): 1.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림. 2.서로 이어 대 줌. *연계(連繫): 1.잇따라 맴. 2.어떤 일이나 사람과 관련하여 관계를 맺음. 또는 그 관계. ‘연락운송’은 ‘연락’의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이나 국어에서는 그리 보편적인 사용법이 아님.	각 구간의 운송인들 공동으로 운송을 맡는 구간이 바뀔 때에 승객의 교환 및 탁송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용어집1차 시안)
21	영차(盈車, freight car)	①짐차	화물을 실은 차이므로, ‘화차’도 ‘짐차’로 순화함. 짐을 실은 자동차는 ‘짐자동차’, 짐을 실은 열차는 ‘짐열차’ 따위로 순화할 수도 있으나 이를 아울러 짐차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열차를 객차와 짐차로 구분하는 셈임.	일반적으로 짐자동차 의미한다. 철도차량에 화물을 적재한 차를 지칭한다.(용어집1차 시안)
22	원방신호기 (遠方信號機, Distant Signal, Approaching)	①예고신호기	‘장내 신호기’의 상태를 예상할 수 있도록 장내 신호기 앞에 세워 두는 신호기 이므로 ‘예고 신호기’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전자에게 장내 신호기가 어떤 상태임을 예고한다는 취	비자동구간의 장내신호기에 부속되어 있는 호기로 장내신호기의 방 400미터 이상의 점에서 장내신호기의

	Signal)		지에서 정한 것이다. 원방신호기관 역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정작 이 신호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원방’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함.	호현시를 예고하는 (용어집1차 시안)
23	유개차(有蓋車, a covered cart/wagon)	① 덮개차, 덮개짐차	덮개가 있으므로 이렇게 순화함. 승용차나 짐차나 모두 덮개가 있으면 덮개차임. 특별히 덮개 있는 짐차를 가리킬 때에는 ‘덮개짐차’로 순화함.	각종의 화물 수송에 리 쓰이고 있는 유개차.(용어집1차 시안)
24	이동폐색(移動閉塞 Moving Block)	① 이동차단/이동잠금	무선으로 앞뒤 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여 뒤 열차가 시시각각으로 정해지는 일정한 지점(앞 열차에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처럼 열차 진행 상황에 맞추어 차단 지점이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이동 차단’ 또는 ‘이동 잠금’이라고 순화한다.	선행열차와 후속열차 열차 간격을 폐색 에 의존하지 않고 후 열차의 제동 특성에 해 열차의 간격을 유 하는 방식.(용어집 시안)
25	폐색(閉塞 Block)	① 차단/잠금	폐색은 영어의 Block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으로서 ‘진입을 막음’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일정 구간에 열차의 진입을 못하도록 잠그는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차단’ 또는 ‘잠금’으로 순화하고자 한다.	한 폐색 구간에는 한 의 열차만 운행할 수 도록 하는 설비.(용어 1차 시안)
26	인상선(引上線, draw out track)	①끌선로, 끌어내는선로	입환선에서 차량을 붙이거나 차량을 떼어 놓기 위해서 입환선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끌어낸 선로를 가리킴. 입환선에서 입환 작업을 끝낸 차량은 이 선로로 나와야 본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열차를 조성, 분해 위해서 차량을 끌어올 는 데 쓰이는 측선의 나.(철도기술용어사전)
27	인입선(引入線, lead in track)	①끌어온선로	본선에서 특정한 장소로 선로를 끌어왔으므로 ‘끌어온 선로’로 순화함. 과거형을 쓴 것은 이미 짐 싣는 곳으로 선로를 끌어들었기 때문임. 특정 회사가 사용하도록 부설한 선로이므로 ‘회사선로’라고 해도 될 것임.	회사 작업장까지 본선 서 끌어와 간 회사 용 선로.(철도기술용어 전)
28	입환(入換, shunting)	①차갈이	차량을 떼어내거나 붙이는 일,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이동 해방(분 또는 연결하는 작업

			일 등을 통틀어 ‘차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낱말임.	말하며 일명 ‘차갈이’라고도 한다.(용어집1차시안)
29	자 중 (自重, empty weight)	① 빈 무게, 겹무게	‘자중’은 자체무게를 가리키는 말로서 자체 무게는 차량 자체 무게, 짐 자체 무게, 컨테이너 자체 무게 등으로 쓸 수 있어 용어의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음. 짐을 싣지 않은 짐차의 무게나, 짐을 넣지 않은 컨테이너 무게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빈무게’ 또는 ‘겹무게’가 바람직함.	적재하지 않은 상태 차량중량. 컨테이너에서는 물건을 넣지 않은 겹포장 무게라고 한다.(철도기술용어해집)
30	장내신호기 (場內信號機, Home Signal, Entering Signal)	① 진입 신호기	정거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지시하는 신호등이므로 정거장 어귀에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붙임. ‘출발 신호기’와 한 짝으로 순화. *장내(場內): 어떠한 곳이나 일정한 구역의 안.(표준국어대사전)	정차장에 진입하는 열차에게 진입 가부를 지시하는 주신호기.(철도기술용어해설집)
31	적 하 (積下, loading)	① 싣고 내리기	실음[積貨, 船積]과 내림[下貨]을 함께 일컫는 말임. 일반적으로는 실음에 내림을 포함하여 쓸 수도 있음. ‘적화’는 ‘실음’, ‘하화’는 ‘내림’으로 순화함.	배나 기차에 실어 운반하는 화물을 말한다. (용어집1차시안) ...해설 문제 있음.
	적하(積荷) 적화(積貨)	①싣기	적하=적화: 화물을 배나 차에 실음. 또는 그 화물.(표준국어대사전)	
32	전령자(傳令者, staff dispatcher)	① 전령 (傳令)	영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로 ‘자’를 붙였겠지만 ‘전령’으로도 사람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자’를 붙이면 의미가 불확실해짐. 직접 행위를 하는 지시자, 명령자, 전달자 등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차량이 있는 폐색구간에서 다른 열차를 운행시킬 때 운행열차에 동승하는 사람.
33	전차대(轉車臺, turn-table)	① 돌림대, 차돌림대	차를 올려놓고 판을 돌려서 차의 방향을 바꾸는 설비. ‘차돌림대’로 순화하여도 좋음.	차량의 방향을 전환한 선에서 다른 선으로 옮기기 위한 회전식 설비.(표준국어대사전)
34	전호 (傳號, sign)	① 개별 신호	전호도 신호의 일종임. ‘신호’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고, ‘전호’는 상황에 맞추어서 의사를 전하는 방식	형, 색, 음 등으로 판독자 상호간에 의사를 전하는 것.(철도기술용어해집)

			임. 이런 의미에서 ‘신호’는 일방신호라고 할 수 있고, ‘전호’는 개별신호라고 할 수 있다.	설집)
35	조가선(弔架線, Messenger wire)	①높이유지선, 높이유지드림줄	일정한 높이로 붙잡아 주는 줄. 모든 선로는 수평 방향으로 가설되지만 ‘조가선’은 수직 방향으로 가설된다는 점에서 ‘높이유지 드림줄’로 순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봄.	전차선을 같은 높이 수평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조가하여 주는 선.(철도기술용어해설집)
36	직결도상(直結道床, direct fastened track)	①콘크리트 도상, 직결궤도	영어 용어의 의미는 자갈을 깔지 않고 침목을 콘크리트 바닥에 곧바로 연결하여 간 궤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콘크리트 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direct fastened track이 콘크리트 도상을 설치한 궤도를 의미한다면 ‘직결 궤도’라고 하여야 한다.	레일을 도상 위에 직결하는 궤도 구조어집1차시안) ...해설 문제 있음.
37	차중률(車重率)	①차무게율	자중(自重)이나 차중(車重)은 국어에서 쓰지 않는 말이므로 ‘무게’라는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좋음. 그래서 ‘차무게율’로 순화함.	열차 1량의 총 중량(체중량+ 적재중량)을 관차는 30톤, 객차는 43.5톤의 나눈 값을 말한다.
38	철도연변(鐵道緣邊, the area along a railroad)	①철도언저리, 철도주변	‘연변(緣邊, 주위 부분)’과 ‘연변(沿邊, 잇닿아 있는 부분, 가장자리, 길옆)’을 구별함.	연변(緣邊): 둘레나 테리.(표준국어대사전)
39	타행운전(惰行運轉, coasting)	①관성운전, 무동력운전	어떤 상황에서 물체가 동력 없이 저절로 움직여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관성운전’으로 순화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동력 운전’과 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무동력 운전’으로 순화하는 것도 괜찮다고 봄.	제동도 걸지 않은 상태의 열차운전.(철도기술용어해설집)
40	팅레일(Tongue Rail)	①뽕족레일	열차의 선로를 바꾸기 위해서 본선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데 쓰이는 레일. 끝이 뽕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순화함.	끝 부분을 얇게 깎아 본레일에 밀착시켜진 구조.(철도기술용어해설집)
41	트로리(trolley)	③ 트롤리, 궤도수레, 밀차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트롤리’로 표기함. 필요하다면 궤도수레 또는 밀차로 순화할 수 있음.	보수 작업에 필요한 도구 운반, 선로 순회 등에 쓰이는 차.(철도기술용어사전)

42	파 레 트 (pallet)	① 짐 판	짐을 규격화하여 실은 상태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판.	
43	페일세이프기 능(fail-safe)	① 고 장 시 안 전 기능	센서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철도기술용어해설집에는 ‘이중안전 구조’로 번역되어 있음.	안전장치의 일부에 고장이 생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능.(철도기술용어사전)
44	하붕(荷崩, goods collapse)	① 짐 무 너짐	이 말은 용어로 보기 어려움. ‘하붕’이라는 낱말을 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봄.	
45	하화장(下貨 場 , unloading yard)	① 짐 내 리는 곳	적화장, 하화장 같은 것도 용어로 보기는 어려움. ‘적화장’은 ‘짐 싣는 곳’으로 순화함.	
46	해결(解結, coupling a n d decoupling)	① 떼 고 잇기	화차를 떼거나[解放] 잇는[結合] 작업. ‘해결(解決)’로 오해할 수 있어서 반드시 순화해야 함.	연결된 차량을 떼거나 새 차량을 붙이는 일.(철도기술용어사전)
47	현차(現車, active duty car)	① 실 제 열차	실제 운행할 열차를 의미함. 시험을 위해서 운행하는 열차가 아니라 그 구간에 실제 운행하도록 제작한 열차(편성 차량수를 모두 편성하여 붙인 상태)를 가리킴.	열차에 의해 실제 운행하는 객차 또는 화차의 차량수. 환산량수에 사용되는 개념임.(용어해설 차시안) ...해설에 문제가 있음.
48	호퍼카 (H o p p e r car)	① 깔때기 차, 깔때기 짐 차	차의 아래나 옆에 깔때기 모양을 한 부분을 가진 짐차.	분체 및 입체를 비포장 적재 수송하기 위해 밑바닥이 열리거나 아래 부분이 열리는 구조의 깔때기를 가진 차.(철도기술용어해설집)
49	화물 적 하 선 (貨物積下線)	① 짐 싣 는 선로	화물을 싣고 내리는 데 쓰이는 선로. 구태여 싣고 내리는 선로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봄.	정차장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선로.(철도기술용어해설집)
50	환산량킬로 (換算輛kilo)	① 환산차 량킬로	‘킬로’를 외래어표기법에 따라서 ‘킬로’로 고침. ‘량’을 ‘차량’으로 고쳐 의미를 보완함. 10톤 중량을 1대로 보고 환산한 차량 수에 운행 거리를 곱한 것이므로 ‘환산차량킬로’라고 표현한다. ‘환산량’에는 ‘환산차량’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환산차량킬로=환산량×운행거리

(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내부 공간 이름

상담 종류: 용어 순화, 이름 짓기

기간: 2008. 9. 23. - 2008. 9. 30.

상담자: 국어단체연합 남영신, 임동훈, 고성환, 정호성

담당자: 김삼렬, 원용준(그래피스 팀장)

시안 검토 의견

① 기준의 자의성: 의미 전달형은 구체어의 복합으로, 상징 복합형은 상징어의 복합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 별도로 일반 국문형, 우리말형을 구별하는 것은 기준으로서는 부적절함.

② 기준의 적용: 각 방의 이름에 일률적으로 특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임. 방의 기능이나 위치, 용도 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로 선택.

③ 용어의 선택 기준: 방의 기능을 중시할 것인지, 위치나 용도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성을 중시할 것인지는 각 장소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④ 토박이말과 한자어, 외래어: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는 가치의 문제이면서 실용성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논의가 필요함. 특별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토박이말을 살려 쓸 곳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만한 방도 있을 것임.

⑤ 공간 이름인가 아닌가?: 방 이름, 열린 장소 이름, 여러 공간을 한데 아우르기 위해서 편의상 쓰는 이름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용어 검토

공간 이름		의미 전달형	대안	설명	비고
IC 공간		디지플렉스 (Digiplex)	디 지 털 복 합 관 (복합 디 지 털관)	도서관을 상징 하는 이름	정보 마당 (열린 공간)
지 하 3 층	스피드 검색공간	클릭 검색대	자료 검색대		(열린 장소)
	멀티디스플레이월	미디어아트월	비디오(벽)		(열린 장소)
	디지털모뉴먼트	library 상징 조형 물	?	조형 공간	(열린 장소)
	디지털텍스트서비 스공간	3D 텍스트존	3D 텍스트 서비스(구역)		(열린 장소)

	디지털 뉴스페이퍼	디지털 뉴스페이퍼	디지털 신문(열람대)	‘전자신문’은 고유명사	(열린 장소)
	종합영상음향실(대)	디지털 컨퍼런스 홀	대회의실		(방)
	글로벌 라운지	글로벌 데스크	글로벌 라운지	*메인로비	(열린 장소)
	휴게공간	휴가든	쉼터	휴게실	(열린 장소)
	전시관	미디어 아트홀	전시실		(방)
지 하 2 층	디지털클러스터	디지털 열람터	디지털 열람 실		(아우름?방?)
	멀티플렉스	멀티상영관	복합상영관		(방)
	미디어센터	미디어 드림센터	미디어 센터		(아우름)
	디지털편집공간	디지털 편집터	UCC 편집실		(방)
	매 체 이 용 VOD/EOD zone	미디어 서비스 존	시청각실		(방)
	영상제작/편집 스 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영상 스튜디오		(방)
	음향제작/편집 스 튜디오	음향 스튜디오	음향 스튜디오		(방)
	UCC 촬영 스튜디 오	UCC 스튜디오	UCC 스튜디오		(방)
	라디오 스테이션	NDL 라디오센터	라디오 방송실		(방)
	디지털 미디어 전 시	미디어 갤러리	UCC 전시실		(방)
	종합영상음향실(소)	디지털배움터	소회의실		(방)
	디지털 미팅룸(대)	U-미팅룸	그룹 세미나 실(대)		(방)
	디지털 미팅룸(소)	소그룹 미팅룸	그룹 세미나 실(소)		(방)
	정보소외계층공간	보조기기 지원센 터	장애인 이용 실		(방)
	브라우징 데스크	노트북 테라스	노트북 이용 실		(방)
	IPTV공간	IPTV 존	IPTV 시청실		(방)
지 하 1 층	본관연결통로	미래로	?	상징적인 어휘 필요	
	북카페	지식카페	카페		(열린 공간)

국어문화원 이용 안내

한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외국인 누구나 국어문화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문화원 이용 안내

1.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국어문화원을 이용하여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각 문화원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전화를 이용한 상담은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요일과 시간의 제약이 없음.

3. 제공되는 서비스

국어문화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서비스 내용은 국어문화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자기 지역의 국어문화원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국어 문답: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 용법 등 간단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으로서 이 기능은 모든 국어문화원이 가지고 있다. 전화나 누리집을 이용하여 묻고 답하는 기능이 있다.

(2) 문장 교열: 문장 단위로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 사용법, 문장 구성법 등에 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바로잡아 주는 일로서 이 기능도 모든 국어문화원이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문장 교열을 하고 있는 국어문화원이 있다. 이 기능은 지극히 짧은 문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3) 공공 표지판 표기 검토: 도로표지판의 영문 표기, 사적지 안내판의 한글 또는 영문 표기 등을 검토하여 바로잡아 주는 기능으로서 이 기능도 모든 국어문화원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 몇몇 국어문화원이 이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기능도 양과 질에 따라서 무료이거나 유료로 한다.

(4) 용어 순화: 과거 국어심의회의 순화분과위원회에서 용어 순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이 사업을 순화분과위원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국어문화원이 하게 된다. 여기서 용어 순화라 함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

는 외국어 용어나 한자어 용어를 국어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5)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모든 국어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국어문화원이 대부분이고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국어문화원도 있다. 일부 국어문화원에서는 이주여성의 자녀를 위한 국어 교육 및 보습 교육도 실시한다.

(6)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교원 양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과정을 둔 국어문화원도 있다. 대체로 대학에 설치된 국어문화원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도 대체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자격증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기도 한다.

(7)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도 대학에 설치된 국어문화원에서 시행하는데 대개 지역 문화원이나 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8) 찾아가는 문화 학교 운영: 기관이나 단체가 국어 관련 강연,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국어문화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이에 부응하고 있다. 강연의 경우에는 청중 30명 내외, 시간 100분 안팎으로 정해서 요청을 하면 되고, 교육의 경우에는 3-5일 단위로 교육 일정을 짜서 국어문화원과 상의하면 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연은 국립국어원의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기관이나 단체는 비용 부담이 없지만, 교육은 유료이므로 국어문화원과 상의해야 한다.

(9)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 결혼 가정 자녀,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노인층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교육을 운영하는 국어문화원도 있다. 이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3. 국어문화원이 서비스하지 않는 것

국어문화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적 권위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문 규정의 개폐와 관련된 사항을 비롯한

국어 정책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는 국어문화원이 응할 수 없다. 일부 국민들은 표기법을 비롯한 어문 규정 또는 어문 정책에 대한 불만을 국어문화원에 토로하는데 단순한 의견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라면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이걸 국어문화원이 바로잡으라는 식으로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국어문화원의 위치와 기능을 오해한 것이다.

4. 비용

국어문화원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무료이다. 국어 관련 물음, 간단한 문장 검토,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문장 교열, 용어 순화 등은 비용을 내야 한다. 비용의 크기는 사안별로 국어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

5. 이용 방법

국어문화원에 묻거나 상의하려면 먼저 해당 국어문화원에 전화하거나 그 문화원의 누리집에 들어가서 질문을 올려야 한다. 모든 국어문화원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담하고자 하는 국어문화원을 정해서 그 국어문화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이 지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국립국어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립국어원에 요청한 사항을 국어문화원이 처리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는 대체로 국가 기관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담이나 요청인 경우로 보면 된다.

6. 국어문화원 의견의 권위

국어문화원이 상담한 내용, 교열한 내용, 순화한 내용 등이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갖는지 궁금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에서는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기관”이라고 인정한 기관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을 할 능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 국어와 관련해서 준 응답이나 결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다. 원래 국어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 기관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전문가의 권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이 정도의 권위라면 국어 상담이나 국어 교육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7) 국어문화원의 연락처

명칭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위치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http://munjang.net	eomun@ewha.ac.kr	02)3277-3250	서울 서대문구
국어단체 국어문화원	www.barunmal.org	baro@barunmal.org	02)735-0991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 국어문화원	korean.kbs.co.kr//main.php	skokiaan@kbs.co.kr	02)781-3838	서울 영등포구
강원대 국어문화원	http://kwnu.net	korcon@kangwon.ac.kr	033)250-8137	강원도 춘천시
상명대 국어문화원	http://www.smkorean.net	koreandl@smu.ac.kr	041)550-5391	충남 천안시
충북대 국어문화원	http://korean.chungbuk.ac.kr	korean@chungbuk.ac.kr	043)261-3450	충북 청주시
청주대 국어문화원	http://www.koreanlab.or.kr	sangdam@koreanlab.or.kr	043)229-8311	충북 청주시
전남대 국어문화원	http://kor.chonnam.ac.kr	kor@chonnam.ac.kr	062)530-0313	광주시 북구
경북대 한국어문화원	http://knukorean.knu.ac.kr	klrc@knu.ac.kr	053)950-7498	대구시 북구
영남대 국어문화원	http://ccrk.yu.ac.kr	ccrk@ynu.ac.kr	053)810-3561	경북 경산시
동아대 국어문화원	http://korean.donga.ac.kr	klc7180@dau.ac.kr	051)200-7180	부산시 사하구
경상대 국어문화원	http://ckc.gsnu.ac.kr	ckc@gnu.ac.kr	055)751-6195	경남 진주시
전주대 한국어문화원	http://korean.jj.ac.kr	korean1@jj.ac.kr	063)220-3095	전북 전주시
제주대 국어문화원	http://malguel.cheju.ac.kr	halla2712@cheju.ac.kr	064)754-2712	제주도 제주시
한남대 국어문화원	http://hankls.hnu.kr/	hankls@hanmail.net	042)629-8345	대전시 대덕구
울산대 국어문화원	http://korea.ulsan.ac.kr/	pjyoo@mail.ulsan.ac.kr	052)259-2647	울산시 남구